

표지면지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정혜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연구원)

박윤환(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차례

1장 서론 / 3

2장 이론적 논의 / 9

제 1절 선행연구 검토	11
1. 사회해체와 깨진창문이론	11
2. 환경범죄학	16
제 2절 지역사회와 청소년성매매	28
1. 청소년성매매	28
2. 지역사회와 청소년성매매	33

3장 연구방법 / 51

제 1절 자료수집	53
1. 설문조사 자료수집	53
2. 공식통계 자료수집	57
제 2절 조사내용	59
제 3절 분석방법	61
1.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범죄지도그리기(mapping)	61
2. 탐색적 공간자료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63
3. 점 사상(point feature)에 대한 공간분포패턴 분석	65

4장 분석결과 / 69

제 1절 청소년성매매 공식통계 분석	71
1. 시군구 단위 성매매 범죄자 및 범죄건수의 공간적 패턴	71
2. 시군구 단위 범죄유해환경 요소들의 공간적 패턴	73
3. 청소년성매매 공식통계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79

제 2절 청소년성매매 관련 설문조사 분석	83
1. 조사대상자의 특성	83
2. 공간자료 분석1: 수도권 전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	103
3. 공간자료 분석2: 서울 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	113
4. 공간자료 분석3: 인천 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	127
5. 공간자료 분석4: 경기 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	133
6. 공간자료 분석5: 청소년성매매와 비행의 공간적 연관성 분석	148
제 3절 자치구별 청소년성매매 발생도	153
1. 청소년성매매 발생도의 의미와 측정 방식	153
2. 청소년성매매 발생도의 해석 및 분석	155
제 4절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60
1. 분석단위와 변수	160
2. 모형에 대한 고찰	161
3. 분석 결과	163

5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167

제 1절 요약	169
제 2절 정책적 제언	176
1. 성매매노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사업』 개선 및 신설	177
2. 청소년쉼터 기능보완을 통한 청소년성매매 예방필요 : 일시쉼터의 기능보완	183
3. 청소년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단속 및 감시 강화	184
4. 기타	186
참고문헌	189
부록	195

표목차

[표 1] 각종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기관	34
[표 2] 청소년 유해업소	44
[표 3] 청소년유해업소의 내용과 예시	46
[표 4] 2007-2011 서울메트로 수송인원과 수송수입	48
[표 5] 가출 청소년 신고 현황	54
[표 6] 2011년 청소년쉼터 현황	55
[표 7] 공식통계 자료수집 분류	58
[표 8] 설문조사내용	59
[표 9] 성별 분포	83
[표 10] 연령별 분포	83
[표 11] 학교 재학 유형	84
[표 12] 출신 시도 현황	85
[표 13] 출신 시군구 현황	85
[표 14] 가출 여부	85
[표 15] 거주 장소	86
[표 16] 거주 장소와 노는 장소가 동일한지 여부	86
[표 17] 노는 장소 1순위	87
[표 18] 노는 장소 2순위	88
[표 19] 가출 시 숙식장소 1순위	89
[표 20] 가출 시 숙식장소 2순위	90
[표 21] 성매매 경험 여부	91
[표 22] 성매매 유형	91
[표 23] 성매매 장소	92
[표 24] 성매매 장소 선정자	92
[표 25] 자주 가는 성매매 장소 유무	92
[표 26] 비행 유형 (행위 기준)	93
[표 27] 탈선 유형 (사람 기준)	93
[표 28] 성별에 따른 노는 장소	94
[표 29] 성별에 따른 가출 시 숙식장소	95

[표 30] 학생여부 따른 노는 장소	96
[표 31] 학생여부 따른 가출 후 숙식장소	97
[표 32] 현재가출여부에 따른 노는 장소	97
[표 33] 연령에 따른 노는 장소	98
[표 34] 연령에 따른 가출 시 숙식장소	99
[표 35]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가출 시 숙식장소	100
[표 36] 성별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	101
[표 37] 학교여부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	102
[표 38] 현재가출여부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	102
[표 39] 연령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	102
[표 40] 연령과 성별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	103
[표 41] 청소년성매매 발생도 상위 20개 시군구 현황	155
[표 42] 변수명과 변수설명	161
[표 43] 서술통계요약	164
[표 44]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164
[표 45] 공간회귀모형의 비교	165
[표 46] 지하철망을 이용한 버퍼존 분석결과	173
[표 47]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 결과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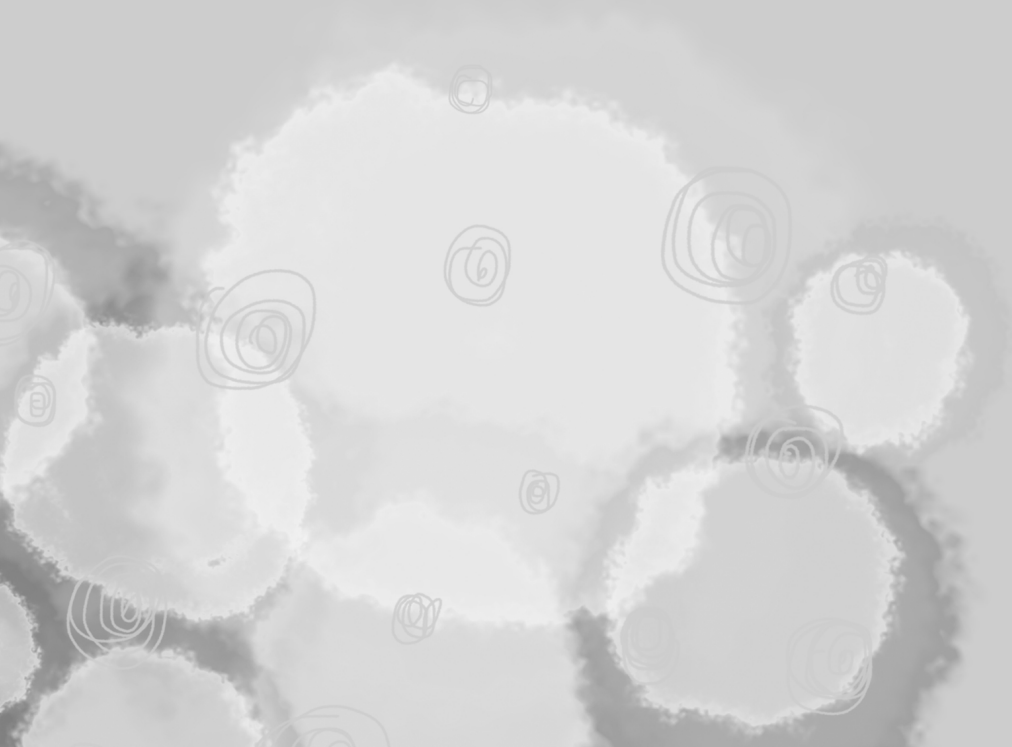
그림목차

[그림 1] 청소년성매매사범 검거인원현황(2001-2009)	3
[그림 2] CYS-Net 운영조직	35
[그림 3] CYS-Net 사례지원과정	36
[그림 4] Wee 서비스 네트워크	37
[그림 5] 청소년쉼터 유형별 기능과 체계	39
[그림 6] 점 사상의 분포패턴	66
[그림 7] 2011년 수도권지역 청소년성매매 공간패턴	71
[그림 8] 2010~2011년 수도권지역 청소년성매매 범죄건수 및 범죄율 공간패턴	72
[그림 9] 2010~2011년 수도권지역 청소년성매매 범죄 발생비율 및 밀도패턴	73
[그림 10] 수도권지역 숙박업소 및 주점의 공간패턴	74
[그림 11] 수도권지역 오락업소 및 마사지업소의 공간패턴	75
[그림 12] 수도권지역 빈곤인구 및 다세대주택 공간패턴	77
[그림 13]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성폭력 지원시설 공간패턴	78
[그림 14] Geoda를 이용한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의 Moran' s I값과 산점도	80
[그림 15] Geoda를 이용한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의 Moran' s I의 통계적 유의성	80
[그림 16]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의 Local Moran' s I의 통계 분포	81
[그림 17]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거주 및 노는 공간분포	105
[그림 18]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가출 및 성매매 공간분포	106
[그림 19]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활동지역 및 성매매 장소 공간분포	107
[그림 20] 설문조사 청소년 주거지 변수의 평균 최근린 분석 결과	108
[그림 21] 설문조사 청소년 주거지 변수의 다중 거리 공간 군집분석(K-function) 결과	109
[그림 22] 설문조사 청소년 노는 장소 변수의 평균 최근린 분석 결과	110
[그림 23] 설문조사 청소년 노는 장소 변수의 다중 거리 공간 군집분석(K-function) 결과	110
[그림 24] 설문조사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 변수의 평균 최근린 분석 결과	111
[그림 25] 설문조사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 변수의 다중 거리 공간 군집분석(K-function) 결과	111
[그림 26] 설문조사 청소년성매매 장소 변수의 평균 최근린 분석 결과	112

[그림 27] 설문조사 청소년성매매 장소 변수의 다중 거리 공간 군집분석(K-function) 결과.....	112
[그림 28] 조사 청소년들의 서울 지역 내 거주 및 노는 공간분포 중심과 방향.....	114
[그림 29] 조사 청소년들의 서울 지역 내 가출 및 성매매 공간분포 중심과 방향.....	115
[그림 30] 서울시 지하철 선로와 비행 청소년 거주 공간 분포.....	117
[그림 31]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비행 청소년 거주 공간 분포.....	118
[그림 32] 서울시 지하철 선로와 비행 청소년 놀이의 공간 분포.....	119
[그림 33]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비행 청소년 놀이의 공간 분포.....	119
[그림 34] 서울시 지하철 선로와 비행 청소년 가출의 공간 분포.....	120
[그림 35]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비행 청소년 가출의 공간 분포.....	121
[그림 36] 서울시 지하철 선로와 청소년성매매의 공간 분포.....	122
[그림 37]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청소년성매매의 공간 분포.....	122
[그림 38] 서울 관악구 청소년 거주/노는 장소와 신림역 버퍼존 분포.....	124
[그림 39] 서울 관악구 청소년 가출/성매매 장소와 신림역 버퍼존 분포.....	125
[그림 40] 서울 영등포구 청소년 활동/성매매 장소와 영등포역 버퍼존 분포.....	126
[그림 41] 서울 동대문구 청소년 가출/성매매 장소와 주요 역사 버퍼존 분포.....	127
[그림 42] 인천 지역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의 공간적 분포.....	128
[그림 43] 인천 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놀이의 공간적 분포.....	129
[그림 44] 인천 남구 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주안역 버퍼존 분포.....	130
[그림 45] 인천 남구 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주안역 버퍼존 분포.....	131
[그림 46] 인천 부평구 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부평역 버퍼존 분포.....	132
[그림 47] 인천 부평구 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부평역 버퍼존 분포.....	133
[그림 48] 경기 지역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의 공간적 분포.....	134
[그림 49] 경기 지역 청소년 거주 및 놀이의 공간적 분포.....	135
[그림 50] 경기 부천시 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부천역 버퍼존 분포.....	136
[그림 51] 경기 부천시 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부천역 버퍼존 분포.....	137
[그림 52] 경기 수원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수원역 버퍼존 분포.....	138
[그림 53] 경기 수원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수원역 버퍼존 분포.....	139
[그림 54] 경기 고양 일산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주요 역사 버퍼존 분포.....	140

[그림 55] 경기 고양 일산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주요 역사 버퍼존 분포.....	141
[그림 56] 경기 안산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중앙역 버퍼존 분포.....	142
[그림 57] 경기 안산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중앙역 버퍼존 분포.....	143
[그림 58] 경기 의정부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의정부역 버퍼존 분포...	144
[그림 59] 경기 의정부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의정부역 버퍼존 분포.....	145
[그림 60] 경기 안양 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안양역 버퍼존 분포.....	146
[그림 61] 경기 안양 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안양역 버퍼존 분포.....	147
[그림 62] 경기 성남 지역 위기 청소년 활동 장소와 주요 역사 버퍼존 분포.....	148
[그림 63] 유형에 따른 조사 청소년 비행의 수도권 지역 공간 패턴.....	149
[그림 64] 서울시 청소년성매매 및 비행의 공간분포 비교.....	150
[그림 65] 인천 지역 위기 청소년성매매 및 비행의 공간적 분포.....	151
[그림 66] 경기 지역 청소년성매매 및 비행의 공간적 분포.....	151
[그림 67] 수도권 청소년성매매 발생 정도의 공간적 패턴.....	157
[그림 68] 수도권 청소년성매매 발생 정도의 핫스팟 분석.....	159
[그림 69] 정책적 제언	176

연구 요약



연구 요약

1. 연구 필요성

○ 청소년 가출과 청소년 성매매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변혜정, 2012; 정혜원, 2011a).

※ 변혜정(2012) 및 정혜원(2011b)보고서 : 가출십대여성 가운데 약 25%가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음.

※ 2006년 ECPAT(아동성착취반대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들 중 가출청소년 절반 가량이 성매매를 경험했거나 현재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 청소년 가출은 증가하고 있음.

연도	청소년 가출
2006	9,390
2007	12,240
2008	15,337
2009	15,118
2010	19,445

출처: 경찰청(2011)

○ 그러나 청소년 가출 쉼터 입소자수는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음. 가출 청소년들과 성매매노출 청소년들이 쉼터 이외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또한 청소년 성매매의 유입경로는 대부분 인터넷채팅을 통한 것임(정혜원, 2011b; 홍봉선·남미애, 2009; 성운숙, 2009; 보건복지부, 2008). 그러나 사이버공간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정책적으로 매우 힘들. 이에 청소년성매매를 현실생활공간

에서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최근 범죄예방분야에서는 범죄발생가능성이 많은 공간적 특성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하는 노력이 등장하고 있음.
- 성매매노출청소년의 경우에도 그들의 생활공간분포 및 공간이용형태, 성매매피해지역 분포 및 패턴, 지역적 변이 등과 같은 패턴을 알 수 있다면, 지역사회환경을 관리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성매매 방지정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짐.
- 성매매노출청소년의 공간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성매매 발생이나 예방책에 대해서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공간적으로 청소년성매매 다발지역을 식별해 낸 지도는 청소년성매매와 관련된 경찰활동, 청소년성매매 예방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연구 목적

- GIS소프트웨어와 그와 관련된 도구를 이용하여, 가출 및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의 공간패턴을 지역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청소년의 분포를 확인함.
 - 지역사회가 확보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나 ‘유해환경’을 검토함.
 - 가출 및 성매매노출청소년의 활동공간과 연관된 지역의 구체적인 속성을 밝힘.
 - 지역별 청소년성매매 발생도를 제시한 후, 이러한 청소년성매매 발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

3. 이론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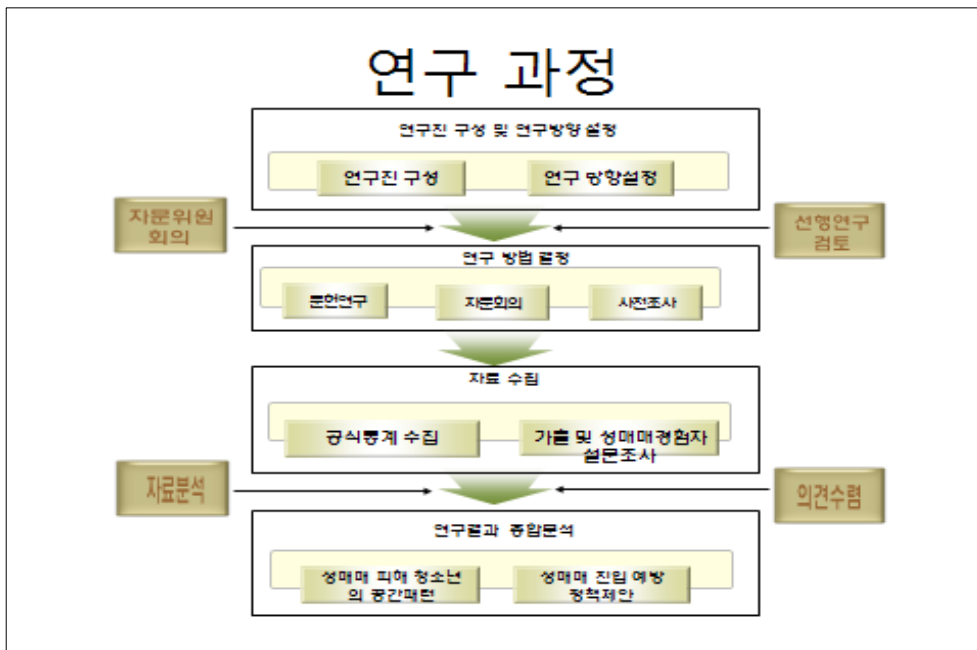
○ 선행연구 검토

	이론		내용
사회해체와 깨진 창문이론	사회해체이론		잡은 인구이동, 경제적 불평등 등 도시화의 부정적 특성이 지역사회의 기능을 해체시켜 비행을 자극함
	깨진창문이론		지역사회의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가 범죄를 발생시킴
	사회해체와 깨진창문이론, 청소년성매매		사회해체와 깨진창문이론과 청소년성매매의 관계를 살펴봄
환경범죄학	셍테드 접근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
	환경, 기회 그리고 의사결정	합리적 선택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 하에 범죄자의 지속적인 범죄성향보다는 상황적 요인들과 처벌 및 통제라는 주변적 요인이 범죄를 발생시킴
		일상생활이론	범죄는 범죄자의 동기와 범죄대상이 존재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방어력이 부재한 지역적 상황에서 발생함
		생활양식이론	피해자의 개인적 생활양식의 차이가 범죄피해가능성을 발생시킴
		구조적 선택모형	범죄기회구조와 표적선택을 통합하여 범죄피해가능성을 설명함
		범죄패턴이론	합리적선택이론과 일상생활이론 그리고 범죄의 기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범죄가 어디서 언제 발생하는가의 측면에서 설명함
	환경범죄학과 청소년성매매		환경범죄학과 청소년성매매의 관계를 살펴봄

○ 지역사회와 청소년 성매매

	이론		내용
청소년성매매	청소년성매매개념과 연구흐름		청소년성매매의 연구흐름
	가출과 청소년성매매		가출 및 청소년성매매의 관계 및 관련 연구 검토
지역사회와 청소년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환경범죄학적 접근
	청소년 유해환경	유해업소	사회해체요인, 환경범죄학적 요인으로 서 청소년유해환경과 청소년성매매
		지역사회의 낙후성	사회해체요인, 환경범죄학적 요인으로 서의 지역의 낙후성과 청소년성매매
청소년들의 이동과 대중교통		범죄패턴이론에 근거한 대중교통 그리고 성매매노출청소년의 이동	

4. 연구 체계도



5.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성매매관련 국내·외 자료와 문헌을 수집분석

○ 전문가 자문

- 연구 전반에 걸쳐 자문할 교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개최

○ 자료수집

[공식통계 자료]

		내용(출처)
1	청소년성매매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 2010~11년 수도권 자치구별 청소년대상 성매매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경찰청)
2	지역사회변인	○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 성매매피해청소년 보호 및 예방서비스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성매매피해청소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수 ○ 폭력피해청소년지원기관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Wee센터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청소년쉼터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청소년성문화센터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성폭력상담소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원스톱지원센터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지하철역사 및 지하철노선 위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버스정류장 위치 ○ 수도권지역 지하철역사 및 지하철노선 위치
3	사회인구학적변인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청소년인구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총인구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재산세

[설문조사 자료]

설문조사 대상	설문조사 기간	설문조사 부수
수도권지역에서 거주하는 가출 및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시, 이동, 단기, 장기쉼터거주 및 쉼터이용자)	6.7 ~ 8.3	398부

○ 조사내용

[설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사회 인구학적 요인(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성별, 학교재학상태, 가족거주지, 가출여부
현재 거주 장소 및 노는 장소(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먹고 자는(숙식)장소 현재 먹고 자는 지역 현재 먹고 자는 장소의 주변 건물이름 현재 노는 장소 현재 노는 지역 주로 노는 장소(순서) 주로 노는 장소의 주변건물이름
과거 가출시 숙식장소(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가출시 가장 많이 먹고 잤던(숙식)장소 과거 가출시 가장 많이 먹고 잤던(숙식)지역 과거 가출시 가장 많이 먹고 잤던(숙식)장소의 주변건물이름
과거 성매매 장소(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산업 관련 업종 종사 여부 경험한 성산업 종류 조건만남 장소 조건만남 장소 선정자 자주 가는 조건만남장소 자주 가는 조건만남장소의 지역과 주변건물이름 주변 친구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조건만남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과거 비행장소(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행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패싸움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뺨뜯기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약물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 분석방법

-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이용
- Geoda을 이용한 자기공간상관관계 분석

6. 주요 연구 결과

- 2010년과 2011년의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과 검거건수(공식통계)를 종속변수로 하여, 지역별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과 검거건수의 공간적 패턴, 지역별 청소년성매매 유해 환경요소 및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들의 공간적 패턴, 청소년성매매 공식통계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하였음.

- 2010년과 2011년의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과 검거건수의 공간패턴을 살펴보았음.
 - 2011년 수도권 시군구별 청소년성매매의 공간패턴을 살펴보면, 검거인원이나 검거건수 모두 대도시인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권에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 2010년과 2011년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과 검거건수를 종합한 결과와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성매매 건수에 대한 공간적 패턴도 2011년 수도권 시군구별 청소년대상 성매매의 공간패턴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 최근 2년간 청소년성매매의 공간패턴을 발생비율의 차이와 밀도점(density plot)으로 나타낸 결과, 서울 일부지역들의 경우 청소년성매매가 발생한 경기도의 일부 외곽지역들에 비해서 청소년대상 성매매의 발생이 10~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성매매 밀도 지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안에서도 남서권과 한강 이북의 중심지역들에서 청소년대상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

- 청소년들의 주변지역 유해환경을 주점업, 숙박업, 오락업, 마시지업 4가지 유해업종과 기초수급자비율, 연립 및 다세대 주택비율을 이용한 지역낙후성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분포를 살펴보았음.
 - 숙박업의 경우 중상 및 최상에 포함되는 지역들이 서울지역에 다수 집중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인천·경기 서부권과 경기 동부 및 북부권의 농촌지역으로도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점업은 서울지역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음. 오락업은 주점업과 유사하게 서울 및 수도권 서부권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

음. 반면 마사지업종은 서울지역에 좀 더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락업과 유사한 공간패턴을 지니고 있었음. 숙박업을 제외하고 주점업, 오락업, 마사지업의 경우 청소년대상 성매매와 공간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수급자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경기 북동부의 일부 농촌지역들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도 일부 강북지역과 서남부지역이 비교적 높은 빈곤정도를 보였음. 이에 비해서 경기남부권을 중심으로 서울인접 근교지역은 빈곤정도가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대상 성매매의 공간분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음.
- 연립 및 다세대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서울과 수도권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분포와 유사성을 띠고 있었음.

○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안전망의 분포를 수도권지역의 청소년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정부지원시설의 지리적 분포로 살펴보았음.

- 청소년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정부시설의 공간적 분포는 수도권 외곽 농촌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서울 및 인접 수도권에 걸쳐서 고루 퍼져 있었음.

○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의존성과 공간적 이질성을 살펴봄.

- 해당지역과 이웃주변지역들의 청소년성매매율이 모두 높은 지역은 관악구,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로 모두 서울 안에 위치하고 있었음.
- 해당지역과 이웃주변지역들의 청소년성매매율이 모두 낮은 지역은 경기도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북부와 동부 농촌지역들과 일부 서울 남쪽 근교도시들이었음.
- 주변의 높은 청소년성매매율 지역들에 둘러 싸여서 낮은 청소년성매매율로 고립된 지역은 성북구와 은평구로 나타남.

□ 수도권 지역 위기청소년들을 대상(398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특성, 수도권전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 서울·인천·경기에 대한 미시적 분석

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음.

- 설문에 응한 청소년들의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운데 흥미로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설문에 응답한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1순위 노는 장소로 'PC방과 노래방'을 찾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를 성별, 학교재학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남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PC방(49.54%)이며, 노래방(15.60%), 공원(4.59%), 술집(3.67%), 쉼터(3.67%)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여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노래방(32.31%)이며, 그 다음 순위는 PC방(19.49%), 놀이터(6.67%), 골목/길거리(5.13%)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생과 학생이 아닌 경우 모두 가장 선호하는 노는 공간은 'PC방과 노래방'이었지만, 그 외 노는 공간의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술집이나 역부근'을,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놀이터, 공원, 골목/길거리'를 선호하였음.
 - 성별에 따른 성매매 경험 여부를 교차분석 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p < .05$). 성매매 경험은 여자청소년이 25.98%로 남자청소년의 9.52%보다 훨씬 높았음.
 - 학생여부에 성매매 경험 여부를 교차분석 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p < .05$), 학생인 경우에는 성매매 경험이 14.69%로 학생이 아닌 경우 28.13%보다 낮게 나타남.
- 설문조사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현재 먹고 자는 공간(거주 장소)과 노는 장소, 그리고 과거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를 살펴보았음.
 - 거주 장소는 대부분 서울 및 인천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노는 장소도 거주 장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군집정도가 다소 떨어짐.
 - 가출 시 숙식장소는 특정도시의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정도가 매우 강했고, 성매매피해 장소는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도출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서울과 인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의 군집경향이 유의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K함수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가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패턴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연구 지역의 범위를 좁혀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 서울시 안에서 거주 장소의 공간분포는 서울시의 남서부 거주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상향으로 비스듬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는 장소의 경우에는 거주 공간분포 방향에 비해서는 다소 기울기가 작아졌지만 남서부권역에서 완곡하게 북동쪽을 향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었음.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거주 장소와 노는 공간 모두 비슷한 공간분포의 중심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가출 시 숙식장소의 공간분포는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으로 균형 있게 퍼져 있고, 성매매 피해 장소는 서울시 남서부권에 치우쳐서 전체적으로 성매매 피해 장소가 전 지역에 걸쳐 균형 있게 퍼져 있지 않았음.

○ 서울시의 지하철 선로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한 버퍼존 분석을 실시하였음. 다시 말해서 지하철 선로와 지하철역사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거주 공간, 노는 공간, 가출 시 숙식공간, 성매매피해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음.

-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거주 공간은 약 55%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거주 공간이 약 32% 포함되어 있었음.
-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노는 공간은 약 67%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노는 공간이 약 53% 포함되어 있었음.
-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가출 시 숙식공간은 약 85%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가출 시 숙식공간이 약 84% 포함되어 있었음.
-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 공간은 약 95%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 공간이 약 90% 포함되어 있었음.

[지하철망을 이용한 버퍼존 분석결과]

	거주 공간	노는 공간	가출 시 숙식 공간	성매매 피해 공간
지하철 선로	약 55%	약 67%	약 85%	약 95%
지하철 역사	약 32%	약 53%	약 84%	약 90%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청소년성매매 다발 자치구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실시함.
 - 서울시 안에서 청소년성매매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관악구, 동대문구, 영등포구의 순서였고, 지역 내 대표적인 교통망인 주요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500m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노는 장소, 거주 장소, 성매매 장소가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출 시 숙식장소와 성매매 장소가 관악구는 신림역을 중심으로, 동대문구는 외대앞역과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영등포구는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군집되어 있었음.
 - 인천시의 경우에는 성매매 범죄가 남구와 부평구 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출 시 숙식장소의 경우도 성매매만큼은 아니지만 동일한 지역에서의 공간적 군집이 상당한 수준에서 확인되었음. 노는 공간의 경우는 먼저 살펴본 청소년 성매매나 가출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군집지역이 발견되고 있는데 반해서 거주 공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분포가 흩어져 있었음. 특히, 남구 주안역과 부평구 부평역을 중심으로 노는 장소와 성매매 장소는 군집되어 있었지만 거주 장소와 가출 시 숙식장소는 흩어져 있었음.
 - 경기지역에서는 청소년성매매 경우 경기 서부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음. 특히 고양 일산, 부천, 안산, 수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출 시 숙식장소의 경우도 청소년성매매 다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간적 군집이 확인되었음. 거주 및 노는 공간의 경우도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 성매매 다발 지역들과 함께 의정부, 안양, 성남 등 군집지역들이 발견됨. 또한 부천

시 부천시, 수원시 수원역, 고양시 탄현역·정발산역·주엽역·백석역 주변에 청소년 성매매피해공간들이 군집되어 있었음.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 결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관악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남구	부평구	부천시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노는 장소	군집○	-	-	군집○	군집○	군집○	-	군집○	군집×
거주 장소	군집×	-	-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가출 장소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성매매 장소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신림역	외대앞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주안역	부평역	부천시	수원역	탄현역 정발산역 주엽역 백석역	중앙역

○ 청소년 성매매와 비행의 공간적 연관성을 분석해 봄.

- 설문조사를 통해 보고된 비행의 상당수는 서울시와 인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경기도는 인천과 서울을 잇는 서부권역에 집중되어 있었음. 이처럼 조사 청소년들 비행의 공간분포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분포와 비교해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음.

□ 공식통계와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성매매의 발생도를 구성하였음

- 수도권 전체 78개 시군구 가운데 청소년성매매 발생정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인천 남구이며, 서울 종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중구, 서울 관악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 성매매 발생정도가 높은 상위권 20개 지역들 중에서 서울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14개인 56%, 인천은 전체 9개 자치구 중에서 3개인 33%, 경기는 44개

시군구 중에서 3개인 6.8%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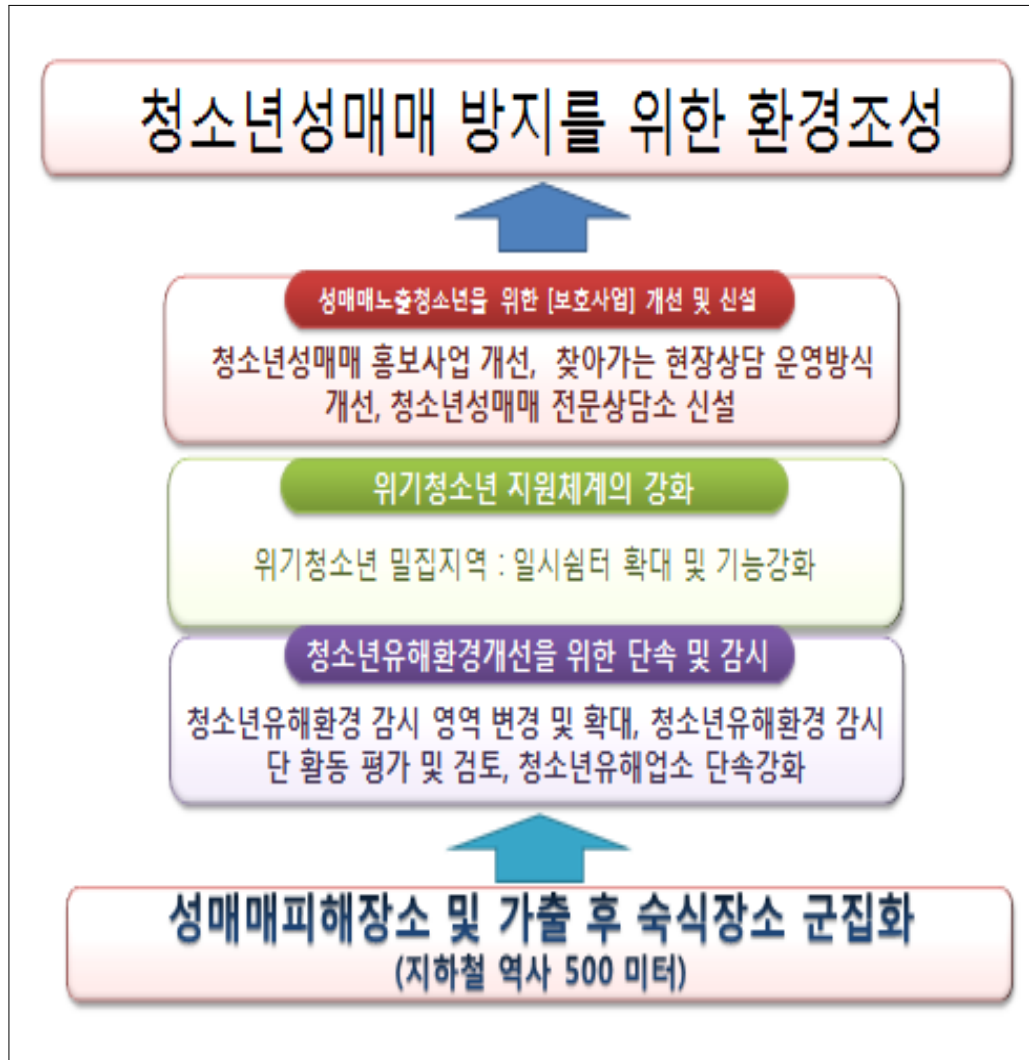
○ 따라서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정도가 경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울과 인천의 일부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청소년 성매매 발생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최소자승모형(OLS), 공간자기회귀모형, 공간오차모형 등으로 살펴보았음.

○ 최소자승모형이나 공간자기회귀모형, 공간오차모형 모두에서 숙박업소 수와 유흥 및 오락업소 수가 청소년 성매매 발생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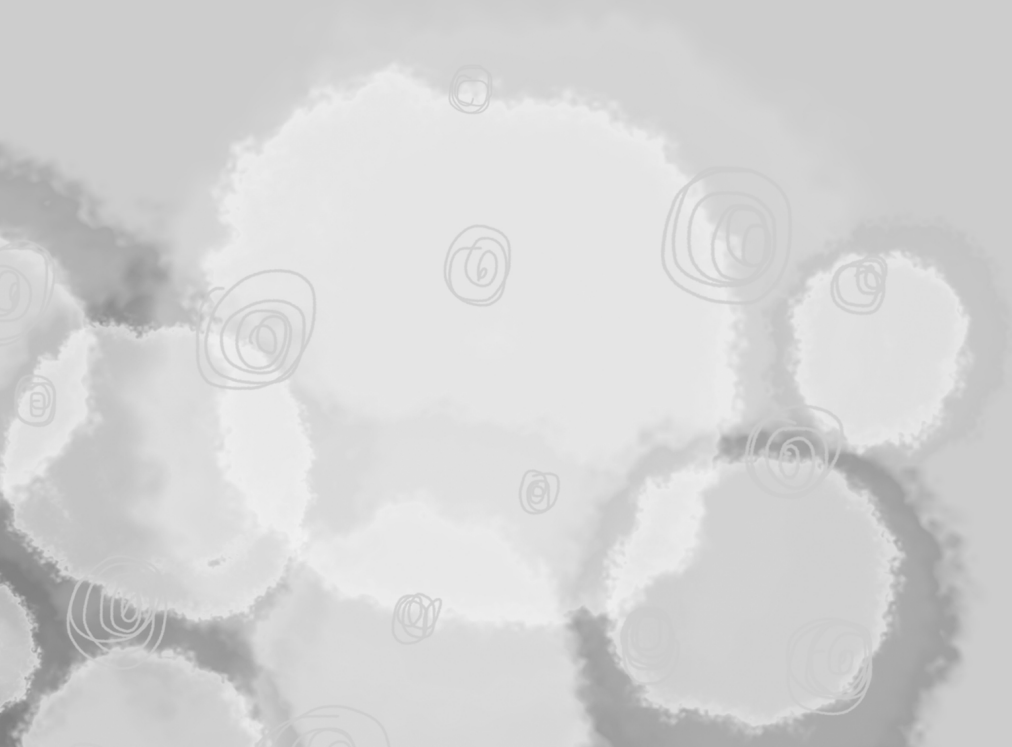
○ 다만, 청소년 성범죄관련 지원시설 수는 공간자기회귀모형과 공간오차모형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남.

7. 정책적 제언



제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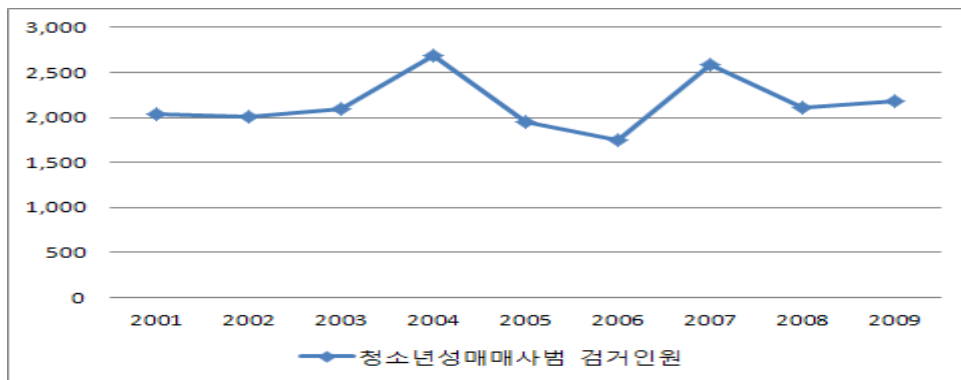
서 론



제 1장

서론

200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래 매년 약 2,000건 이상의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청소년성매매사범 검거인원현황(2001-2009)

경찰에서는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청소년성매매 단속을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성매매 사범은 위에서 입건되는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박은정, 2011). 최근에는 10대 소녀들을 고용해 퇴폐 유흥주점을 운영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하는 등 청소년성매매는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심각하다.

또한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 위탁사업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에 참여한 대상들의 주된 성매매 유입 원인은 2009년 58.0%, 2010년 46.1%, 2011년 39.6%로 ‘가출 후 생계비 마련’이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중앙점검단¹⁾에

1) 검사 1명, 검찰 수사관 1명, 사법경찰관 3명, 특별사법경찰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가출청소년 구호와 청소년성매매사범 단속을 해왔다. 현재는 여성가족부 차관 소속으로 가출, 성매매 등 위기청소년 긴급구호, 신·변종 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활동,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유도 및 평가,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상황 종합 점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 2008년도 한해 청소년성매매를 단속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단속 청소년 가운데 가출청소년이 80.8%로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도 청소년성매매와 가출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이주영, 2006; 김혜원, 2011; 정혜원, 2011a, 2011b)

가출청소년 접수현황에 의하면 2011년 가출청소년은 20,434명이나 실제 가출청소년의 정확한 통계는 그 특성상 산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가출청소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는지 추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변혜정(2012)은 가출청소년 가운데 25%가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정혜원(2011b)도 가출청소년 가운데 25.8%가 성매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보고하였다.

더욱이 인터넷 매체의 발달은 청소년들이 혹은 성인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발표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자와 대상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가 전체의 82%로 나타났다(정혜원, 2011a 재인용). 대다수의 국내 청소년성매매 연구에서도 청소년성매매의 유입경로로 인터넷을 지목하고 있다(성운숙, 2009; 홍봉선·남미애, 2009; 정혜원, 2011b). 이에 정부에서는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예방 및 직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청, 포털사와 함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를 구성하였으며, 인터넷 성매매 유인·알선 게시물의 삭제와 처벌, '인터넷 성매매 방지 시민 감시단'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징들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인터넷 환경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이에 청소년성매매를 현실 생활공간에서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혜원(2011a)연구에 의하면, 가출이 성매매로 유입하게 하는 출입구적 역할을 하며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청소년들은 일정한 공간적 패턴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소년성매매는 한국사회에 잘 숨겨진 성학대의 한 형태이며,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그 후유증은 매우 크다. 사후개입을 통해 청소년들을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청소년성매매는 한 번의 경험으로도 그 후유증이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진입하지 않도록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의 진입율이 높은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조기에방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가출청소년의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웠듯이, 가출청소년들이 가출 이후 가출쉼터 이외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만약, 가출청소년들이 어떤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지 혹은 어떤 분포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기에방에 힘쓸 수 있다.

최근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범죄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범죄발생 가능성이 많은 공간적 특성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공간적·지역적 특성이 범죄예방을 위한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면서 다양한 범죄예방 정책들이 소개되고 있다.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등 지리와 관련된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범죄다발지역의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 주택밀집지역 가운데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옥들을 개선하는 정책,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박형민 외, 2009).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경우에도 그들의 생활공간분포 및 공간이용형태, 성매매피해지역 분포 및 패턴, 지역적 변이 등과 같은 패턴을 알 수 있다면 도시환경을 관리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성매매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청소년성매매의 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성매매 발생이나 예방책에 대해서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공간적으로 청소년성매매 다발지역을 식별해 낸 지도는 청소년성매매와 관련된 경찰활동, 청소년성매매 예방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등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GIS 소프트웨어와 그와 관련된 도구를 이용하여, 가출 및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공간패턴을 지역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청소년의 분포를 확인할 것이다. 물론 지역

사회마다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청소년을 억제하고 예방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겠지만, 각 지역마다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 어떤 지역은 유흥업소가 밀집되고 빈곤율은 높고 청소년을 위한 안전시설은 낮을 수 있으며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적 조건은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청소년 발생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특징은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청소년 분포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구별로 조사된 공식통계인 ‘청소년성매매 검거건수’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가출이후 숙식 장소 및 노는 장소’, ‘성매매피해 장소’가 지역별로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가 확보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나 ‘유해환경’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란 한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폭력이나 기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성해 놓은 조직이나 인력을 의미하며,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구조적인 모든 요소로 상호작용하는 사물, 외부의 압력이나 상황, 조건, 행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비교육적인 환경을 의미한다(고수현, 2008).

셋째, 청소년성매매와 연관된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속성을 밝히고자 한다.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청소년들의 지역별 분포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성매매와 가출청소년들이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청소년성매매의 잠재적 원인이 같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그 현상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나 발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단위로 지역사회의 특성 예를 들면 지역별(구별) 빈곤율,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분포, 청소년유해시설,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들과 청소년성매매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에 군집성을 확인하고,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에 집중을 지하철 역사와 선로를 중심으로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넷째, 청소년성매매와 관련된 공식통계와 이 연구에서 설문조사한 수치를 종합하여 지역별(자치구) 청소년성매매 발생도를 제시한 후, 이러한 청소년성매매 발생도에 영향을 미치

는 각종 범죄유해환경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후, 청소년성매매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장

이론적 논의

제 1절 선행연구 검토

제 2절 지역사회와 청소년성매매



제 2장

이론적 논의

제 1절 선행연구 검토

범죄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차적인 범죄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의 발생원인은 그 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차적인 범죄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청소년성매매 또한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단일한 원인이 청소년성매매를 발생시킨다고 제안하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그 후유증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범죄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범죄발생 가능성이 많은 공간적 특성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범죄발생 가능성이 많은 공간적 특성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성매매와 공간과의 관계를 밝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사회해체와 깨진창문이론

1) 사회해체이론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의 사회생태학은 범죄발생의 지역적 차이 및 도시의 사회적 메커니즘과 범죄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시카고학파의 파크와 버제스(1925)는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는 시카고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환경적 특성과 시민들의 삶의 상황을 연계하여 사회해체현상과 도심지역 삶의 복지문제를 설명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쇼우와 맥케이(Shaw and McKay, 1931; 1942)는 사회해체이론을 제안하였다. 사회해체이론을 처음 소개한 쇼우와 맥케이(Shaw and McKay, 1931; 1942)는 1920년대 시카고 지역의 전이지대(transition zones)에서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왜 비행율이 일정하게 높은가?'에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비행율이 높은 지역에서 '가난하고(poverty), 인구의 이동이 잦고(residential instability), 인종적으로 이질적인(racial heterogeneity)'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결론을 중심으로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개념을 도출하였다.

사회해체지역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공적 부조를 받는 사람의 비율이 높고, 집세는 평균이하이며, 자가 소유비율도 낮고, 실업률은 높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었다. 둘째로 가구의 전입·전출 이동이 잦아서 주거불안정성이 높았다. 셋째로 유아사망, 결핵 환자, 정신병 등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지역이었다. 넷째로 여러 인종/민족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웃 간에 공통의 가치나 목표를 갖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쇼우와 맥케이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비행율의 차이가 개인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즉 가난, 주거불안정과 같은 구조적 특성이 지역사회를 해체시킴으로써 비행률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Kikuchi, 2010:5; 박성훈, 2011재인용). 시카고 이외의 지역에 대한 후속 연구(Shaw and McKay, 1969)에서도 지역사회의 해체적 특성과 비행율 간의 상관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논의가 더욱 지지되었으며, 지역이란 요소를 부가하여 이론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학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여겨졌으며(황선영, 2001), 범죄나 비행율의 지리적·생태적 분포차이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국내에서는 이현희(1994)가 사회해체이론과 일상활동이론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 행정동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주거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범죄발생요인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범죄유형별로 범죄발생에 관련된 지역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992년 한 해 동안의 동별 범죄발생건수를 대상으로 사회해체이론에 근거를 둔 변수인 생활보호대상자수, 평균교육수준, 자가소유비, 이혼율, 5년 이상 거주 가구수, 지난 1년간 유입구수와 일상활동이론에 근거를 둔 유흥업소수, 생활보호대상자수, 평균

교육수준, 자가소유비, 아파트거주비, 평균가구원수와 일인가구비 등을 활용하여 이들 변수와 범죄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유흥업소수, 유입인구수, 평균학력, 아파트비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최인섭·진수명(1999)은 범죄의 지역별 분포 변화에 따른 범죄현상과 사회발전의 공간적 차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1996년에 일어난 범죄와 전국 202개의 개별 시와 읍의 지역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저소득자비만이 전체범죄율(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형법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변인이었다.

2) 깨진창문이론

1982년 제임스 윌슨(James G. Wilson)과 조지켈링(George Kelling)은 깨진 창문(broken windows)이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지역이 쇠퇴하여 사회적·물리적인 두 개의 무질서²⁾가 모두 나타나게 되는 것은 중범죄를 불러들이며, 결국 무질서가 범죄로 변질된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내의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계속 방치되면 지역사회를 통제하는 비공식적 통제능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물리·사회적 무질서를 목격한 시민들은 지역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것이 범죄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스코간(skogan, 1986)은 미국의 6개 주요도시내의 40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1977년과 1983년 사이에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내의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와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 그리고 강도 피해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무질서는 강도발생률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물리적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혼란한 사회적 특성들이 변하지 않고 방치되면, 실제 범죄 행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찰을 중심으로 지역의 무질서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2) 여기서 물리적 무질서란 버린 진 차량과 낡은 건물, 쓰레기 등과 같이 물리적 징후를 의미하고 사회적 무질서란 취객이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는다든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며 배회한다든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정경석, 2010).

깨진창문이론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짐바도(zimbardo, 1969)는 변호관이 없고 유리창이 깨진 차를 뉴욕의 Bronx에, 그리고 온전한 차를 캘리포니아의 Palo Alto 에 세워 두었다. Bronx에 세워놓은 차는 방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파손된 반면에, Palo Alto 에 세워 놓은 차는 일주일 이상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이후 짐바도는 두 번째 실험으로 통제되지 않은 파괴행위가 Palo Alto 주민들의 태도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차량을 부수기 시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Palo Alto 지역주민들도 함께 차량을 부수고 손상시키기 시작했다. 짐바도는 이러한 실험으로 인간의 공격적 행동이나 범죄행위는 지역 사회의 무질서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동네의 무질서 정도와 질서의 정도는 사회통제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무질서한 동네에서는 사회통제가 되지 않고, 주민들은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 강화(소음, 기물파괴, 범죄, 싸움, 위협 등)를 계속해서 겪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지역사회의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예방과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Katz et al., 2001)

이처럼 깨진창문이론이 제기된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지역사회 몰락으로 지목되었다. 이 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물리적 무질서가 범죄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무질서는 부정적 거시환경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부정적 거시환경의 영향을 받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소득, 높은 실업, 낮은 교육수준의 특성을 지닌 지역에는 무질서의 정도가 높았다(skogan, 1990). 또한 국내연구에서는 주택유형 중 다세대주택의 비율과 주거혼합형 비율이 높은 지역에 절도, 폭력, 강도, 방화 등의 범죄 발생건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김동근 외, 2007). 이러한 주거유형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비해 방법기능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성식과 그의 동료들은(2012) 범죄두려움의 원인으로 지역무질서와 집합효율성을 제시하고 범죄두려움을 설명함에 있어 그 두요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인과관계가 어떤지, 두 요인은 상호작용효과를 갖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집합효율성이 지역 무질서에 영향을 주었고, 지역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의 최종적인 원인이라는 인과모델이 적합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두려움의 경우 집합효율성이론보다는 지역무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깨진창문이론을 더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사회해체와 깨진창문이론, 청소년성매매

위에서 지역사회와 청소년문제와의 관련성을 제기한 이론으로 지역의 빈곤 수준이나 이주율, 인종다양성 등의 특성이 범죄의 원인된다고 주장한 사회해체이론, 지역사회의 공동목표인 안전을 담보할 능력이 없는 곳에서 범죄가 쉽게 발생하게 된다는 집합효율성이론, 공공장소의 무질서가 범죄율과 높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 깨진창문이론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역사회이론들은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 주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론들이다. 특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를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에서 찾는 사회해체이론이나 무질서와 범죄의 관계를 가정한 깨진창문이론의 경우, 청소년성매매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최근 사회해체이론의 전통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회요인은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al proximity)’이나 ‘공간적 근접성(spatial proximity)’이다. 이러한 근접성의 개념을 청소년성매매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가정을 해 볼 수 있다(Morenoff, Sampson and Raudenbush, 2001; Sampson, 2006). 즉, 청소년성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와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간의 물리적 거리가 짧다면 청소년성매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성매매 발생 장소와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3요소가 함께 중첩될 수 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가 지역사회 내부의 유해공간 즉 유해환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해체이론의 전통은 지역사회내부의 유해환경과 청소년성매매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깨진창문이론에서는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범죄를 자극하는 요소라고 한다. 스코겐(Skorgn, 1990)은 무질서 개념을 이용하여 지역쇠퇴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무질서는 지역사회의 통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범죄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동근과 그의 동료(2007)들은 다세대주택의 비율 등을 이용하여 범죄발생을 설명하였다.

성매매노출 청소년들의 경우 지역사회의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아래, 지역사회의 낙후도가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인되는 환경적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환경범죄학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CPTED)

미국의 범죄예방연구소(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 NCPI)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을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려는 사전활동이며,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는 직접적인 통제”라고 정의하였다(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 1986). CPTED의 핵심은 환경이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범죄수준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란 범죄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환경은 단지 물리적인 환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 대한 인식, 사회과학, 법집행 그리고 공동체조직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Crowe, 2000). 이러한 CPTED는 범죄발생 이전의 활동으로서 범죄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이며, 범죄 발생상황과 그러한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에 기초한 모형이라고 협의로 개념규정한 제프리(Jeffery)의 개념에 기초한다(Lab, 1992). 실제로 CPTED는 미국의 범죄학자 제프리가 쓴 1971년 저서의 제목이었다. 제프리는 이 책에서 1964년부터 1968년 사이 미국 도시들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와 인종차별에 대해 연구하였다(Jeffery, 1971). 그 후 1972년 뉴만(Newman)이 ‘방어공간(defensible space)개념을 사용하면서 CPTED연구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CPTED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약자로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공간 환경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기회를 줄여 주민들의 범죄발생의 두려움을 감소하기 위해 고안된 범죄예방기법이다. CPTED는 학문분류상으로 물리적 환경에 대한 환경설계의 경우는 공학 분야라 할 수 있고, 사회적 환경의 설계는 사회학 분야라 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은 범죄학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가 예방되는 과정은 환경의 조작적 변경을 통해 인간행동을 강화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심리학분야이기도 하다. CPTED는 범죄학과 건축학 및 도시공학과 같은 공학, 심리학, 사회학 등이 접목되는 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셉테드를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지만,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으로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CPTED의 초기 연구는 1974년부터 1978년까지 미 연방 법률집행지원국(LEAA)와 주택개발국(HUD)이 방어공간 이론을 시험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부터이다. 그 후 웨스팅 전기회사(West Electronic Corporation)의 지원을 받아 범죄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도시 계획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많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를 시행하였다. CPTED는 물적 환경의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지원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주민들에 의한 지역사회 감시(nighborhood crime watch), 경찰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경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CPTED는 접근통제(access control), 감시(surveillance), 활동지원(activity support), 동기강화(motive reinforcement)의 범죄예방 원칙에 따른 환경설계를 제안하였다(Rosenbaum et al., 1998).

국내에서는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2개년 간 국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및 경찰, 자치단체 등 실무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CPTED 연구기반을 조성한 바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국내 범죄학 및 경찰행정학 연구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이 CPTED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근거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CPTED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국내 연구 상황을 고려하여 CPTED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사례를 소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실증적 연구의 경우에도 CPTED 전략과 기법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인지적 설문조사를 기초로 분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연구대상도 ‘일반주택’ 등 물리적 환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권오은과 이영웅(2001)은 지역의 물리적 특성중 하나인 건축 밀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행정동을 단위로 절도범죄와 폭력범죄의 1,000명당 발생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 건축 밀도가 높은 곳에서 두 범죄유형 모두 발생률이 높음을 밝혔다. 이영환과 김천권(2010)은 선진국의 CPTED 적용사례 후 약 30%이상의 범죄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였고, 전영환(2003)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시공간적인 범죄발생 양상을 분석하여 서비스 업체수가 많은 곳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함을 보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범죄대상요인인 주민세, 시장 수, 도소매업체 수와 범죄발생은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최선우(2012)는 공동주거 단지를 대상으로 상황적 공간적 차원에서 범죄발생 현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공간분석과 관련이 깊은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공간구문론(Space Syntax Theory), 그리고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론(Visual Access & Exposure Theory)에 근거하여 범죄발생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범죄의 군집화(群集化) 현상, 범죄와 토지이용 정도와의 상관관계성, 상대적이지만 범죄와 건물 높이의 비례관계성, 미약하지만 범죄와 녹지율과의 상관 관계성, 그리고 범죄와 파출소의 입지 및 순찰경로와의 강한 관계성 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공간분석 측정지표 가운데 통제도가 범죄 발생과 관련이 매우 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시각적 접근과 노출 이론에 의하면, 범죄자가 주변을 시각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들은 가능한 한 노출되지 않는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들의 경우 이처럼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소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임형백(2010)은 도시범죄를 도시·지역 계획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도시범죄의 발생요인으로 유대감의 약화, 익명성의 강화, 경제적 불평등의 강화, 범죄의 학습, 일탈지역의 탄생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도시범죄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로 인하여 형성된 외국인집단거주지(ethnic enclave)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도시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범죄 프로그램의 실시, 범죄 예방 디자인, 도시환경의 개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등을 제언하였다.

이처럼 범죄예방에서는 물리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요소 또한 중요하다. 새빌과 클

리브랜드(Saville and Cleveland, 1998)은 CPTED의 초기 이론가인 뉴만과 크로우의 ‘활동 지원전략’과 제이콥스(Jacobs)의 이웃공동체를 차용하여 지역사회의 물리적 요소 이외에 사회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의 규모, 밀도 거주지의 차별화(size of the district, density and differentiation of dwellings), 도시의 만남 공간(urban meeting places), 청년클럽(youth clubs), 거주자의 참여(residents’ participation), 거주자의 책임감(residents’ responsibility) 5가지 요소가 범죄예방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새빌과 클리브랜드의 범죄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5가지 요소들은 위기청소년의 공간 패턴 연구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2) 환경, 기회 그리고 의사결정

(1)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Theory)

합리적 선택이론은 고전학파가 주장한 내용을 현대적인 정서와 환경에 맞추어 변형한 것으로 클라크(Clarke)와 코나쉬(Cornish)에 의해서 정립되었으며, 훗날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제학의 가정을 토대로 하여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 하에 범죄행위는 행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며, 범죄자의 지속적인 범죄성향보다는 상황적 요인들, 처벌 및 통제라는 주변적 요인들과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위자의 합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범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이순래 외, 2012).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상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극소화하려 하는데, 이러한 동기요인이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가능한 행위 중 어떠한 특정행위를 선택하게 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인간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이해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행위를 선택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인간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모든 행동 대안이 범위를 설정하고 그 대안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한다. 둘째, 인간은 그러한 행동 대안들에 대해 순위를 매기고 각각에 가치를 부여한다. 셋째, 인간은 특정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긍정적인 결과인 이득과 부정적인 결과인 손실, 위협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때 그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대안들을 선택했

을 때에 발생할 결과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넷째, 이러한 합리적 계산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이해에 맞고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정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이순래 외, 2012).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자의 특성, 혹은 범죄성향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범죄행위가 어떻게 하여 발생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범죄이론 내지 범죄발생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합리적 선택이론은 왜 특정인은 범죄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왜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상황적 유인요인이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며 혹은 상황적 억제요인이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또한 이러한 상황적 요인과 더불어 그 상황에서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의 이득과 손실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범죄행위의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이득과 손실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는 개인의 지속적인 성향은 아니며 범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합리적 선택이론은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과 더불어 상황 혹은 기회요인을 중요시 다루고 있다(이순래 외, 2012). Pezzin(1995)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범죄성향을 가진 사람도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할 수 있고, 반대로 범죄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에 접할 경우 범죄행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가출과 청소년성매매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출이후 생계’때문이라고 한다. 합리적선택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성매매피해청소년들에게 ‘가출이후 생계’는 성매매로 진행되는 상황적 유인이 되는 것이다. 합리적선택이론의 상황적 요인에 대한 해석은 한국적 상황의 청소년성매매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상생활이론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는 코헨과 펠슨(Cohen and Felson, 1979)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이론은 지역이 지닌 상황적 환경과 범죄와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그들은 일상활동유형의 구조적 변화가 동기 부여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합당한 표적

(Suitable Target), 위법에 대한 유능한 보호성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라는 범죄의 직접접촉에 관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시간적 공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이들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범죄활동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를 자극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구조적 조건이 변화되거나 증가되지 않더라도 매력적이고 무방비상태인 범죄표적이 늘어나는 한 범죄율의 증가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실업률,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 등 구조적 조건이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성이나 범죄대상의 매력성이라는 측면에서, 잠재적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활동은 곧 범죄기회를 증대시킬 수도 있으며 반대로 범죄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

결국, 자신의 일상생활유형에 따라 범죄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범행기회의 제거나 축소라는 견지에서 범죄예방의 가능성과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범행대상물의 매력성이란 대체로 보석처럼 소형이나 고가의 물품, 고액의 현금 신용카드를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보호성의 부재는 주거관계상 가족의 부재, 가정 외적 활동의 과다 등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가출이라는 것 자체가 청소년성매매로 유인하는 매력성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다. 결국, 일상활동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대부분은 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외부활동시간이나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표적으로서 잠재적 피해자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험성은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보호나 방어수준을 높이면 위험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즉, 범죄자에게 주관적 물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사람과 물품은 이보다 가치가 적은 사람과 물품에 비해 범죄피해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코헨과 펠슨(1979)은 자신들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1947년~1947년까지 가족활동의 변화가 강도범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가족 활동을 기혼이고 남편이 있는 여성노동자의 수를 미국의 총 가구의 수로 나누어 연산화하여 시계열분석을 통해 가족 활동 비율과 각각의 공식적인 범죄율과의 변화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코헨과 펠슨은 그들의 일상생활이론이 정확하며,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투입되는 수가 늘어날수록 강도 비율도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들의 가정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침입해 들어갈 기회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연구결과는 유능한 관리자의 부재가 범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도록 자극하여 범죄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김영재, 2007). Roncek와 Maier(1991)은 일상활동이론을 토대로 특정시설과 범죄발생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하였다. 술집 등의 유흥시설이 주거지역에서의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도시지역에 위치한 특정한 개수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상활동이론은 공간계획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공간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적 환경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이론은 범죄발생을 가능케 하는 ‘기회’가 특정 시점, 특정 장소에서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만약 청소년성매매가 특정장소에서 형성된다면, 청소년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기회가 되는 공간적 요인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청소년성매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3) 생활양식이론(Lifestyle-Exposure Theories)

생활양식이론은 처음에 사회계층별 폭력범죄 피해 위험성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점차로 재산범죄까지도 확대되었고 더 나아가 보다 정교한 표적선택과정이론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이론의 기본적 가설은 범죄피해의 가능성에 있어서 인구학적 차이는 피해자의 개인적 생활양식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 생활환경에 따라 범죄피해의 위험이 높은 상황, 지역, 시간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 부담 또한 다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양식의 차이가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개인의 직업적 활동과 여가활동을 포함하는 일상적 활동의 생활양식이 그 사람의 범죄피해 위험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생활양식의 차이는 다양한 역할 기대와 구조적 제약에 대한 개인의 집합적 반응 또는 적응에 의해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나이나 성별 등 인구학상의 개인적 신분특성은 곧

개인의 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대와 그 사람의 행동선택을 제한하거나 가능케 하는 구조적 장애를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문화적 또는 구조적 기대에 대한 순응은 직업적 또는 여가활동상의 생활양식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양식에 따라 그 사람의 위험성의 노출 정도가 결정되며 생활양식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유발시켜서 그에 따른 위험성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따르면, 젊은 사람, 남자, 미혼자,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층 등은 노년층, 여자, 기혼자, 고소득층, 그리고 고학력층보다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고,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과 하는 일이 많으며, 범죄자특성의 소유자와 빈번한 접촉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많지 않지만, 몇몇 연구결과는 성별과 연령 등 피해위험성에 있어서 인구학적 차이가 개인의 일상 활동과 생활양식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활양식이론은 위에서 기술한 일상활동이론과 유사점이 많다. 두 이론은 공히 관습적 사회에 있어서 일상 활동이나 생활양식의 유형이 범죄를 위한 기회구조를 어떻게 제공하는가를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해자 중심의 전통적 범죄학에서 범죄의 사회생리나 개인적 범죄피해를 이해하기 위해 강조되던 범죄자의 동기, 그리고 기타 범죄성향 관점들의 중요성은 이 두 이론에서 아주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두 이론은 매일의 일상 생활유형에 따라 범죄기회가 달라진다고 보는 확장된 의미의 “범죄기회” 이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구조적 선택모형(Structural-Choice Model)

구조적-선택모형은 범죄기회구조와 표적선택을 통합한 이론모형으로서, 마이어와 마이어(Miethe and Meier, 1990)가 위에서 언급된 일상활동이론과 생활양식이론을 통합한 것이다. 범죄피해는 다음과 같은 상황 하에 발생하게 된다. 즉 동기 부여된 잠재적 가해자와의 물리적 거리, 즉 근접성(Physical Proximity to Motivated Offender)이 줄어들 때, 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Exposure to High-Risk Environment)될 때, 범죄표적이나 대상이 표적으로서의 매력성(Target Attractiveness)을 가질 때, 그리고 보호성이 결여

(Absence of Guardianship)이다. 그리고 이 요인들은 범죄의 필요조건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위의 4가지 범죄의 조건이 사실은 범행의 기회와 대상의 선택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상활동이론과 생활양식이론이 잠재적 범죄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증대시킨다는 면에서 범죄기회구조의 생성에 기여하였으며, 개인이나 물품의 주관적 가치와 보호성의 정도는 곧 특정 범행대상의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두이론 - 일상활동유형과 생활양식이론 - 을 통합하면, 일상활동유형이 그 사람이나 그의 재물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한 범죄피해의 선택은 선택대상의 기대되는 유용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근접성과 노출은 그 사람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유형화하며, 더 큰 위험성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이 둘을 범죄기회의 구조적 특징으로 고려할 수 있고, 반면에 매력성과 보호성은 특정한 범죄대상의 선택을 대변하기 때문에 선택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이론을 통합하여 구조적-선택의 관점에서 범죄피해를 봄으로써, 우선 일상활동이론에 의해 범죄기회구조에 기여하는 거시적 영향과 생활양식-노출에 의한 특정범죄 대상의 선택을 결정하는 미시적 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5)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

범죄의 패턴 이론의 개발은 환경범죄학의 영역 안에서 메타이론(meta-theory)의 개발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범죄패턴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과 일상생활이론 그리고 범죄의 기하학적 이론(geometric theory of crime)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론들 간의 공동적인 요소들과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가진 이론이다(Andresen et al., 2010). 또한 범죄패턴이론은 범죄사건의 이해도 중요할 뿐 아니라 환경적 범죄학의 분야의 인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Andresen et al., 2010).

브렌팅햄과 브렌팅햄(Brantingham and Brantingham, 1993)은 범죄와 범죄행동은 어디서 언제 발생하는가의 측면에서 볼 때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형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한다. 범죄패턴은 사람들이 특정 범죄사건, 현장, 행위 배경, 가능한 범죄의 틀

(template), 유발사건 그리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준비나 자발의지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들에 같은 요소에 근거한다.

범죄패턴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개념(fundamental concepts)은 범죄틀(crime template)이다. 브렌팅햄과 브랜팅햄(Brantingham and Brantingham, 1978)의 개발된 범죄틀은 범죄 장소 선택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며, 여기서 범죄틀이란 개인의 일정한 행동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일반인들이 윤곽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범죄틀은 특정장소, 시간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날 지를 말해준다.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에 대해 배우고 이러한 틀을 구성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범죄발생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다.

개인들의 일상적인 활동은 그 개인들을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세트에 노출시킨다. 공간적 용어로 말하면, 사람들은 지역을 움직이면서 환경에 대한 심적인 이미지 혹은 인지적 지도(cognitive maps)를 그린다. 인지적 지도는 어떤 환경이나 이미지에 대한 개인의 심적인 이미지를 말한다(Smith and Patterson, 1980). 스미스와 패턴슨은 어떤 지역에 대한 심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인식, 예측, 평가, 행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인지적 지도를 만드는 통찰력은 다양한 지역에 대한 사려 깊고, 계획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지도를 만드는 방법은 평소에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얻는 것이다.

현대의 도시지역사회의 성장과 환경은 보다 크고 보다 복잡한 인지적 지도를 만든데 큰 공헌을 한다. 현대 도시와 도시지역은 보다 작고, 전문화된 토지이용지역의 집적으로 보는데, 이러한 지역들은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가능성은 시민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곳에서 살고, 일하고,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것을 가능케 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을 움직이고, 이 지역들은 활동의 축(node)으로 여겨질 수 있다(Brantingham and Brantingham, 1996). 축들 간의 이동루트는 통로(paths)라고 한다. 개인이 각각의 축을 이용하는 정도와 축들 간에 이용되는 다양한 통로의 변경은 그 지역의 축, 통로, 지역의 주위환경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인지적 지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역이 축이나 통로로부터 멀수록, 그 지역에 대해 잘 모르며, 범죄적 또는

합법적인 행동의 기회는 줄어든다. 잠재적 범죄자는 그들에게 익숙한 축과 통로를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다. 축과 통로 외에, 지역의 가장자리(edges)는 일탈행동의 제일지점이다. 가장자리는 물리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수 있다(Brantingham, 2010). 물리적 가장자리는 잠재적 범죄자와 피해자의 이동을 제한하며,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가장자리는 이러한 장소에 있는 낯선 사람들 사이의 자율성으로 인한 잠재적 범죄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은 부족한 보호와 더불어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결합시키는 것을 증가시키도록 다양한 이용자들이 항상 모인다(Brantingham, 2010). 가장자리의 양쪽 면으로부터 보다 증가하는 다양한 사람과 활동은 범행을 보다 용이하게 만든다. 축은 인지적 지도를 개발하는데 뼈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 다른 방식으로도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몇몇 축은 그 지역의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 할 수도 있고, 범죄유인물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약물시장, 성인클럽과 바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자는 잠재적 피해자가 어떤 지역에 모이고, 거기에는 감시인이 없음을 알고, 결국 범죄자가 그 장소로 피해자를 따라 갈 것이다.

3) 환경범죄학의 의의와 청소년성매매

위에서 논의된 환경범죄학들은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해로부터 환경에 대한 이해로 사고의 영역을 넓혔다. 범죄를 개인의 행동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범죄의 발생을 조장하는 환경이나 피해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상황에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청소년은 집으로부터 가출하여 거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생활 환경 자체는 피해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성매매의 원인을 단일한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살펴본다는 지점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환경범죄학의 특징들은 청소년성매매의 원인을 환경적인 영역까지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범죄학의 특징은 첫째, 범죄를 환경의 산물로 본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자의 특성 혹은 범죄성향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기 보다는 상황적 유인요인이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통제 및 처벌이라는 손실이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를 억제한다고 한

다. 셋째, 범죄자 중심의 예방으로부터 피해자 중심의 예방으로의 전환을 통해 범죄예방에 있어 피해자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영역성이나, 감시기회를 통한 범죄 억제, 그리고 대상강화와 같은 비공식적인 사전통제를 중시한다. 형벌의 집행에 의한 사후통제는 비공식적인 사전통제의 보완책으로 보고 있다(임창주, 2006:30-31).

이러한 환경범죄학은 기존의 범죄학과는 달리 범죄를 범죄자의 행위로 보지 않고, 환경의 산물로 인식했으며, 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유발요인을 제거해 나가고자 비공식적인 통제의 부활을 이끌어 내었고, 이러한 사회내의 비공식적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설계라는 수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정경석, 2010). 이 연구에서는 환경범죄학의 의의, 즉 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성매매 유발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청소년성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성매매노출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 2절 지역사회와 청소년성매매

1. 청소년성매매

1) 청소년성매매의 개념과 연구흐름

청소년성매매에서는 청소년성매매의 개념적 정의를 하기 전에 청소년의 기준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남녀)로서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한다”고(제2조 제1호)하여,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연령은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까지를 부모의 동의 없이는 근로가 불가능한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일반적인 중고등학생의 연령을 청소년기로 규정하기도 하며, 사춘기 시절을 청소년기로 보는 이들도 있다(조한혜정, 2000; 윤선미, 2011 재인용). 이러한 정의 방식은 청소년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인구층인가 하는 범주화와 사회문화적 혹은 정치적 맥락과의 관계를 보지 않고, 그들을 9~24세 혹은 13~18세라고 단순히 연령을 중심으로 기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개인적 행위자로서의 주체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회복력이 있고 자신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서 만 19세미만의 자로 정의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청소년성매매의 개념적 정의를 시도할 것이다.

우선 청소년성매매의 개념과 관련하여 국내외 학자들이 견해를 살펴보면, 조성연과 그의 동료들은(2000)은 청소년성매매를 미성년자가 성인과 교제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종의 사적인 성매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민희와 그의 동료들은(2000)은 청소년이 자의로 인터넷 채팅이나 휴대폰과 같은 통신수단을 통해 은밀히 접촉하여 선택한 성인에게 자신의性を 숙박업소 등에서 일회성으로 제공하고, 성인은 이에 서로 합의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편의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의性を 구입하여 성교 또는 유사성교를 하는 것을 성매매행위라고 정의하였다.

2011년 9월 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4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성매매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처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뿐 학자들 간의 견해는 유사하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남성과 여자청소년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남자청소년과 여자 성인, 드물게는 남자청소년과 남자성인 사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성매매의 개념은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사용될 필요가 있다(유지웅, 2012).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성매매의 법률적 개념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국내에서 청소년성매매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볼 수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된 후 ‘청소년성매매’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 실태와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시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주로 십대여성에 중심으로 두고 연구되고 있다. 첫 번째 시각은 여성주의적 관점이다(김현미, 1997; 이효희, 1998; 조한혜정, 2000; 민가영, 2000; 김은실, 2001; 김연주, 2003; 변혜정, 2006; 이주영, 2006; 민가영, 2009). 여성주의 시각의 연구들은 ‘문제’ 혹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청소년을 주체성 측면에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가출이나 성매매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파악해야 할 문제임을 제기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성별 위계구조와 계급의 문제 및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문화, 제도, 법 체계를 우선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놓인 사회구조와 이들의 문화 안에서 청소년성매매를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정혜원, 2011a).

두 번째로는 발달단계로서 청소년시기에 겪게 되는 성적 착취와 그 피해를 중심에 놓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담론’을 만들어내게 된다.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이 성적착취나 학대, 노동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와 여성복지의 대상이자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로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김성경, 1998; 남미애, 1999; 노혁, 2000; 변혜정 외, 2012 재인용).

마지막 관점은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을 공식적으로 피해자라고 간주하는 것과 무관하게 청소년성매매를 ‘비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각이다(박동균, 2001; 박성수, 2001; 성용은·조현빈, 2010). 이러한 연구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경재(2001), 안경옥(2002)의 연구처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현황과 법제도를 고찰함으로써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문무(2005), 성용은과 조현빈(2010)처럼 청소년성매매를 비행으로 규정하고 성매매에 대한 원인, 실태분석, 방지대책에 대해 고찰하고 제시하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에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성매매를 비행으로 고려할 경우,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을 가해자로 포함할 우려가 있음을 Mitchell과 그의 동료(2010)들은 문제제기했다.

또한 서구사회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범죄정의 시스템은 성매매를 큰 틀에서 청소년기 가출과 관련된 비행의 한 부분으로 성매매를 보고 있었다(Flowers, 2001; Gray, 2005; Kreston, 2005; Mitchell et al., 2010재인용). 그러나 최근 들어 가출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다. 성매매와 관련된 청소년 문제에서 점차 ‘상업적인 성착취’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성적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Mitchell et al., 2010). 미국 정부는 청소년 사법제도를 통해 한때 비행, 범법자 관점으로 청소년 문제 정책을 실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상업적 성적 의도에 의해 ‘피해 입은 청소년 관점’으로 청소년성매매를 다루고 있다(Ashley, 2008;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05; Friedman, 2007) 영국 또한 청소년성매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경미하게 취급했던 데서 탈피하여, 청소년성매매를 학대 및 성착취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2003년 성범죄법

(The Sexual Offences Act 2003)을 통해 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아동학대임을 명기하였다. 여자청소년 뿐만 아니라 남자청소년들에게도 성매매와 관련된 위험과 안전 그리고 평등관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혜원, 2011a 재인용).

2) 가출과 청소년성매매³⁾

청소년성매매의 주된 원인으로 가출이 지적되면서, 청소년의 가출과 성매매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이주영, 2006; 김혜원, 2011; 정혜원, 2011a; 변혜정 외, 2012). 이처럼 청소년의 가출은 성매매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Greene & Ennett, 1999; Siegel & Senna, 2000; Nadon et al, 1998; 박정은 외, 1993; 김중휘; 2001; 윤선미, 2011).

Boyer와 James(1982)는 가출 청소년이나 집 없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장기간의 갈등들이 발생되면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어 가정에서 탈출하게 되고 이들 중 일부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은 성관계에 애착을 갖기보다는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Schissel & Fedec, 1999 재인용; Walls and Bell, 2010). 또한 장기간 길거리에서 살아 온 청소년들 중 약 75% 정도는 일정한 범죄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 중 50%는 성매매나 생존을 위한 섹스를 한다고 한다(Kipke, O'Conner, Palmer & MacKenzie, 1995; Kipke, Plamer, LaFrance & O'Conner, 1997). Estes and Weiner(2001)는 청소년성매매에 대해 사회적으로 무관심한 이유를 성매매를 하게 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대부분 '버려진' 아동들이거나 가난하거나 미성년자, 가출 청소년, 또는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Williams(2010)은 경로연구를 통해 미국 내에서 성매매 청소년들 중 성폭력을 경험했거나 비슷한 피해위험에 노출된 14-19세 사이 61명의 가출

3) 이 부분은 정혜원(2011a)의 연구 가운데 일부를 재인용하였다.

경험 청소년들(남자 15명, 여자 44명, 트랜스젠더 2명)을 연구하였다. 그는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견디기와 생존이 주요 테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매우 어린 나이에 배고픔과 가난을 겪어가며 인생과 타협하고 거리에서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많은 성매매 청소년에게는 폭력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해한 가족과 가족사가 있었다고 한다. Greene과 Ennett(1999)은 가출을 했거나 집 없는(homeless) 청소년과 성매매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 전국 청소년 쉼터에 살고 있는 청소년과 길거리 청소년(street youth)을 면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길거리 청소년(약 28%)들이 쉼터 청소년(약 10%)보다 더 많이 생존형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는 생존형 성매매가 집 없이 지내는 기간과 가출 청소년이 처해 있는 환경과 관련되는 경제적 생존 전략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Nadon 등(1998)은 여자청소년이 성매매에 개입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사회 거주 시설(residential treatment center, detention facilities)에 살고 있거나 기관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중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45명)과 성매매 경험이 없는 청소년(37명)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매매 청소년 집단의 경우 어린 시절 가정에서 성적, 신체적 학대 경험이 많으며 부모가 알코올중독인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대인 폭력 경험, 낮은 자존감, 알코올 및 약물 남용이 높았다. 그러나 비교 집단과의 비교에서는 가출이나 약물사용에서만 비교 집단보다 높았을 뿐 신체적 학대는 비교 집단이 더 높았으며 성적 학대에 있어서는 비교 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성매매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는 매우 상이한 결과였는데 그것은 비교 집단의 구성이 일반 청소년 집단이 아니라 비행이나 가출 등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시설에 거주하거나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가출이 성매매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며 특히 청소년성매매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격 변수보다는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불충분한 상황이 더 중요하므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합법적 수단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매매 청소년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종휘(2001)의 연구에서는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51.3%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청소년 상담원의 조사에서도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48.6%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25.2%의 청소년이 청소년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윤선미(2011)는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이 가진 관계망이 불안정하고 자원이 열악하여, 가출이 장기화될수록 청소년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운 가출생활 과정에서 여자청소년들은 ‘어린 여성’이라는 위치로 인해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지역사회와 청소년성매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성매매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은 매우 다양하였다. 이 절에서는 청소년성매매와 관련된 지역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위에서 살펴본 이론들을 중심으로 추출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

일상생활이론에서는 ‘범죄를 막아줄 유능한 감시자’가 있다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만약 청소년성매매 및 기타 폭력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기관들이 청소년들 주변에 많이 제공된다면, 이러한 기관들이 감시자로서 작용하여 청소년성매매 및 기타 폭력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폭력과 같은 위험에 당면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기관과 청소년성매매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폭력과 같은 위험에 당면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기관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 지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각종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기관

대상기관	현황(대상)	주요내용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CYS-Net)	전국 170개	위기 청소년들의 심리적, 경제적, 학업적, 대인 관계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위기청소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Wee센터	Wee클래스(2,045개) Wee센터(124개) Wee스쿨(3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종의 통합지원 서비스망
청소년 쉼터	일시쉼터(10개) 단기쉼터(49개) 장기쉼터(26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시적인 생활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가정·사회복귀, 중장기적인 자립지원
청소년 성문화 센터	전국41개 (유아·초·중·고생 부모 등 전 국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상자료 및 신생아 모형 등 다양한 교구와 시청각 자료를 갖춘 상설 성교육 체험관에서 아동·청소년이 전문 강사와 함께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을 돕고 성범죄 피해로부터 사전예방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전국14개 (청소년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도모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전국16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학교폭력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을 한 속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201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등 재구성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이하 CYS-Net)는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연계해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청소년지원 네트워크」를 의미한다(청소년백서, 2006:261). CYS-Net에서는 상담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문제 및 욕구를 사정한 뒤 해결 및 완화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는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청소년의 지원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희창, 2008).

CYS-Net은 16개 시·도 170개 시·군·구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 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발견과 보호에 필수적 구성기관인 학교·교육청·노동관서, 국

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CYS-Net은 이러한 지역사회연계망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보호하며 상담, 정서적지지, 경제적 지원, 의료·법률·자립지원, 시설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사회안전망 및 보호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

2011년부터는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의 발굴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장기결석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를 학교 및 교육청에서 CYS-Net으로 연계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국 248개소로 확대하여 시군구별 1개소씩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CYS-Net에 대한 청소년 이용수도 2006년에 2만 명에서 2010년에는 12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에 비해 운영인력부족, 연계기관 협조 부족, 센터별 상담대기 기간이 길어짐, 적극적인 위기사례 발굴 어려움, 지속적 사례관리의 어려움이 당면한 문제이다(윤덕경 외, 2011).

[그림 2] CYS-Net 운영조직



[그림 3] CYS-Net 사례지원과정



(2) Wee 프로젝트

학생위기상담종합지원서비스 Wee 프로젝트는 위기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료의 one-stop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부적응 학생 해소 및 인적자원의 유실 방지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추진되었다(박희동, 2012;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의 발전 방안 기획기사).

여기서 Wee란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al(감성)’의 합성어이고, 3차의 안전망으로 구축되어 있다. 1차 안전망은 단위학교의 Wee클래스, 2차 안전망은 지역교육청의 Wee센터, 3차 안전망은 시·도교육청의 Wee스쿨(기숙형 장기교육 센터)이다. Wee는 이러한 3차에 걸친 다중안전망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습부진 치유, 위기학생 선

도, 진로개발, 잠재력 발현으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공공기관, 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의 전문기관의 연계서비스망을 구축하려고 하며, 이러한 서비스 네트워크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Wee 서비스 네트워크



2008년 각각 530개, 31개소에 불과하였던 Wee클래스와 Wee 센터는 2012년 현재,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136개의 Wee 센터가 구축되었고, Wee 클래스는 전국 11,627개의 학교('11년 기준) 중 4,497개교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박희동(2012)에 의하면 2008년 사업 시작 이후 Wee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반면, Wee 클래스와 Wee 센터의 업무가 그 인원과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의 Wee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반성에 더하여 앞으로 지속될 Wee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3) 청소년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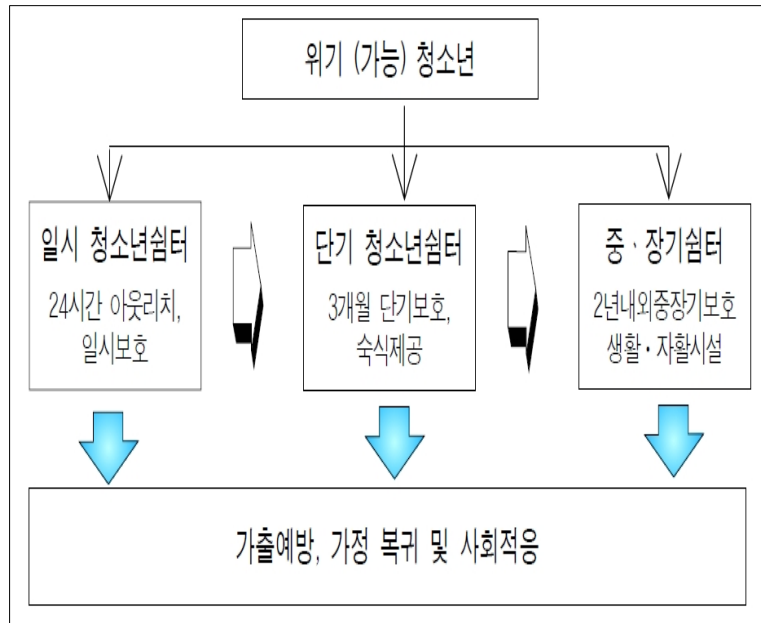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가 처음 설치된 것은 1992년 서울YMCA청소년쉼터가 개소된 이래 1996년부터 광역시 중심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쉼터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①가출청소년의(대상) ②일시적인(보호기간) ③생활지원과 보호(서비스) ④가정·사회로의 복귀(단기목표) ⑤중장기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중장기목표) ⑥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시설 유형)을 의미한다.

청소년쉼터는 시설특성에 따라 일시쉼터(고정형, 이동형),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되고 유형별로 사업목적과 내용이 다르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청소년가출예방을 위한 아웃리치(상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협력강화,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선도·보호 서비스 확충의 역할을 한다. 일시쉼터는 일시보호 및 거리아웃리치 상담활동을 통해 가출예방, 조기발견 및 초기개입을 하며, 단기쉼터는 상담·치료·예방 등 사례관리를 통해 가정 및 사회복귀 지원 또는 여타 기관으로 연계한다. 중장기쉼터는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2년 내외의 기간 동안 보호하며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청소년 쉼터의 운영 유형별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일시쉼터는 보호시설이라기보다는 이용시설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서 가출청소년은 물론 일반청소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거리청소년이 밀집하여 있는 현장에서 샤워, 세탁, 먹거리 등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를 24시간 이내의 시간동안 제공하며 숙박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보호를 원하는 청소년은 단기쉼터 등으로 연계해 준다(이종도, 2010). 이러한 일시쉼터는 고정형 일시쉼터 8개소와 이동형 일시쉼터⁴⁾ 2개소 총 10개의 일시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4) 이동쉼터는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밀집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거리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쉼터이며, 가출을 고민하거나 가출 중인 청소년에게 상담, 위기개입,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립청소년이동쉼터의 경우에는 화요일에는 연신내역, 수요일에는 천호동 로데오거리, 목요일에는 원효대교 아래, 금요일에는 신림역에 위치하고 있다(<http://www.nuryworld.kr/> 2012.10.22. 검색).

[그림 5] 청소년쉼터 유형별 기능과 체계



둘째로 단기쉼터는 주거생활 보호가 주 기능으로 주로 단순 가출의 형태를 띤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여 3개월 이내의 보호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장기쉼터와의 체계화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기쉼터는 대부분 주요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단기간 동안 의 식주 및 의료지원 등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복귀 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이종도, 2010).

셋째로 중장기쉼터는 가정이 없거나 집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가출청소년에게 6개월 이상 최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중장기 쉼터는 주택가에 위치하여 청소년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복귀와 자립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도와준다. 입소정원 7-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연령과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보호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이종도, 2010).

(4)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기존의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성교육을 탈피하고 모든 아동·청소년들에게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이고 체험중심적인 성교육을 제공하고자 여성가족부가 2006년에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윤덕경 외, 2011).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1년 고정형 41개소, 이동형 1개소가 운영 중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참여형학습이 가능한 고정형 및 이동형 청소년문화교육관을 설치, 지역 내 성교육 인력풀 구축 및 관리, 성인지적 인권 통합교육 운영,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5) 청소년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청소년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2004년 9월에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 제2항에 근거한 청소년지원시설로서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곳이다. 여기서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청소년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는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예의 동행 등 법률지원, 자립자활교육, 기술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입소기간은 1년이지만 입소인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해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자가 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이하 one-stop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2005년 8월 31일 경찰병원 내 one-stop지원센터가 최초로 개소된 이래 2010년 7월 현재 18개소가 설치되었다. one-stop지원센터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

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여성경찰관 24시간 근무 및 응급의료진 대기로 야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때 진료비용은 국가부담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one-stop의 사업목적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one-stop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여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보면 센터 전담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고, 응급의학과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며, 첨단 산부인과 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영상진료 및 증거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후유증 극복을 위한 정신과적 진료와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수사지원으로 진술녹화 및 상담 전문 여성경찰관의 24시간 근무, 피해자 조사와 동시에 112, 117 및 각 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와 연계하여 신속한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사건 직후 증거수집이 조기에 이루어져 가해자를 조기 검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학교, 여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 무료법률지원단이 구성되어 있고, 요일별로 센터에서 순환근무하며 민형사소송절차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강은영 외., 2011).

2) 청소년 유해환경 : 청소년을 위기로 유인하는 도시의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과제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김준호·박정선, 1995; 주희중, 1998; 박정선, 2002;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주희중(1998)은 유해환경이 청소년의 건전성장의 저해, 피해 및 비행화 세 가지 측면에 유해하다고 하였다. 박정선(2002)은 유해환경의 존재가 비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탈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행친구들과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해환경의 해악을 이야기하였다. CPTED의 측면에서도 영역성이나 감시가 쇠퇴한 지역에서는 잠재적 범죄자들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유해환경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통제능력이 상실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범죄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위의 연구들을 고려할 때 청소년유해환경은 거리청소년에게는 성매매피해를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환경범죄학적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은 상황적인 요인과 깊이 관계가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이 밀집된 지역이야말로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범죄대상, 범죄를 막아줄 유능한 감시자의 부재라는 3요소가 중첩되는 지역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로 유인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한 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구조적인 모든 요소로 상호작용하는 사물, 외부의 압력이나 상황, 조건, 행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비교육적인 환경을 의미한다(고수현, 2008).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그 행위 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아직 인성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유통시키거나 행하는 경우 법적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유해개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여 그 자체가 유해한 것과 매체에 따라 유해해지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예컨대 성인용품점은 그 자체가 유해한 것이지만, 심야음식점 오락장 등은 그 자체가 유해하다기 보다는 이러한 장소가 비행으로의 접근을 조장·촉진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유해하다고 볼 수 있다(김혜경, 2009). 이처럼 환경을 고려한 유해성은 연속적이면서 과정적 개념이며,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상대적 개념들을 고려하여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업소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정의하고 살펴볼 것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지역의 낙후성도 청소년 유해환경의 한 요소로 살펴볼 것이다.

일탈장소이론(deviant place theory)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나 생활양식과는 무관하게 잠재적 범죄자와 접촉하게 될 위험성이 많으며,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깨진창문이론에서는 지역의 비문화성(Incivility)과 범죄피해경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 비문화성이란 지역사회의 무질서나 쇠퇴를 유발하는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을 지칭한다. 비문화성의 물리적 징후로는 건물의 퇴락한 외형, 쓰레기, 낙서 등을 들 수 있고, 사회적 징후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청소년들의 집단 배회 등이 있다(이순래 외, 2010).

다시 말해, 깨진창문이론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비문화성 징후들을 접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응집력이 적어지고, 무관심하게 되어 범죄피해나 범죄발생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비문화성 징후는 지역의 낙후성과 관련이 있고, 지역의 낙후성은 가출한 청소년들이 밀집할 수 있는 근거를 구성하고, 성매매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위협으로부터 유인하는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을 유해업소와 지역의 낙후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환경 중에서 대표적인 유해업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 유해업소는 객관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도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업소나 청소년들에게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래 비행집단과의 관계를 매개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일컫는다(민인철·박병훈, 2010).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인철·박병훈, 2010).

[표 2]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⁵⁾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 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판매하는 영업형태 - 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5)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 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며, 지방자치단

5) 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문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함

체가 구역을 지정해 청소년에게 통행을 금지하게 된다(24시간 엄격하게 적용되는 구역). 기존의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은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다(민인철·박병훈, 2010).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 유통행위가 빈번하게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해 일정 시간동안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청소년통행금지지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이행명령으로 강제가 가능하다. 한편, 이들 통행제한구역과 금지구역은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는 청소년이 통행할 수 있다(민인철·박병훈, 2010).

학교보건법 제5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이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된다.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시설 및 행위는 ①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② 총포화약류의 제조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 및 저장소 ③ 영화상영관(대학 이상은 제외), 제한 상영관 ④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수집장소, 폐기물처리시설, 폐기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⑤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가죽시장 ⑥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⑦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유치원과 대학교는 제외),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⑧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노래연습

장 ⑨ 만화가게,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무도장, 특수 목욕장 중 증기탕 ⑩ 청소년정책 부처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민인철·박병훈, 2010). 위에서 논의 했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기초한 유해업소와 청소년통행금지지역 및 제한지역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주점업, 숙박업, 오락장업, 마사지업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표 3] 청소년유해업소의 내용과 예시

	업종	내용 및 예시
1	주점업	주점업에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이 포함된다. 일반유흥주점업이란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을 의미하며, 예로는 룸싸롱, 요정 등이 있다. 무도유흥주점업은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업을 말하며, 카바레, 나이트클럽이 그 예이다. 기타주점업은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을 의미하며, 예로는 소주방, 호프집 등이 있다.
2	숙박업	숙박업은 여관업을 근거로 한다.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여관(모텔포함), 여인숙이 있다.
3	오락장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에는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노래방연습장 운영업 등이 포함된다. 컴퓨터게임방 운영업은 인터넷 또는 시디롬 등에 의한 컴퓨터 게임을 주로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그 예로는 인터넷게임방, PC게임방 등이 있다. 노래방연습장 운영업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한다.
4	마사지업	일반대중에게 안마, 마사지 등으로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2012, 통계청)재분류

(2) 지역사회 낙후성

이 연구에서는 가출 및 성매매노출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적 속성 가운데 하나로 지역사회 낙후성⁶⁾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해체론의 전통에 있는 학자들은 낮은 경제수준, 주거의 불안정, 사회통제의 약화와 같은 사회 낙후성이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며, 이러한 지역에 가깝게 살수록 범죄피해가 가능성 또한 높다고 설명한다

6) 낙후지역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조건이 뒤떨어져 있고 갖추어지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동아출판사, 2004; 송재복·안병철, 2005 재인용).

(Kornhauser, 1978; Bursik, 1988; Sampson and Groves, 1989).

이러한 지역사회의 낙후성은 일상생활이론이나 구조적 선택이론 등과 같은 범죄기회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접성의 개념과 유사하며(Miethe and Meier, 1994). 이러한 근접성은 범죄발생다발지역인 핫스팟(hot spots)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박성훈, 2010).

지역사회의 낙후성과 관련하여 사회해체론자들은 공적 부조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경우 등을 지역사회의 해체의 지표로 삼았다. 이현희(1994)는 사회해체이론에 근거를 둔 변수로 생활보호대상자수, 평균교육수준, 자가소유비 등을 활용하여 범죄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는 지역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는 별도로 지역의 주택형태와 같은 특성이 범죄발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 또한 스코겐(Skorgn, 1990)은 무질서 개념을 이용하여 지역쇠퇴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무질서는 지역사회의 통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범죄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위의 논의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지역낙후성을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거주 비율을 고려하여 측정하고, 이러한 지역낙후성이 청소년성매매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의 잠재적 원천이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그 현상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나 발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출청소년과 성매매피해청소년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정혜원·박성훈, 2012). 이에 가출청소년과 성매매피해청소년의 지역적 속성 또한 매우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3) 청소년들의 이동(travel)과 대중교통

합리적 선택이론과 일상생활이론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이론에 기반을 둔 범죄패턴이론에서는 개인의 경우 개인의 활동 공간(activity spaces)과 인식된 공간(awareness spaces)을 가진다고 한다(Paynich et al., 2010). 또한 그들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개인들의 경우 활동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지점들에 따라 일정한 경로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Brantingham and Brantingham, 2008; Rossmo, 2000; Bichler et al., 2011).

다른 청소년의 문제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성매매 노출 청소년들도 일정한 이동패턴을 보인다. 정혜원(2011a)에 의하면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일정한 근거지가 있고, 근거지를 중심으로 다른 활동지점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서울시는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청소년들이 손쉽게 다양한 유해환경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통망과 공간적으로 근접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각종 유해환경들은 조성되기 쉬우며, 거리청소년이나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이 교통망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특정한 공간에 집중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서울시의 두 가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지하철 중에서 많은 인구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용하고 역사의 위치나 규모가 인근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하철망이 잘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수도권 교통량 중에서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의 승객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0%가 넘어서고 있고, 지하철 분담률은 36%가 된다(박종수·이금숙, 2010).

서울 메트로는 1호선, 2호선(본선, 성수지선, 신정지선), 3호선, 4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영업거리는 137.9km이고 총 역수는 120개이다. 평일 운행회수는 2,456회, 토요일 운행회수는 2,227회, 휴일은 2,129회이며 운행시격은 2.3~6.5분이다. 1호선은 서울에서 청량리까지 왕복 운행되며 2호선은 본선일 경우 성수에서 성수까지 순환 운행되며, 성수지선은 성수에서 신설동까지 왕복 운행, 신정지선은 신도림에서 까치산까지 왕복 운행, 3호선은 지축에서 오금까지 왕복 운행되고 4호선은 당고개에서 남태령까지 왕복 운행되고 있다.

[표 4] 2007-2011 서울메트로 수송인원과 수송수입

	구분	계
2011	수송인원(명)	1,509,528,662
	수송수입(천원)	806,236,493
2010	수송인원(명)	1,475,348,937
	수송수입(천원)	790,114,894
2009	수송인원(명)	1,450,530,740
	수송수입(천원)	783,888,134

	구분	계
2008	수송인원(명)	1,446,924,426
	수송수입(천원)	790,898,672
2007	수송인원(명)	1,431,757,456
	수송수입(천원)	767,778,972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인용(2012.10.18. 검색)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표 4]와 같고, 수송인원과 수송수입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권지역의 지하철망은 거리청소년들에게 어떤 장소이든지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의 경우 거리생활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가출과 성매매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거리청소년들의 활동공간들이 지하철망을 중심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리청소년들의 거주 공간, 노는 공간, 가출 시 숙식공간, 성매매피해공간들이 이동수단인 지하철망과 관련하여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자료수집

제 2절 조사내용

제 3절 분석방법



제 3장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설문조사와 공식통계를 이용한 양적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또한 자문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제 1절 자료수집

1. 설문조사 자료수집

이 연구의 대상은 가출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출상태인 13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⁷⁾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출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출상태인 13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모집단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판단추출법(Judgement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판단추출법이란 조사자가 조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조사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전형추출법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조사자가 그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전형적인 추출단위를 표본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전형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할당추출법에서처럼 다양한 층 안에서 할당량이 정해질 필요가 없고 편의추출법에서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을 선택하지도 않는다. 판단추출법에서는 연구자가 어떤 객관적인 근거와 판단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을 구성하게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자료가 수집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연구 현재 가출 중이거나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로 대상을 찾기가 어렵고, 최근 가출연령이 낮아지는 점, 가출경험이 많을 경우 연령 등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의 연령 폭을 13세 이상 20세 이하로 넓혀 조사하였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공식자료는 대부분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례에 기초한다(김향초, 2009).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통계청에서 게시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출청소년으로 신고 된 사례는 아래의 [표 5]와 같으며, 매년 1~2만 명 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 5]의 수치는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례건수에 기초한 것으로 신고 되지 않은 가출청소년까지 포함된다면 실제 가출청소년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가출 청소년 신고 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50,621	61,319	50,099	60,499	63,142	46,149	42,269	45,045	54,650	55,714	60,123
청소년	18,442	18,276	14,865	13,374	16,894	13,294	9,390	12,240	15,337	15,118	19,445
2005년 이전 청소년 범위(9~20세미만), 2006년 이후(실종아동법 시행이후 14세~20세미만)											

그러므로 가출청소년 전체 모집단을 확인한다거나 표본조사를 위해 모집단추출틀을 확보하는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가출경험이 있거나 가출한 13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일부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출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쉼터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쉼터는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1992년 최초로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청소년 선도 예방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참여정부”에서는 「가출청소년 쉼터 확대」를 대선공약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2005년 2월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법적인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한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다가 가출청소년의 상황 및 욕구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서비스 내용을 차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드롭인 센터(일시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보호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장기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청소년백서, 2011).

여성가족부가 운영·지원하는 쉼터의 종류는 일시쉼터·단기쉼터·장기쉼터이며 그 유형별 기능과 2011년 청소년쉼터의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2011년 청소년쉼터 현황

구분	일시쉼터(10개소)	단기쉼터(48개소)	중장기쉼터(25개소)
기간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3개월 내외의 단기보호	2년 내외 이상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 ⁸⁾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기능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제공 -가출청소년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결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가출청소년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뢰서비스 제공 등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연장 가능성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
입소경로	쉼터별 표적 집단에 해당되는 청소년 관계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퇴소경로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소 또는 이용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보호자의 양육요청시 귀가가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면 귀가조치		

자료: 여성가족부(2011)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된 후, 수도권소재 가출 청소년쉼터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소재 청소년쉼터는 13개, 경기소재 청소년쉼터는 20개, 인천소재 청소년쉼터는 7개로 나타났다(2009년 9월 기준).

청소년쉼터 이외 가출경험이나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거나 초기개입을 하고 있는 시설

8) 일시쉼터의 표적 집단은 “가족이나 사회와 유대가 없거나 약하여 거리에 노출되어 있는”거리청소년⁸⁾으로 함. 여기서 거리청소년이란 노숙청소년과 배회청소년을 포괄하는 개념임. 노숙청소년이란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되어, 이미 가출하여 오랜 시간을 보내며 거리에서의 생존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집단을 의미하고, 배회청소년이란 가족과의 관계가 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으로, 가출과 사회부적응의 위험이 있지만 거리에서의 생존방식에 익숙해지지는 않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탐색과 이용의사가 있어, 비교적 간단한 예방적 접근으로 건강한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미함. 배회청소년은 외형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표출되지 않는 집단으로서, 일반적인 청소년 집단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음(국가청소년위원회, 2008, 청소년쉼터운영지침)

과 기관을 추가하였다. 우선,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지원시설 5개소(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에는 시설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피해청소년에게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하여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인 청소년성장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 3개소(서울, 경기, 인천), 1년 이상 일정한 공간에서 거리청소년 아웃리치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 2개소(아웃리치 지역 : 서울, 경기)를 추가하였다.

조사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6월 4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었고, 2차 조사는 7월2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되었다. 1차 조사는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2차 조사는 일시쉼터 가운데에서도 이동형쉼터, 아웃리치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과 함께 라포가 형성된 거리청소년들을 조사하였으며, 남녀비율을 고려하여 할당하였다⁹⁾.

1차 조사는 한국가출청소년쉼터협의회와의 협조를 받아 서울지역 가출청소년쉼터 7개소, 경기지역 가출청소년쉼터 21개소, 인천소재 가출청소년쉼터 9개소 총 37개소에 입소 중인 가출청소년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에 동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교육받은 조사원이 직접 쉼터에 가서 설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과 쉼터에 종사하시는 상담원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상담원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 조사 기간 동안 총 273부가 조사되었다.

2차 조사는 청소년성매매지원시설 5개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3개소, 민간단체 2개소와 서울시 일시쉼터와 이동쉼터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쉼터와 민간단체들의 도움을 얻어서 쉼터 혹은 민간단체와 라포가 형성된 거리청소년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기간에는 125부 조사되

9) 이 연구의 목적이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이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오버샘플링하였다.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의 경우 남자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자청소년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출과 청소년성매매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2010년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남자청소년은 6,657명, 여자청소년은 12,788명 정도가 가출을 하고 있다. 2010년 청소년 성별 가출 비율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의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표본 수를 결정하였다.

어서 총 398부 조사되었다.

2. 공식통계 자료수집¹⁰⁾

이 연구의 공식통계는 크게 3가지 자료로 구성되었다¹¹⁾. 첫째는 종속변인으로 사용되는 청소년성매매 검거건수와 검거인원, 둘째는 지역사회변인, 마지막으로 기타 사회 인구학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변인들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 2012년도 자료도 함께 수집하였으며, 일부자료의 경우에는 2011년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여 2010년 자료만 수집한 경우도 있다.

첫째, 종속변인으로 사용되는 청소년성매매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은 경찰청의 정보공개를 통해 2010년과 2011년 자료를 수도권 자치구별로 수집하였다.

둘째, 지역사회변인은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나누어서 정보를 수집을 하였다. 청소년 유해환경은 수도권 자치구별로 분류된 2010년 전국사업체조사결과를 통계청으로부터 수집하였다¹²⁾. 2010년 전국사업체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수도권 자치구별로 유해업소를 4개 업종으로 재분류하여 정리한 후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성매매피해청소년보호 및 예방서비스와 폭력피해청소년 지원기관을 2012년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그러나 일부자료의 경우는 2011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성매매피해청소년보호 및 예방서비스는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수와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수를, 폭력피해청소년 지원기관은 Wee센터 수, 청소년쉼터 수, 청소년성문화센터 수, 성폭력상담소 수, 성폭력보호시설 수, one-stop지원센터 수 등을 자료 조사하였다.

셋째, 사회 인구학적 요인은 수도권 자치구별 청소년인구, 총인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 재산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수, 아파트 수 등을 조사하였다.

10) 공식통계자료는 중앙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윤선미의 도움을 얻어 수집하였다.

11) 공식통계자료는 본 보고서에 수록된 것 이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와 서울시로부터 용도지구(GIS파일), 수도권 자치구별 버스정류장 위치 등을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전부 본 보고서에는 활용하지 못하였다.

12) 자료수집시점에서 2011년 전국사업체조사는 데이터클리닝 중이라서 일반인에게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자료라고 할 수 있는 201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7] 공식통계 자료수집 분류

		내용(출처)
1	청소년성매매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 2010~11년 수도권 자치구별 청소년성매매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경찰청)
2	지역사회변인	○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 성매매피해청소년 보호 및 예방서비스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성매매피해청소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수 ○ 폭력피해청소년지원기관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Wee센터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청소년쉼터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청소년성문화센터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성폭력상담소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one-stop지원센터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지하철역사 및 지하철노선 위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버스정류장 위치 ○ 수도권지역 지하철역사 및 지하철노선 위치
3	사회인구학적변인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청소년인구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총인구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재산세

제 2절 조사내용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의 공간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설문문항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절차를 이용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문헌조사 및 관련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얻어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설문내용을 구성한 이후에는 자문회의와 사이버포래상담실 상담원과 쉼터 및 청소년성매매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들의 검토를 통해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세 번째,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이후에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표현의 명확성, 반응하기 어려운 문항 유무, 질문의 순서효과, 설문조사 진행시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설문조사내용

구분	조사 내용
사회 인구학적 요인(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성별, 학교재학상태, 가족거주지, 가출여부
현재 거주 장소 및 노는 장소(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먹고 자는(숙식)장소 현재 먹고 자는 지역 현재 먹고 자는 장소의 주변 건물이름 현재 노는 장소 현재 노는 지역 주로 노는 장소(순서) 주로 노는 장소의 주변건물이름
과거 가출 시 숙식장소(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가출시 가장 많이 먹고 잤던(숙식)장소 과거 가출시 가장 많이 먹고 잤던(숙식)지역 과거 가출시 가장 많이 먹고 잤던(숙식)장소의 주변 건물이름
과거 성매매 장소(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산업 관련 업종 종사 여부 경험한 성산업 종류 조건만남 장소 조건만남 장소 선정자 자주 가는 조건만남 장소 자주 가는 조건만남 장소의 지역과 주변건물이름

구분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친구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조건만남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과거 비행 장소(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 패싸움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 뺑뜨기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 약물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제 3절 분석방법

1.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범죄지도그리기(mapping)

범죄 연구에 있어서 공간은 매우 중요한 맥락을 지닌다. 도시 연구자들은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지리적 연관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범죄는 다른 어떤 도시문제들 보다 공간적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많은 도시지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현재 가장 왕성한 공간분석 연구자인 Luc Anselin이 개발하여 운영 중인 Geoda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예제파일로 제공되는 자료가 오하이오 주 컬럼버스의 범죄 자료이다. 도시범죄 발생과 관련된 이론적 전통들도 범죄의 공간적 맥락을 지지한다. 먼저 소위 사회해체 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 따르면 범죄발생이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은 물론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특성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즉 지역의 인구통계적이고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범죄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공간”의 외연적 환경을 강조한다.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은 범죄 발생의 3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제시한다. 즉 이 견해는 범죄자의 동기(motivation), 범죄의 대상(target), 또한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보호자(guardianship)의 부재 등의 상황들이 동시에 결합될 때 범죄는 발생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3가지 조건들은 범죄자는 물론 범죄피해자들의 공간적인 활동 영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범죄의 기회가 늘어날 확률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으로 상기 조건들이 일치되었을 때 높아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도시범죄의 두 가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결국 범죄가 갖는 공간적 특성들을 충분히 통제할 때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고 분석하는 방법은 도시범죄의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범죄지도그리기(crime mapping)은 기본적으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law enforcement agencies)에 의해서 범죄 발생 패턴들을 지도를 그려서(map), 시각화시키고(visualize), 분석하기(analyze) 위하여 사용되는 기법이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을 이용해서 범죄지도를 그리는 것은 범죄분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범죄의 경향과 패턴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범죄 다발지역인 핫스팟(hot spots)을 확인시켜주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GIS를 사용해서 범죄 분석가들은 센서스의 인구통계 자료, 학교나 상점의 위치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이질적인 자료들을 중첩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실제 법집행 기관이 도시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들을 고안하고 범죄 연구자들이 범죄의 숨겨진 원인들을 보다 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GIS는 경찰력의 지리적 배치와 할당 혹은 응급 지역들에 파견과 같은 다양한 공권력의 활동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 범죄지도는 범죄자들의 공간적 행태(spatial behavior)를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최근 들어서 범죄지도 만들기와 범죄지도의 분석은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과 공간적 이질성(heterogeneity)등으로 대변되는 공간자료의 본원적인 특징과 한계를 통계적인 기법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공간자료분석 기법들과 연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탐색적 공간자료분석을 다루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컴퓨터 기반에 의한 범죄지도그리기에 대한 연구는 1986년 미국의 법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가 시카고 경찰청에 지역사회 범죄와 경찰과 연계된 범죄지도그리기를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최초로 구체화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시카고 경찰국에 의해서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와 노스웨스턴 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 근린지역 안전을 위한 시카고 연맹(the Chicago Alliance for Neighborhood Safety) 등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수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결국 범죄지도그리기라는 기법을 미국 내 전역에 걸쳐서 파급시킬 계기가 되었다. 범죄연구자들은 범죄지도그리기를 범죄 예측(crime forecasting),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과 같은 전략적인 분석에서는 물론 범죄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정책들 마련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응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범죄지도그리기는 투옥 및 재범의 공간적 패턴을 이해하고 대상 자원들과 프로그램들을 도와주며 범죄예방이나 범죄감소프로그램들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범죄의 원인들을 훨씬 깊이 이해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2. 탐색적 공간자료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은 원래 탐색적 자료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에서 확장된 개념이다. 탐색적 자료 분석은 기존의 통계학이 정보의 추출에서 가설 검정 등에 치우쳐 자료가 갖고 있는 본연의 의미를 찾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탐색적인 자료 분석 방법들이 발전한 데서 비롯되었다. 박스 플롯 등은 대표적인 탐색적 자료 분석의 예인데 결국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탐색적 기법들을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은 그 자료가 공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은 공간 자료의 충분한 서술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곧 공간 자료를 통한 가설 검정 및 모형 설정으로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은 자료의 그래픽 표현을 강조하고 분석단위들 혹은 변수들 간의 관계들의 의미 있는 군집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고안된다. 이러한 표현들은 대개 지도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결국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공간적 분포를 서술 및 시각화하여 비정상적인 장소들(atypical locations)이나 공간적 이상치(spatial outliers)를 확인하고 공간적 관련성의 패턴들과 군집이나 핫스팟들을 발견하고 공간적 이질성의 형태나 공간적 체제(spatial regimes)를 제안하는 일련의 테크닉들의 집합이다 (Messner, 1999).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간자료만의 특성을 보여주는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이다. 공간적 자기상관은 한 변수에 대해 한 지역의 관측치가 다른 지역의 관측치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공간적 연관성(spatial association)을 갖는지를 보여주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간단위의 상대적 위치나 배열, 거리 등을 반영하게 된다(최은영, 2003). 만약 어떤 지역에서 높은 값을 가질 때 이웃하는 주변지역의 값들도 함께 높거나 어떤 지역에서 낮은 값을 가질 때 이웃하는 주변지역의 값들도 함께 낮으면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인다고 한다. 반대로 어떤 지역에서 높거나 낮은 값을 가질 때 주변 이웃 지역들의 값이 반대로 낮거나 높은 값을 갖게 되면 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인다. 공간적 자기상관은 전역적인 지표와 국지적인 지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전역적 지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전역적 공간분포패턴 분석

전체 연구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공간분포패턴을 공간적 자기상관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Moran's I와 Geary's c가 있다. 양 지표 모두 이웃지역의 공분산의 합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연구가 분석에서 활용할 가장 대표적인 통계치인 Moran's I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지표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I = \left[\frac{n}{\sum_i \sum_j w_{ij}} \right] \frac{\sum_i \sum_j w_{ij} (x_i - \bar{x})(x_j - \bar{x})}{\sum_i (x_i - \bar{x})^2}$$

여기에서 n 은 공간단위의 수, w_{ij} 는 공간가중치 행렬에서의 값을 의미한다. x_i 는 i 지역 전체 인구에 대한 i 지역 연구집단(object group)의 비율이며 \bar{x} 는 x_i 의 평균이다. 공간적 연관 패턴 분석에서는 이웃(neighbor) 구조를 정의하는 공간가중치 행렬(spatial weight matrix)이 중요하다. 공간가중치 행렬은 공간상의 모든 지역을 행렬로 구성한 후 공간적 근접성이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각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의 관계를 가중치의 형태로 표현한다. Moran's I는 전역적 지수이기 때문에 전체 지역의 분리 정도가 하나의 숫자로 요약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특정 지역에 대한 공간적 연관성의 정보를 전혀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② 국지적 공간분포패턴 분석

앞에서 설명한 전역적 지수는 미시적 단위에서의 특정 변수값의 공간적 맥락을 파헤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Luc Anselin(1995)은 개별 지역에서 이웃의 주변 지역들과의 관련성만을 측정할 로컬(local) Moran's I를 개발하였다. 다음은 로컬 Moran's I의 수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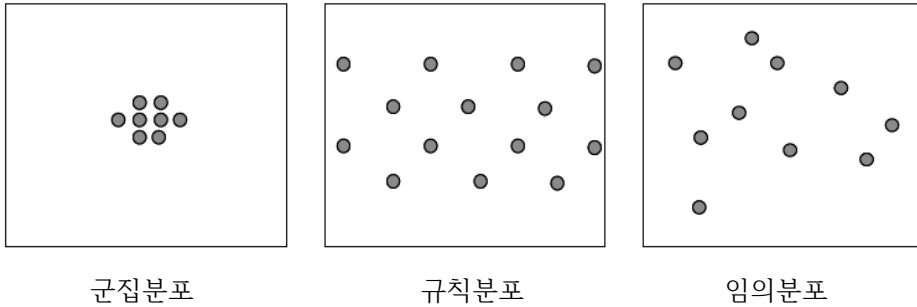
$$I_i = \left[\frac{n^2}{\sum_i \sum_j w_{ij}} \right] \frac{(x_i - \bar{x}) \sum_j w_{ij} (x_j - \bar{x})}{\sum_i (x_i - \bar{x})^2}$$

높은 로컬 Moran's I값은 해당지역(reference area)과 이웃지역(neighbor area)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와 연관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매우 동질적이라도 값들이 평균과 유사하다면 Moran's I값은 낮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로컬 Moran's I는 공간적 군집과 이상치를 찾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로컬 Moran's I의 또 하나의 특색이자 강점은 통계적 검증 방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Geod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Moran scatterplot과 Moran significance map 등의 시각화된 결과를 함께 산출하여 측정된 국지적 공간적 자기상관의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할 수 있다.

3. 점 사상(point feature)에 대한 공간분포패턴 분석¹³⁾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있어서 점 사상은 면 사상(polygon feature)보다 여러 이점들이 있으며 특히 공간 단위를 미시적으로 좁힐수록 점 사상 자료의 강점은 두드러진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수도권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거주, 놀이, 가출 등 일련의 활동관련 변수들에 대한 공간적 정보를 통해서 점 사상 공간자료를 생성해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현실세계에서 점(point)의 형태로 표현되는 사상은 공간상에 일정한 분포패턴을 나타낸다. 점 사상의 분포패턴은 규칙적(regular), 임의적(random), 군집적(clustered)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사상의 분포유형은 아래 [그림 6]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3) 이어지는 점 사상 공간분포패턴에 대한 분석기법 설명은 국토연구원에서 발간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연구(김영표·임은선, 2003)"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그림 6] 점 사상의 분포패턴

규칙적 패턴은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분포를 나타내며, 군집적 패턴은 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로 각 점과 이웃하는 점과의 간격이 매우 좁게 나타난다. 임의적 패턴은 점 사이의 간격이 규칙성이 없이 임의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흔히 군집화된 패턴과 규칙적 패턴은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분포패턴 유형의 판단을 위해서 통계적인 분석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점 사상 공간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활용할 몇 가지 기법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① 최근린분석(Nearest-Neighbour Analysis)

최근린분석은 점과 점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공간상에 표현된 점의 패턴이 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분포한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점들간의 분포패턴이 상호 관련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그 분포는 밀집 혹은 규칙적이라 할 수 있다. 점들간 공간적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으로 점들간 공간적 상호의존성(spatial dependence)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린분석 방법에 의해 분포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최근린분석 기법은 지리공간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 점 사상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분포패턴을 파악한다. 이 방법은 어떤 임의의 점으로부터 다른 점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후, 각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지점까지의 거리를 평균하여 관측된 평균 최근리거리를 산정한다. 점 분포패턴으로부터 기대되는 평균 최근린 거리 Ed 는 아래 수식에 의해서 계산된다.

$$Ed = \frac{1}{2} \sqrt{\frac{A}{n}}$$

이때 n 은 점의 수를 A 는 대상지역 면적을 나타낸다. 이렇게 계산된 기대되는 평균 최근린 거리에 대한 실제 관측된 평균 최근린 거리의 비율을 최근린지수(nearest neighbor index:NII)라 한다. 이 지수는 점분포 패턴에서 각 점들의 간격이 임의적인 점분포 패턴에서의 간격에 비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나타낸다. NII가 1인 경우는 완전히 임의적인 분포유형이고, NII가 1보다 큰 경우에는 규칙적인 분포이고, NII가 1보다 작은 경우는 군집적인 분포유형이다.

② K함수

점 분포의 이차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K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 K함수는 점 자료의 공간적 배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점 자료의 분포상태가 공간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K함수는 특정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내의 실제적으로 분포하는 점의 수와, 이론적으로 규칙적인 점의 수를 비교함으로써, 점의 분포가 임의적인가 판정하는 함수로 수식은 다음과 같다.

$$K = \frac{1}{\lambda^2 R} \sum \sum I_h(d_{ij})$$

이때 R 은 지역의 면적, λ 는 지역의 평균 event 발생 수, d_{ij} 는 지역 내에 위치한 i 번째 event와 j 번째 event간의 거리, $I_h(d_{ij})$ 는 indicator 함수($d_{ij} < h$ 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를 각각 대표한다. 임의의 패턴일 경우 각 지점에서 점이 있을 확률은 동일하며 서로 독립적이다. 따라서 표본 추출된 한 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h 이내에서 발견될 평균 점의 수는 $\lambda\pi h^2$ 이다. 즉, 공간적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등질적 상황에서 $K(h) = \pi h^2$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군집된 분포일 경우 $k(h) > \pi h^2$ 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

로 πh^2 와 표본자료에서 구한 $K(h)$ 를 비교함으로써 점자료의 패턴을 탐색할 수 있다. K 함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πh^2 의 역으로 환산한 함수가 L함수이다. L 함수는 아래 수식으로 구할 수 있다.

$$L(h) = \sqrt{\frac{K(h)}{\pi}} - h$$

이때 L함수의 값이 0보다 클 경우 군집된 패턴이며, 0보다 작을 경우 규칙적 형태를 나타낸다. L함수를 거리에 따라 그래프로 표현할 경우, 원점에서부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임의의 패턴을 나타낸다. 실제 점의 분포가 군집된 형태일 경우 L함수는 직선의 상단에 위치하며, 규칙적 형태일 경우 직선의 하단에 위치하게 된다.

제 4장

분석결과

제 1절 청소년성매매 공식통계 분석

제 2절 청소년성매매 관련 설문조사 분석

제 3절 자치구별 청소년성매매 발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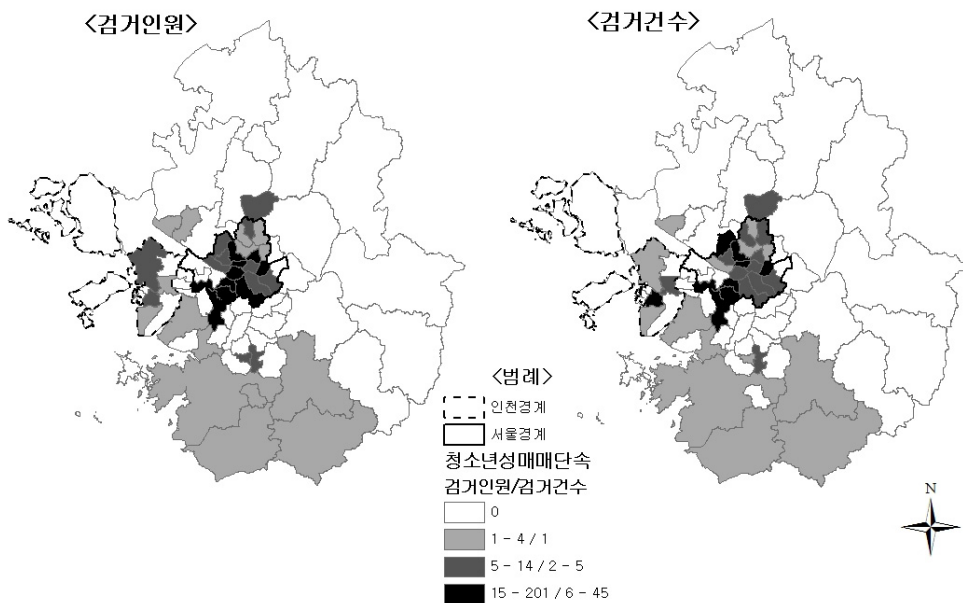
제 4장

분석결과

제 1절 청소년성매매 공식통계 분석

1. 시군구 단위 성매매 범죄자 및 범죄건수의 공간적 패턴

2011년 수도권 청소년성매매 공간패턴(공식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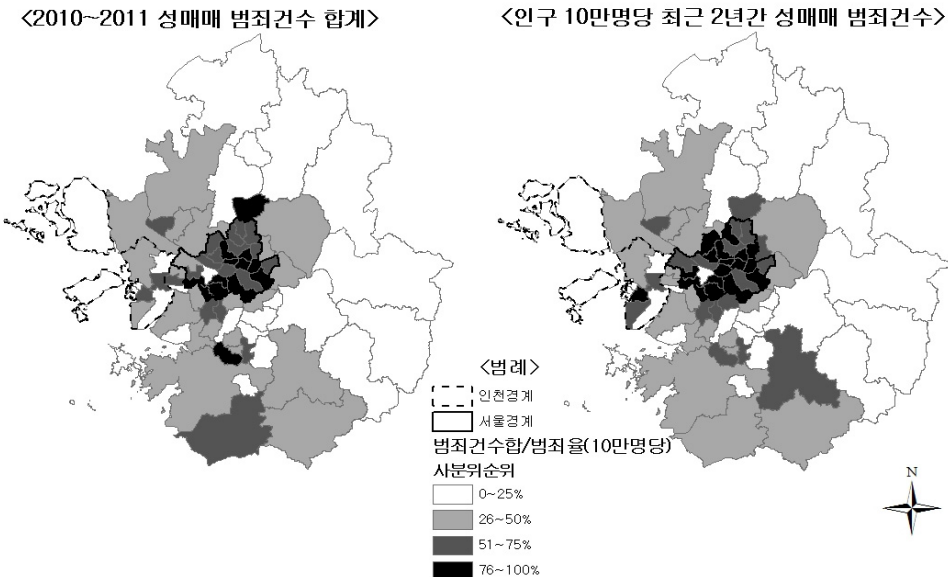
[그림 7] 2011년 수도권지역 청소년성매매 공간패턴

[그림 7]은 시도 경찰청이 보고한 공식통계에 기초한 2011년 수도권 시군구 별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검거인원을 보여주는 왼쪽 지도는 물론 검거건수를 보여주는 오른쪽 지도에서도 모두 서울의 자치구지역들의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이 압도적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과 경기 남서권 지역들도 일부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이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서 상당수 경기 북부 및 동부의 군지역들과 서울남부와 인접한 근교 교외지역들에서는 성매매 검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의 상당수가 대도시인 서울을 중심으로 서부권에 공간적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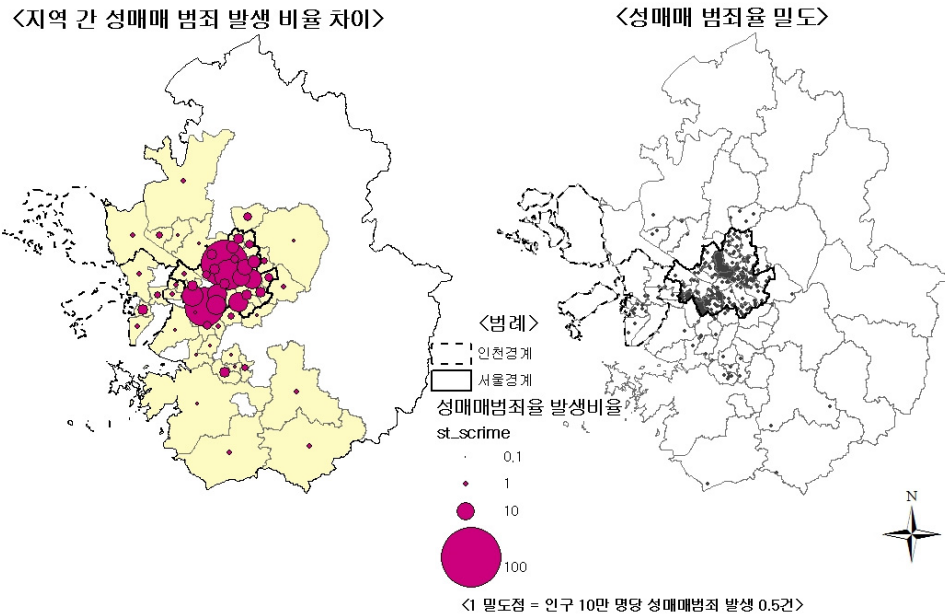
[그림 8]은 시도 경찰청이 보고한 2010년과 2011년에 대한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 및 검거건수를 합하여 2년간 취합된 공식통계의 공간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2년간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패턴은 더욱 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지역에서의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집중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왼쪽의 청소년성매매 건수에 대한 지리적 분포와 유사하게 인구수에 의해서 표준화된 지표인 인구 10만 명당 성매매 범죄건수에 대한 공간적 패턴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절대 범죄건수는 물론 인구수로 표준화된 청소년성매매율도 서울지역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최근 2년간 수도권 성매매범죄 공간패턴



[그림 8] 2010~2011년 수도권지역 청소년성매매 범죄건수 및 범죄율 공간패턴

최근 2년간 수도권 성매매범죄 공간패턴2



[그림 9] 2010~2011년 수도권지역 청소년성매매 범죄 발생비율 및 밀도패턴

한편 [그림 9]는 앞에서 살펴본 최근 2년간 청소년성매매의 공간패턴을 발생비율의 차이와 밀도점(density plot)으로 나타낸 지도이다. 서울 일부지역들의 경우 청소년성매매가 발생한 경기도의 일부 외곽지역들에 비해서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이 10~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른쪽의 청소년성매매 범죄율 밀도 지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안에서도 남서권과 한강 이북의 중심지역들에서 성매매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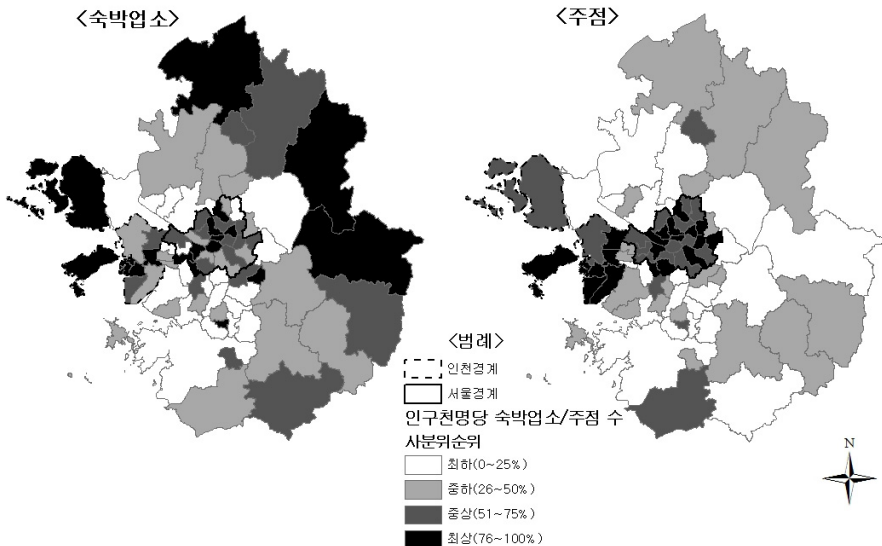
2. 시군구 단위 범죄유해환경 요소들의 공간적 패턴

청소년성매매는 다른 유형의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주변지역의

각종 유해환경들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되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환경들의 공간적 패턴을 살펴보는 것은 실제 범죄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맥락을 지닌다.

[그림 10]은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두 가지 유해환경 변수인 숙박업소와 주점에 대한 공간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변수들은 모두 인구수로 표준화시켜서 시군구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표화시켰다. 먼저 숙박업소의 경우 중상 및 최상에 포함되는 지역들이 서울지역에 다수 집중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인천, 경기 서부권과 경기 동부 및 북부권의 농촌지역으로도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수도권 남부를 중심으로 서울 근교 교외지역들은 비교적 숙박업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점의 경우 서울지역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서부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패턴과 매우 흡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숙박업소와 주점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 청소년유해환경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청소년성매매와는 주점이 보다 더 공간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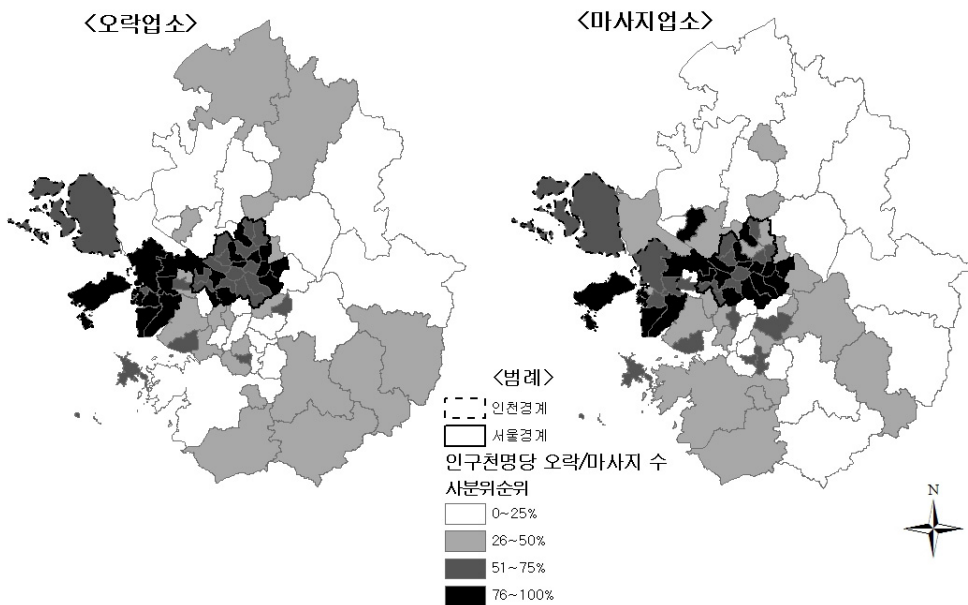
수도권 청소년유해환경 공간패턴1



[그림 10] 수도권지역 숙박업소 및 주점의 공간패턴

이어지는 [그림 11]은 또 다른 2가지 청소년 유해환경인 오락업소와 마사지업소의 수도권에서의 지리적 분포를 보여준다. 먼저 오락업소의 경우는 앞서서 살펴보았던 주점과 매우 흡사하게 서울 및 수도권 서부권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업소에는 pc방 및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청소년성매매와 이러한 오락업소들 간의 공간적 맥락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사지업소 역시 서울지역에 좀 더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락업소와 유사한 공간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청소년 유해환경들의 공간적 분포는 청소년성매매 발생 지역과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공간적 맥락을 갖는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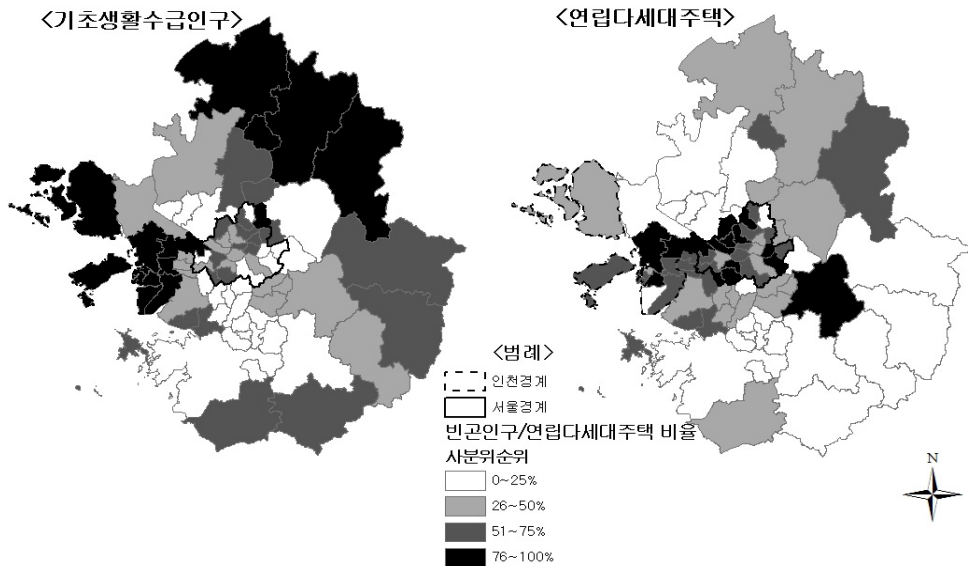
수도권 청소년유해환경 공간패턴2



[그림 11] 수도권지역 오락업소 및 마사지업소의 공간패턴

범죄의 유해환경으로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현상은 빈곤과 주거이다. 많은 범죄연구에서 빈곤과 거주환경은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센서스자료조차도 소득변수를 미시적 지리단위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리변수(proxy)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인구 비율을 이용하여 지역의 빈곤정도를 측정했고 낙후된 주거환경의 정도를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연립다세대주택 비율도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그림 12]는 수도권 시군구별 빈곤인구와 연립 및 다세대주택 비율의 사분위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왼쪽 지도에서는 수급자비율이 높은 지역이 주로 경기 북동부의 일부 농촌지역들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도 일부 강북지역과 서남부지역이 비교적 높은 빈곤정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서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서울인접 근교지역은 빈곤 정도가 낮았다.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보았던 범죄유행환경에 비해서 지역의 빈곤 정도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분포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그림 오른쪽의 연립다세대주택 비율은 빈곤과는 구별되는 공간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연립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서울과 수도권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직접적인 유흥관련 환경적 요인들의 경향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분포와도 유사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이 지내고 활동하는 배경이 되는 거주환경이 주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 근거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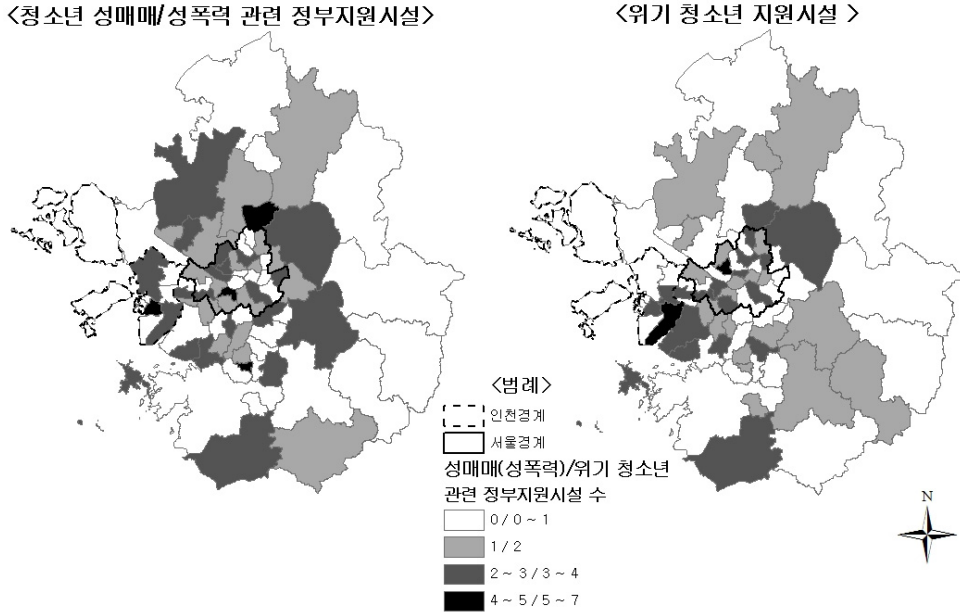
수도권 빈곤인구 및 다세대주택 공간패턴



[그림 12] 수도권지역 빈곤인구 및 다세대주택 공간패턴

청소년성매매를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노력은 꾸준히 강조되어 왔으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성매매나 성폭력 범죄 등에 노출되었을 때 체계적이고 역량 있는 문제해결 시스템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소년성매매나 성폭력 관련 정부지원시설에서부터 범죄가 발생하기에 선제적으로 위기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지원시설들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정부의 청소년 보호시설들의 존재와 운영 실태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성매매 발생의 억제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짐작된다.

수도권 성매매/성폭력 및 청소년 지원시설 공간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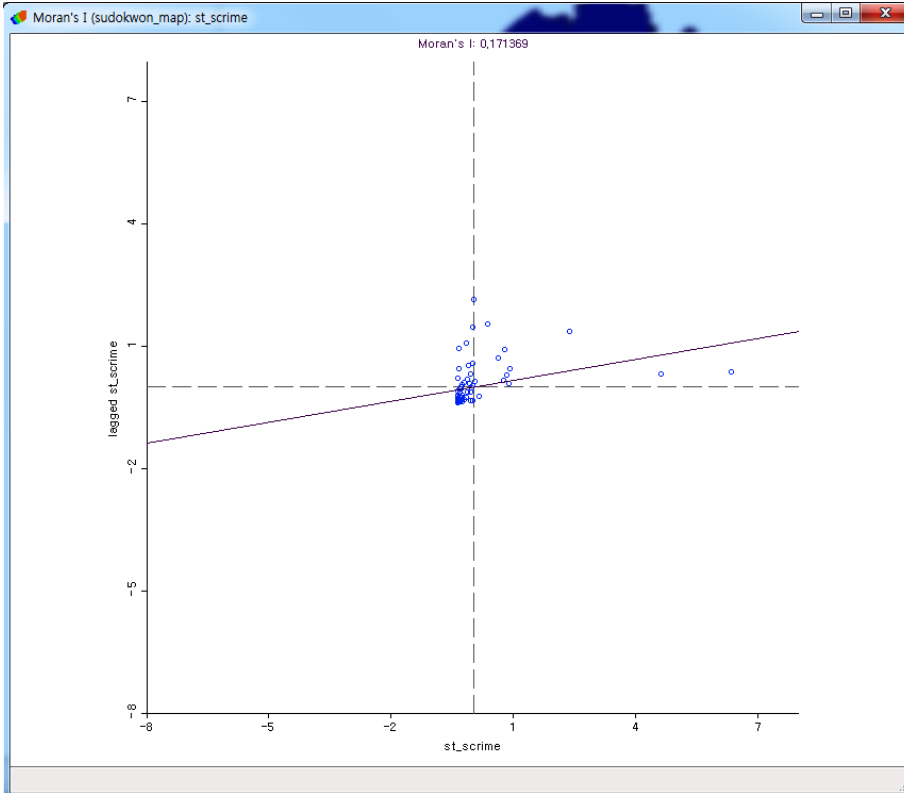


[그림 13]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성폭력 지원시설 공간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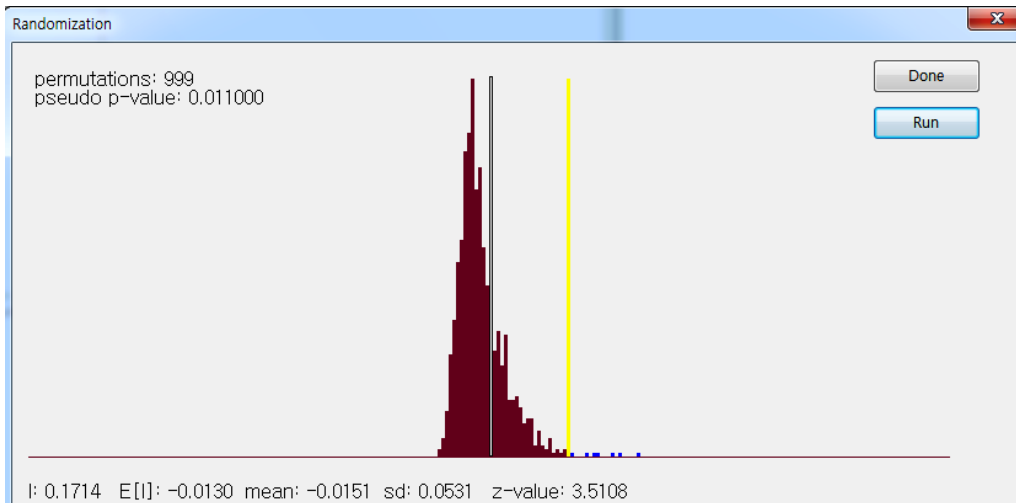
[그림 13]의 왼쪽은 수도권 지역 청소년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정부지원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성범죄 관련 정부지원시설의 지리적 분포는 수도권 외곽 시골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서울 및 인접 수도권에 걸쳐서 고루 퍼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특정 패턴을 보인다고 하기 어려운 성범죄관련 공간분포의 특성은 실제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장소와 정부 및 지역사회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발생 사이에 공간적 불일치(spatial mismatch)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3. 청소년성매매 공식통계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범죄 발생이 공간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은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꾸준히 확인되었던 사실이다. 앞의 방법론에서 자세하게 소개한 소위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ESDA: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은 공간자료의 공간 분포를 묘사하고 시각화하며 더 나아가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y)과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에 주목한다(Anselin, 1998). 이때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은 어떤 연구 지역의 하위 지역에 대한 변수값의 분포가 주변 지역의 동일 변수값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게 될 때 존재한다(Cliff&Ord, 1973).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높은 값을 갖는다고 할 때 이웃하는 주변지역의 값도 높거나, 낮은 값을 가질 때 이웃하는 주변지역의 값도 낮게 되면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을 갖는다고 하며 이는 곧 공간적 군집을 의미한다. 그 반대로 어떤 지역에서 높은 값을 가질 때 이웃하는 주변지역의 값은 반대로 낮거나, 낮은 값을 가질 때 이웃하는 주변지역의 값은 높을 경우 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그림 14]과 [그림 15]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Geoda 프로그램에서 Moran's I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측정결과 Moran's I지수는 약 0.17로 청소년성매매가 정적인 공간자기상관을 띠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소년성매매율이 높은 지역이 존재할 때 이웃하는 주변지역의 청소년성매매율도 높은 공간적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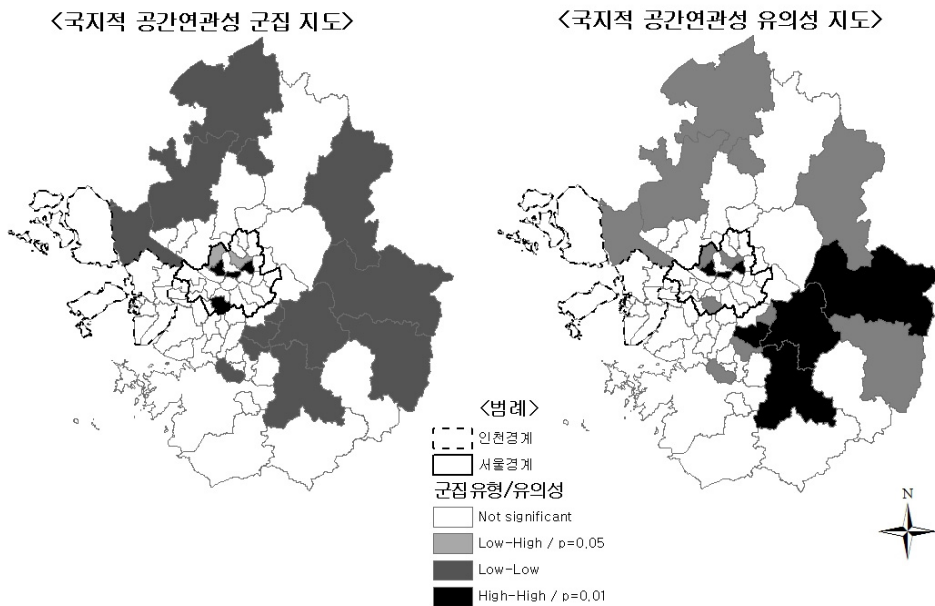
[그림 14] Geoda를 이용한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의 Moran's I값과 산점도



[그림 15] Geoda를 이용한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의 Moran's I의 통계적 유의성

앞에서 살펴본 전체 수도권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는 전역적 지수는 국지적 측면의 영향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범죄분석에서 국지적인 공간적 상관분석은 소위 범죄 발생의 핫스팟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범죄의 국지적 공간연관지표(LISA) 결과



[그림 16]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의 Local Moran's I의 통계 분포

[그림 16]은 이러한 국지적 공간연관성(Local Indicator spatial association)을 Geoda 프로그램을 이용해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왼쪽의 지도는 국지적으로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군집의 유형에 따라 해당 지역의 범죄율이 높을 때 이웃 주변지역들도 범죄율이 높은 high/high 지역, 해당 지역의 범죄율이 낮을 때 이웃 주변지역들도 범죄율이 낮은 low/low 지역, 해당 지역의 범죄율이 낮을 때 이웃 주변 지역들의 범죄율은 높은 low/high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분석결과 해당 지역은 물론 이웃 주변 지역들의 청소년성매매율도

높은 high/high 지역은 모두 서울 안에 있었으며 관악구,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low/low 지역들은 모두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북부와 동부 농촌지역들과 일부 서울 남쪽 근교도시들이 청소년성매매가 낮은 지역들끼리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높은 청소년성매매율 지역들에 둘러 싸여 있지만 낮은 청소년성매매율로 고립된 지역인 low-high지역은 성북구와 은평구로 나타났다.

제 2절 청소년성매매 관련 설문조사 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이 연구는 수도권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98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2부의 설문을 제외하고 총 396의 설문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번 섹션에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청소년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 거주, 수식, 놀이, 가출 등의 일련의 활동 현황, 마지막으로 성매매 및 각종 비행 현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의 서술통계 요약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우선 설문조사에 응한 청소년들 중 여학생은 66.33%로 약 3분의 2정도였고 남학생은 33.67%로 약 3분의 1정도로 나타났다.

[표 9] 성별 분포

	빈도	비율(%)
여자	262	66.33
남자	133	33.67
합계	395	100

설문조사에 응한 청소년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17세(26.3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8세(23.96%), 19세(21.09%), 16세(13.28%)였다.

[표 10] 연령별 분포

	빈도	비율(%)
13세	1	0.26
14세	15	3.91
15세	27	7.03
16세	51	13.28

	빈도	비율(%)
17세	101	26.30
18세	92	23.96
19세	81	21.09
20세	16	4.17
합계	384	100

설문조사에 응한 청소년들이 현재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에 대한 물음에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46.88%로 절반에 다소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으며 이어서 자퇴한 경우가 37.76%에 이르렀으며 이어서 학교에는 적을 두고 있으나 장기결석중인 상황이 10.42%로 타났다. 이 밖에 퇴학을 당한 경우도 4.95%였다. 대부분의 설문 대상 청소년들이 소위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때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은 이들의 각종 비행과 탈선의 문제에 대해서 제도권 교육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가 여전히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학교 재학 유형

	빈도	비율(%)
학생	180	46.88
학생이지만 장기결석	40	10.42
자퇴	145	37.76
퇴학	19	4.95
합계	384	100

설문 응답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8.5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가 28.5%, 인천 15.3% 순이었으며 기타 지역 출신은 7.65%에 그쳤다. 수도권 지역의 위기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같은 수도권 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분포는 수도권 지하철로 대변되는 신속한 교통망과 소위 SNS등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위기청소년들도 수도권 지역 내에서 손쉽게 그들의 활동영역을 변경하면서 탈선과 비행이 용이한 공간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음도 예상해볼 수 있다.

[표 12] 출신 시도 현황

	빈도	비율(%)
서울	108	28.50
인천	58	15.30
경기	184	48.55
기타	29	7.65
합계	379	100

설문 응답 청소년들의 출신 지역은 시지역이 52.25%이었으며 구지역은 45.62%로 도시지역 출신이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

[표 13] 출신 시군구 현황

	빈도	비율(%)
구	172	45.62
시	197	52.25
군	8	2.12
합계	377	100

설문 응답 청소년들이 현재 가출 중인지에 대한 물음에 가출 중이 아니라는 응답이 58%인데 반해서 가출 중이라는 응답이 무려 42%에 이르렀다. 결국 위기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가출을 통해서 부모로부터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언제든지 각종 비행, 탈선, 범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4] 가출 여부

	빈도	비율(%)
가출중이 아님	228	58.02
가출 중	165	41.98
합계	393	100

2) 각종 활동 현황

설문 응답 청소년들이 현재 먹고 자는 숙식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쉼터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65.54%에 이르렀고 이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

이 25.7%이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선후배집, 친구집, 월세방, PC방 등에서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거주 장소

	빈도	비율(%)
가족과 함께 거주	96	25.07
혼자 자취	2	0.52
월세방	3	0.78
텃터	251	65.54
친구집	5	1.31
선후배집	7	1.83
PC방	3	0.78
기타	16	4.18
합계	383	100

설문 응답 청소년들이 먹고 자고 곳과 노는 장소가 지역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와 아니다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즉 절반의 위기 청소년들은 현재 기거하고 있는 장소에 가까운 근거리에서 노는데 반해서 또 다른 절반의 위기 청소년들은 놀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동적인 이동성(mobility)은 수도권 지역의 발달된 교통망에 기인하는 것으로 위기 청소년들의 활동 양식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6] 거주 장소와 노는 장소가 동일한지 여부

	빈도	비율(%)
그렇다	174	46.65
아니다	175	46.92
기타	24	6.43
합계	373	100

[표 17]과 [표 18]는 설문 응답 청소년들이 노는 장소들을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한 결과이다. 먼저 1순위 노는 장소로 응답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PC방이 30.16%로 가장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놀이 장소였다. 이어서 노래방도 무려 26.23%가 응답을 해서 PC방과 함께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1순위 노는 장소로 PC방과 노래방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놀이터, 공원, 술집, 역부근, 골목/길거리, 학교 등의 순으로 위기 청소년들은 1순위 노는 장소를 정했다. 2순위 노는 장소는 1순위 노는 장소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뒤 바뀌면서 노래방이 27.21%를 PC방이 18.02%를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두 장소가 위기 청소년들이 노는 장소로 가장 두드러지게 선호하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기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 공간을 파악하고 지리적 패턴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즉 위기 청소년들의 탈선,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있어서 PC방과 노래방 밀집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대상 지역의 선정은 청소년성매매를 비롯한 각종 청소년 비행의 공간적 맥락의 이해의 시발점이다.

[표 17] 노는 장소 1순위

	빈도	비율(%)
PC방	92	30.16
노래방	80	26.23
친구집	7	2.30
술집	12	3.93
놀이터	15	4.92
공원	13	4.26
학교	10	3.28
음식점	6	1.97
역부근	11	3.61
골목/길거리	11	3.61
쉼터	9	2.95
집	8	2.62
기타	31	10.16
합계	305	100

[표 18] 노는 장소 2순위

	빈도	비율(%)
PC방	51	18.02
노래방	77	27.21
친구집	12	4.24
술집	14	4.95
놀이터	19	6.71
공원	16	5.65
학교	9	3.18
음식점	22	7.77
역부근	7	2.47
골목/길거리	7	2.47
쉼터	6	2.12
집	4	1.41
기타	39	13.78
합계	283	100

설문 응답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와 관련하여 기타 응답 항목 가운데 흥미로운 대답은 ‘모텔’을 놀이장소로 적은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혜원(2011a)연구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반복되는 가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물리적 공간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성(性)에 익숙해지는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정혜원(2011a)은 성(性)에 익숙해지는 하위문화를 통해 가출청소년들이 이후 성폭행이나 성매매로 유입하게 하는 유입기제가 된다고 하였다. 위기청소년들의 노는공간으로서 ‘모텔’은 거주지이기도 하며, 위에서 언급했던 ‘성에 익숙해지는 하위문화’를 형성하는 공간적 기반이기도 하다.

[표 19]과 [표 20]은 설문 응답 청소년들이 가출 시 숙식장소들을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한 결과이다. 한편 설문 청소년들의 가출시 숙식장소에 대한 질문에서 1순위 가출 후 지낸 장소로 친구집이 가장 많은 37.5%의 위기 청소년들이 선택했다. 이어서 쉼터가 20.65%로 가출 청소년들이 지낸 장소였으며 선후배집도 5.16%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가출을 실행한 청소년들이 가장 편하고 손쉽게 기거할 수 있는 친구집 혹은 선후배집에 들어가려 하고 있

으며 만약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 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PC방(5.16%), 모텔 단기투숙(4.89%), 찜질방(4.08%) 등을 가출 청소년들은 지내는 장소 1순위로 꼽았다. 가출시 숙식장소 2순위의 경우도 친구집, 찜질방, 모텔, PC방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1순위 장소의 선호 장소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가출시 숙식장소에 대한 선호 순위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노는 장소에 대한 선호 결과와 마찬가지로 위 기 청소년들의 탈선, 비행, 그리고 범죄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들이 상당히 뚜렷한 공간적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친구집이나 선후배집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PC방, 찜질방, 모텔 등에 가출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가출 후 쉼터로 들어온 청소년들도 언제든지 놀이 장소를 노래방이나 PC방 등 유해환경들의 밀집 공간으로 이동할 여지가 많다. 결국 언제든지 이동하기 용이하고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들이 난립해 있는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9] 가출 시 숙식장소 1순위

	빈도	비율(%)
월세방	12	3.26
쉼터	76	20.65
친구집	138	37.50
선후배집	19	5.16
애인집	11	2.99
PC방	19	5.16
고시원	6	1.63
모텔 단기투숙	18	4.89
찜질방	15	4.08
길거리	8	2.17
놀이터	5	1.36
공원	6	1.63
아파트 옥상	7	1.90
낯선 사람집	4	1.09
기타	24	6.52
합계	368	100

[표 20] 가출 시 숙식장소 2순위

	빈도	비율(%)
월세방	14	4.27
썸터	26	7.93
친구집	57	17.38
선후배집	22	6.71
애인집	8	2.44
PC방	32	9.76
고시원	9	2.74
모텔 단기투숙	35	10.67
짬질방	49	14.94
길거리	13	3.96
빈집	9	2.74
놀이터	6	1.83
공원	12	3.66
아파트 옥상	6	1.83
상가	6	1.83
기타	24	7.32
합계	328	100

설문 응답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표 21]와 같이 약 20%의 청소년들이 본인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 수치는 실제 일반 청소년들의 성매매 경험 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을 뿐더러 설문의 특성 상 설문 대상 청소년이 성매매 경험에 대하여 솔직히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위기 청소년들 중 5분의 1은 이미 성매매를 경험했으며 나머지 위기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청소년성매매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출 청소년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십대여성의 가출과 폭력피해’실태조사와 유사하다(변혜정, 2012).

[표 21] 성매매 경험 여부

	빈도	비율(%)
있음	78	20.47
없음	303	79.53
합계	381	100

한편 [표 22]는 설문 응답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형에 대한 내용이다.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복수응답을 포함해서 총 156건의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중 조건만남이 33.33%로 가장 보편적인 유형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어서 번개(19.87%), 노래방 도우미(14.74%), 보도방(14.10%)의 순으로 청소년성매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성매매 유형

	빈도	비율(%)
번개	31	19.87
조건만남	52	33.33
보도방	22	14.10
키스방	6	3.85
대딸방	3	1.92
티켓다방	3	1.92
노래방도우미	23	14.74
기타	16	10.26
합계	156	100

[표 23]은 성매매 장소에 대한 내용으로 모텔이 압도적으로 많은 전체의 65.79%를 차지해서 가장 일반적인 청소년성매매 장소였다. 그 밖에 노래방도 17.11%로 청소년성매매가 많이 발생했고 자동차가 6.58%로 그 뒤를 이었다. 결국 성매매의 주요 발생 공간은 모텔과 노래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청소년 유흥과 가출 등의 공간적 패턴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청소년성매매의 주 발생 공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가 역시 요구되는 것이다.

[표 23] 성매매 장소

	빈도	비율(%)
모텔	50	65.79
자동차	5	6.58
노래방	13	17.11
기타	8	10.53
합계	76	100

한편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매매 장소를 정하는 사람의 비율은 청소년 본인인 경우가 46.25%로 상대 파트너인 경우보다 더 높았다. 또한 자주 가는 성매매 장소가 있다는 응답이 35%에 이르는 것도 [표 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성매매 장소의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훨씬 익숙하고 편리한 공간적 특성을 이미 고려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결국 위기 청소년들의 일련의 활동들은 유흥, 비행, 탈선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매매의 발생은 공간적으로 이들 활동의 동선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표 24] 성매매 장소 선정자

	빈도	비율(%)
본인	37	46.25
상대방 남자	25	31.25
상대방 여자	2	2.50
기타	16	20.00
합계	80	100

[표 25] 자주 가는 성매매 장소 유무

	빈도	비율(%)
있음	28	35.00
없음	52	65.00
합계	80	100

마지막으로 설문에서 응답 청소년들에게 지난 1년 동안의 비행 경험을 물어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26]과 [표 27]와 같다. 먼저 비행 유형을 행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총 220

건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유형은 폭행은 37.27%였다. 이어서 뺨찌기가 31.82%로 역시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서 패싸움 18.18%, 약물경험 12.7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위기 청소년들의 비행의 일반적인 경향은 폭행과 뺨찌기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표 27]은 한 명이 복수의 비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 기준으로 유형을 살펴본 결과이다. 가장 많은 유형은 단지 뺨찌기 경험만 있는 것이 20.77%로 가장 많았고 단지 폭행 경험만 있는 것이 18.46%로 바로 그 뒤를 이었다. 폭행과 뺨찌기를 같이 한 경우도 15.38%에 이르러서 이들 3가지 유형들만 합쳐도 전체 위기 청소년 비행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였다.

[표 26] 비행 유형 (행위 기준)

	빈도	비율(%)
폭행	82	37.27
패싸움	40	18.18
뺨찌기	70	31.82
약물	28	12.73
합계	220	100

[표 27] 탈선 유형 (사람 기준)

	빈도	비율(%)
폭행 Only	24	18.46
패싸움 Only	4	3.08
뺨찌기 Only	27	20.77
약물 Only	11	8.46
폭행+패싸움	11	8.46
폭행+뺨찌기	20	15.38
폭행+약물	5	3.85
폭행+패싸움+뺨찌기	12	9.23
폭행+패싸움+약물	4	3.08
폭행+뺨찌기+약물	2	1.54
폭행+패싸움+뺨찌기+약물	4	3.08
패싸움+뺨찌기	4	3.08
패싸움+약물	1	0.77

	빈도	비율(%)
패싸움+뽕뜯기+약물	0	0.00
뽕뜯기+약물	1	0.77
합계	130	100

3) 사회 인구학적 요인별 각종 활동 현황

사회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설문대상 청소년들의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성별에 따른 노는 장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 < .05$). 남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PC방(49.54%)이며, 노래방(15.60%), 공원(4.59%), 술집(3.67%), 쉼터(3.6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노래방(32.31%)이며, 그 다음 순위는 PC방(19.49%), 놀이터(6.67%), 골목/길거리(5.1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놀이장소에 차이가 있었고, 성별에 따라 PC방과 노래방이외 노는 장소에 차이가 있었다.

[표 28] 성별에 따른 노는 장소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PC방	54	49.54	38	19.49
노래방	17	15.60	63	32.31
친구집	0	0	7	3.59
술집	4	3.67	8	4.10
놀이터	2	1.83	13	6.67
공원	5	4.59	8	4.10
학교	2	1.83	8	4.10
음식점	1	0.92	5	2.56
역부근	2	1.83	9	4.62
골목/길거리	1	0.92	10	5.13
쉼터	4	3.67	5	2.56
집	2	1.83	6	3.08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타	15	13.76	765	7.69
합계	109	100	195	100

 $X^2(df) = 45.86(12)***$
 $*p<.05$ $**p<.01$ $***p<.001$

[표 29]는 성별에 따른 가출 시 숙식장소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가출 시 숙식장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가출 시 남녀 모두 과거 가출했을 때 가장 선호했던 장소는 ‘친구/선후배/애인집’이며, 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성별에 따른 가출 시 숙식장소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월세방	6	5.50	6	2.64
쉼터	31	28.44	45	19.82
친구/선후배/애인집	41	37.61	126	55.51
PC방	9	8.26	10	4.41
고시원	4	3.67	2	0.88
모텔 단기투숙	6	5.50	12	5.29
찜질방	0	0	3	1.32
길거리/놀이터/공원	8	7.34	16	7.05
낯선사람집	2	1.83	3	1.32
기타	2	1.83	4	1.76
합계	109	100	227	100

 $X^2(df) = 15.57(9)$
 $*p<.05$ $**p<.01$ $***p<.001$

[표 30]은 학생여부에 따라 노는 장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5$). 다시 말하면, 노는 장소의 경우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과 학생이 아닌 경우 모두 가장 선호하는 노는 공간은 ‘PC방과 노래방’이었지만, 그 외 노는 공간의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술집이나 역부근’을,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놀이터, 공원, 골목/길거리’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위기청소년이라고 해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술집과 같은 유해업소에 덜 출입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잦은 결석 등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기청소년들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위기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보호하거나 학생신분을 유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위기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30] 학생여부 따른 노는 장소

	학생(학생+장기결석)		학생 아님(자퇴+퇴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PC방	42	25.61	48	35.56
노래방	40	24.39	38	28.15
친구집	5	3.05	2	1.48
술집	4	2.44	8	5.93
놀이터	9	5.49	6	4.44
공원	9	5.49	4	2.96
학교	10	6.10	0	0
음식점	3	1.83	3	2.22
역부근	4	2.44	7	5.19
골목/길거리	9	5.49	2	1.48
쉼터	5	3.05	3	2.22
집	4	2.44	4	2.96
기타	20	12.20	10	7.41
합계	164	100	135	100

$$X^2(df) = 22.09(12)^*$$

* $p < .05$ ** $p < .01$ *** $p < .001$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출 후 숙식장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p < .05$), 그 결과는 [표 31]과 같다. 학생신분과 관계없이 가출 후 숙식장소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표 31] 학생여부 따른 가출 후 숙식장소

	학생(학생+장기결석)		학생 아님(자퇴+퇴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월세방	3	1.68	8	5.37
침대	38	21.23	35	23.49
친구/선후배/애인집	94	52.51	72	48.32
PC방	9	5.03	9	6.04
고시원	1	0.56	4	2.68
모텔 단기투숙	8	4.47	10	6.71
찜질방	2	1.12	1	0.67
길거리/놀이터/공원	16	8.54	7	4.70
낯선사람집	4	2.23	1	0.67
기타	4	2.23	2	1.34
합계	179	100	149	100

X²(df) = 11.04(9)

*p<.05 **p<.01 ***p<.001

[표 32]는 현재 가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노는 장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p<.05). 가출 중인 경우나 가출 중이 아닌 경우 모두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PC방과 노래방'이었으며, 그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표 32] 현재가출여부에 따른 노는 장소

	가출 중		가출 중 아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PC방	36	30.00	55	30.1
노래방	31	25.83	49	26.8
친구집	3	2.53	4	2.2
술집	6	5.00	6	3.3
놀이터	3	2.5	12	6.6
공원	6	5.0	7	3.8
학교	3	2.5	7	3.8
음식점	2	1.7	4	2.2
역부근	4	3.3	7	3.8
골목/길거리	6	5.0	5	2.7

	가출 중		가출 중 아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쉼터	4	3.3	5	2.7
집	2	1.7	6	3.3
기타	14	11.7	14	8.7
합계	120	100	120	100
$X^2(df) = 6.22(12)$				

*p<.05 **p<.01 ***p<.001

[표 33]와 [표 34]은 연령¹⁴⁾에 따라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해 본 결과이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다시 말하면, 연령에 따라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 혹은 가출 시 숙식장소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표 33] 연령에 따른 노는 장소

	13세 이상 16세 이하		17세 이상 20세 이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PC방	27	35.1	63	28.0
노래방	16	20.8	64	28.4
친구집	3	3.9	4	1.8
술집	1	1.3	11	4.9
놀이터	5	6.5	9	4.0
공원	4	5.2	9	4.0
학교	5	6.5	5	2.2
음식점	1	1.3	5	2.2
역부근	4	5.2	7	3.1
골목/길거리	1	1.3	10	4.4
쉼터	2	2.6	7	3.1
집	2	2.6	6	2.7
기타	6	7.8	25	11.1
합계	77	100	225	100
$X^2(df) = 12.48(12)$				

*p<.05 **p<.01 ***p<.001

14) 한국사회의 학제를 기준으로 두고 16세(중학교 3학년)를 기준으로 '13세 이상에서 16세 이하'와 '17세 이상 20세 이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학생이하와 고등학생이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표 34] 연령에 따른 가출 시 숙식장소

	13세 이상 16세 이하		17세 이상 20세 이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월세방	0	0	12	4.7
쉼터	17	21.8	59	23.0
친구/선후배/애인집	36	46.2	130	50.6
PC방	4	5.1	15	5.8
고시원	2	2.6	4	1.6
모텔 단기투숙	4	5.1	14	5.4
찜질방	0	0	3	1.2
길거리/놀이터/공원	11	14.1	13	5.1
낯선사람집	2	2.6	3	1.2
기타	2	2.6	4	1.6
합계	78	100	257	100

X²(df) = 13.18(9)

*p<.05 **p<.01 ***p<.001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가출 후 숙식 장소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표 35]와 같았다. 저연령층(13세 이상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가출 후 숙식 장소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고연령층(17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들에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가출 후 숙식 장소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연령층(13세 이상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친구/애인/선후배집과 같은 친밀한 사람들의 집을 가출 후 숙식 장소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가출 후 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연령층(17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가출 후 숙식 장소에 차이가 없었다.

[표 35]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가출 시 숙식장소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3세이상 -16세이하	쉼터	8	44.44	9	15.00
	친구/선후 배/애인집	3	16.67	33	55.00
	PC방	1	5.56	3	5.00
	고시원	1	5.56	1	1.67
	모텔 단기투숙	2	11.11	2	3.33
	길거리/놀 이터/공원	1	5.56	10	16.67
	낯선사람집	1	5.56	1	1.67
	기타	1	5.56	1	1.67
	합계	8	100	60	100
$X^2(df) = 15.220(7) *$					
17세이상- 20세이하	월세방	6	6.67	6	3.61
	쉼터	23	25.56	36	21.67
	친구/선후 배/애인집	37	41.11	92	55.42
	PC방	8	8.89	7	4.22
	고시원	3	3.33	1	0.60
	모텔 단기투숙	4	4.44	10	6.02
	찜질방	0	0	3	1.81
	길거리/놀 이터/공원	7	7.78	6	3.61
	낯선사람집	1	1.11	2	1.20
	기타	1	1.11	3	1.81
	합계	90	100	166	100
$X^2(df) = 12.940(9)$					

*p<.05 **p<.01 ***p<.001

4) 사회 인구학적 요인별 성매매활동 현황

사회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설문대상 청소년들의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성별에 따른 성매매 경험 여부를 교차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 < .05$). 성매매 경험은 여자청소년이 25.98%로 남자청소년의 9.52%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주로 청소년성매매의 표적이 여자청소년들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일부 남자청소년들도 성매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다. 유지웅(2012)은 최근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남성과 여자청소년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남자청소년과 여자성인, 드물게는 남자청소년과 남자성인사이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성매매의 개념을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정의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정혜원(2011a)연구에서도 성매매피해자로서 남자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 36] 성별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12	9.52	66	25.98
없음	114	90.48	188	74.02
합계	126	100	254	100

 $X^2(df) = 13.98(1)***$
 $*p < .05$ $**p < .01$ $***p < .001$

학생여부에 성매매경험 여부에 차이가 있는 지 교차분석 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학생인 경우에는 성매매경험이 14.69%로 학생이 아닌 경우 28.13%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제도에서 멀어질 경우 성매매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일 수도 있고, 학교라는 제도가 위기청소년에게 또 하나의 보호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 밖 위기청소년과 학교 내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체계 및 서비스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7] 학교여부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

	학생		학생아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31	14.69	45	28.13
없음	180	85.31	115	71.88
합계	211	100	160	100
X ² (df) =1.08(1)**				

*p<.05 **p<.01 ***p<.001

현재 가출여부와 연령에 따라 성매매 경험 여부를 교차분석 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p<.05). 가출여부와 연령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표 38] 현재가출여부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

	가출 중		가출 중 아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37	22.8	40	18.5
없음	125	77.2	176	81.5
합계	162	100	216	100
X ² (df) =1.06(1)				

*p<.05 **p<.01 ***p<.001

[표 39] 연령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

	13세 이상 16세 이하		17세 이상 20세 이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15	16.5	62	21.6
없음	76	83.5	225	78.4
합계	91	100	287	100
X ² (df) =1.11(1)				

*p<.05 **p<.01 ***p<.001

[표 40]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성매매경험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저연령층(13세 이상 16세이하)이나 고연령층(17세이상 20세이하) 모두 성별에 따라 성매매경험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5$). 저연령층이나 고연령층의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성매매경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성매매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연령과 성별에 따른 성매매경험여부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3세이상 -16세이하	성매매 경험 있음	1	4.17	14	20.90
	성매매 경험없음	23	75.83	53	79.10
	합계	24	100	67	100
	$X^2(df) = 3.59(1) *$				
17세이상- 20세이하	성매매 경험 있음	11	11.00	51	27.42
	성매매 경험없음	89	89.00	135	72.58
	합계	100	100	186	100
	$X^2(df) = 10.32(1) **$				

* $p < .05$ ** $p < .01$ *** $p < .001$

2. 공간자료 분석1: 수도권 전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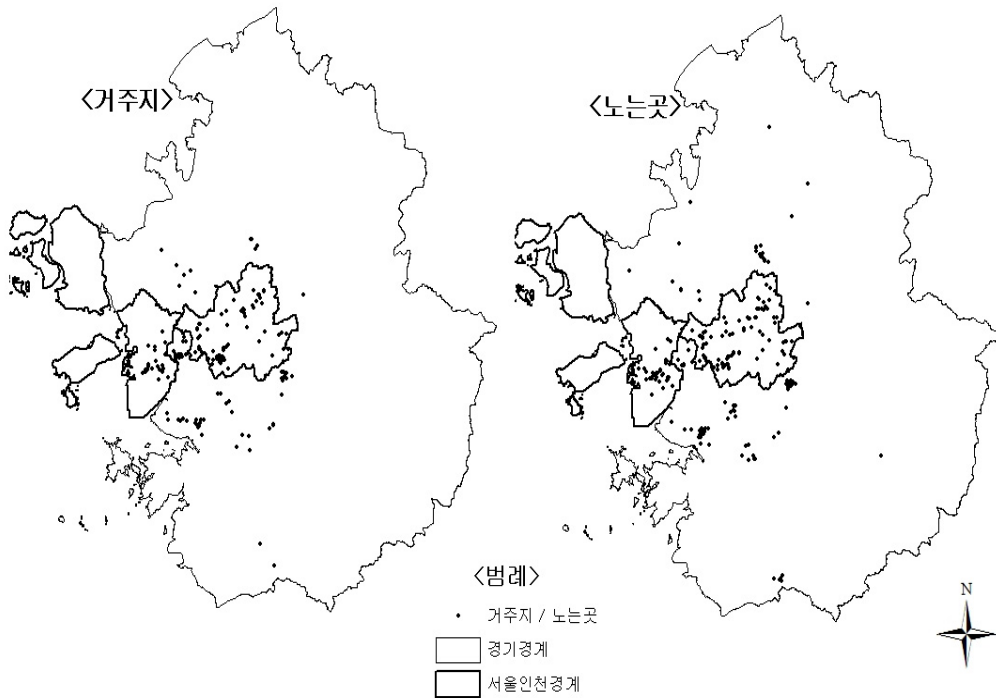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른 청소년성매매 자료는 많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는다. 우선 실제 공권력에 의해서 범죄가 포착되어서 범죄자의 검거에까지 이르는 숫자는 실제 범죄가 발생하는 정도를 정확히 측정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곧 사실 대부분의 범죄통계가 갖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범죄 검거건수나 검거인원에 기초한 공식통계는 다분히 청소년성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중앙 혹은 지역 경찰당국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매우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소위 특정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는 동일 수준의 범

죄규모에 대해서 매우 다른 성과물을 낳게 되며 이는 곧 지역별 공식통계의 변이(variation)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공식통계를 보완하여 실제 범죄현상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성매매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반영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성매매와 비행의 공간패턴에 대한 설문조사는 공식통계는 물론 다른 청소년성매매 자료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지리적 공간 단위에서 펼쳐지는 범죄 양상에 초점을 맞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위 점(point) 사상 자료로 수집된 공간자료들을 ArcGIS의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지도그리기를 통한 주요 변수들의 시각화

이 연구는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먹고 자는 거주공간과 즐기고 노는 장소에 대한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17]은 청소년들의 거주지 및 노는 곳이 수도권 지역에서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단 거주지는 대부분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노는 장소도 거주지의 분포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균집정도가 다소 떨어졌고 서울 내부는 물론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아도 상대적으로 분포가 퍼졌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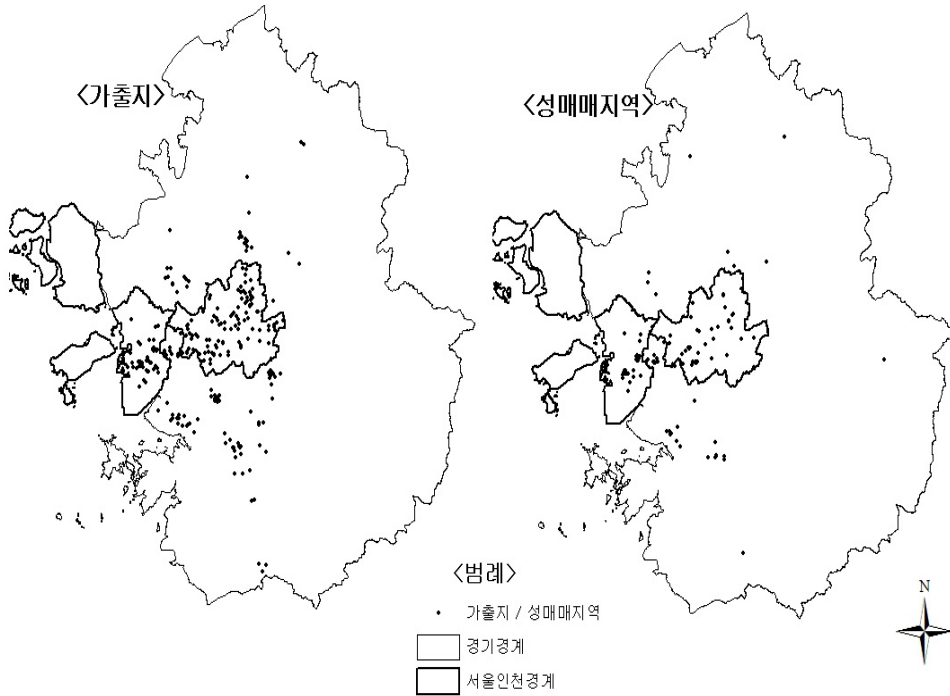
조사 청소년들의 거주 및 놀이 공간패턴



[그림 17]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거주 및 놀이 공간분포

이어지는 [그림 18]은 조사 청소년들의 가출 및 성매매가 수도권 지역에서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출 시 숙식장소는 먼저 살펴본 거주 장소나 노는 장소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군집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의 가출의 공간적 패턴은 특정 도시의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정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패턴은 앞의 변수들에 비해서 사례가 적은편이라서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서울과 인천 지역에 집중되는 공간적 패턴은 다른 변수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 청소년들의 가출 및 성매매범죄 공간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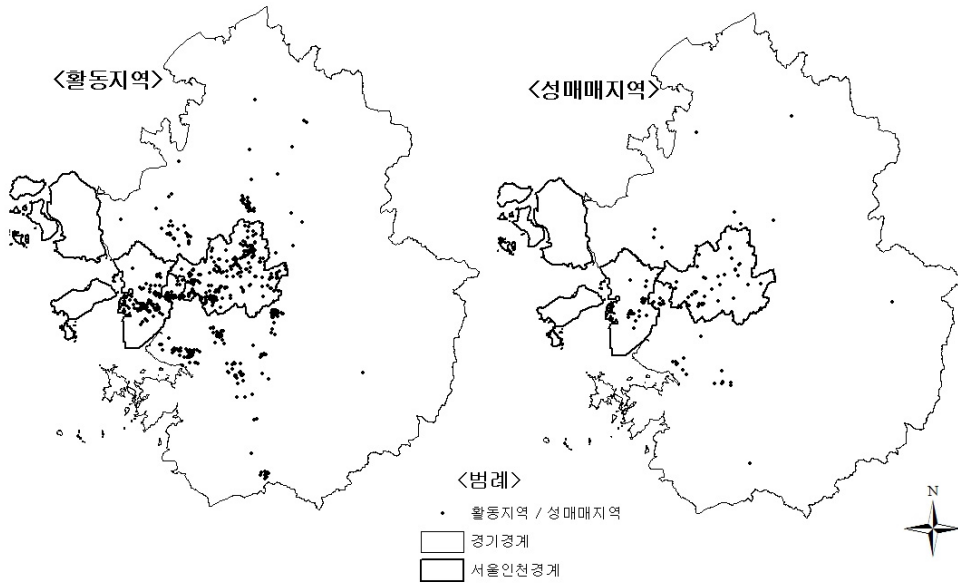
[그림 18]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가출¹⁵⁾ 및 성매매 공간분포

이어지는 [그림 19]는 앞에서 살펴본 조사 청소년들의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등을 모두 포함하여 활동지역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고 이를 청소년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비교한 것이다. 우선 청소년 활동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권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지역에 고르게 분포했다기 보다는 특정 소지역에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패턴은 이미 살펴본 청소년성매매의 공간 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즉 위기 청소년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일련의 활동이 성매매의 공간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도권 전역에 걸친 전역적 패턴을 살펴보

15) '가출 시 숙식장소'의 경우, 글자 수가 많아서 그림으로 구성할 경우 그림 내부에 글자가 전부 수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출지 혹은 가출장소로 축약하여 작성하였다.

는 것은 성매매가 지난 공간적 역동성을 충분히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소지역별 범죄의 공간적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조사 청소년들의 활동지역 및 성매매범죄 공간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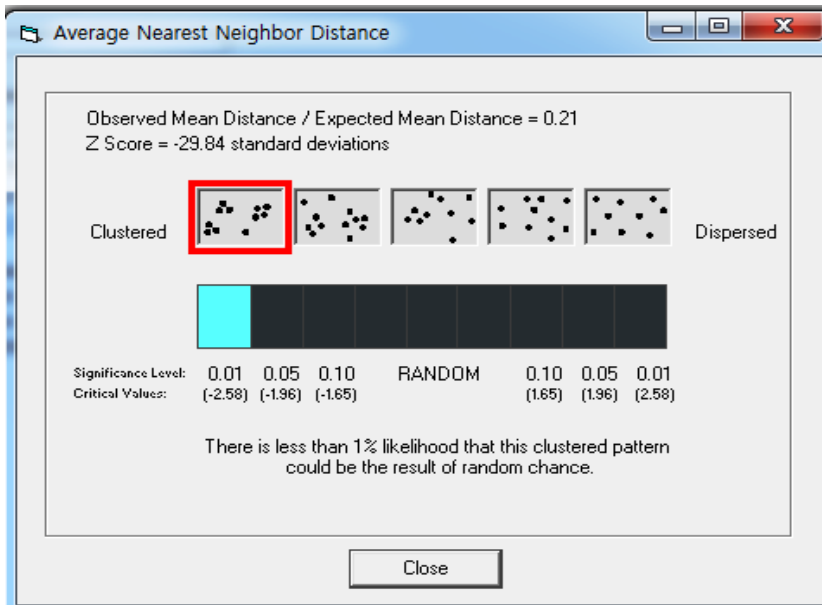
[그림 19]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활동지역 및 성매매 장소 공간분포

2) 청소년성매매 및 주요 활동변수들의 군집패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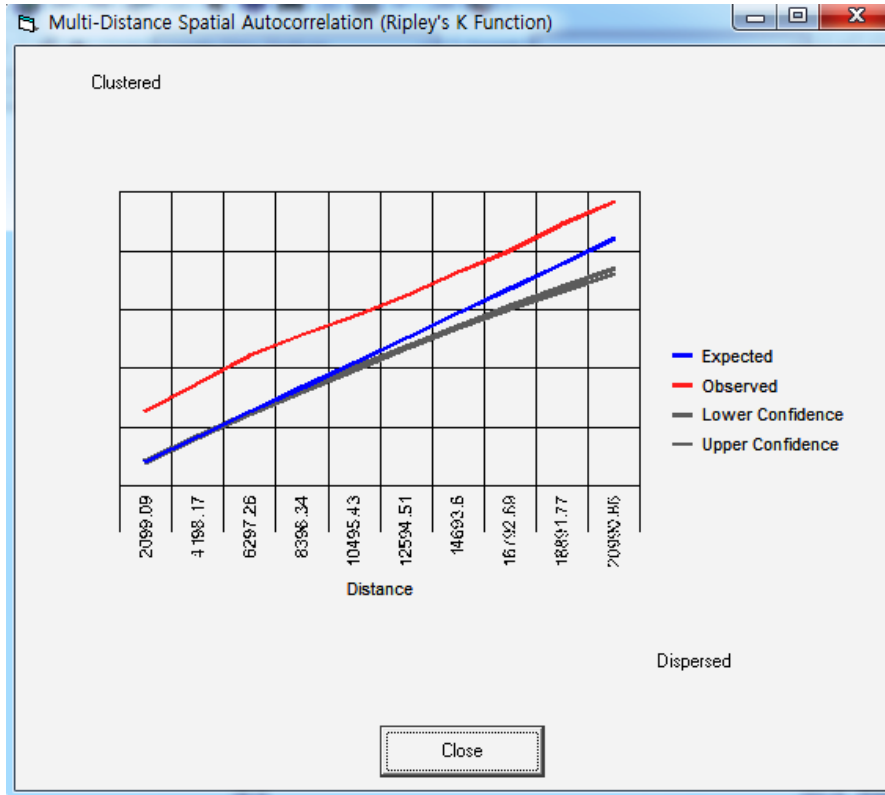
과연 청소년성매매의 장소를 점(point) 사상으로 구현한 공간자료에서는 다양한 점패턴 분석을 통하여 특정 변수의 군집 패턴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이 연구는 평균최근린(Average nearest neighbor) 분석을 통해서 모든 점 사상에서 가장 근접한 이웃까지의 평균 거리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점 패턴이 군집되어 있는지 확산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어서 Ripley의 K함수(K function)을 이용하여 역시 지리적 사상들에 대한 군집과 확산 여부를 평가할 것이다.

아래 [그림 20]은 설문조사 청소년 주거지 변수에 대한 평균 최근린 분석의 결과를

ArcGIS 소프트웨어의 공간통계도구에서 패턴분석의 아웃풋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군집 패턴이 순수하게 무작위 확률의 결과일 확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서 설문조사에 응한 위기 청소년들의 주거 장소는 공간적 군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변수의 군집성을 재차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21]은 다중 거리 공간 군집분석 (multi-distance spatial cluster analysis)이라고도 하는 K함수 분석을 시도하였다. K 함수의 결과는 선 그래프의 모양을 보여준다. 이때 만약 점 사상들이 연구 지역(study area) 안에서 임의적으로 분포될 면(randomly distributed) K함수 선은 예상패턴(expected pattern)이라는 진단선(diagonal line)과 같은 모양이 된다. 만약 관측선(observed line)이 진단선 위로 지나가게 되면 공간 패턴은 우리가 무작위 패턴에서 기대하는 거리 정도보다 더 군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 그 반대로 진단선 아래로 지나가게 되면 공간 패턴은 무작위 패턴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확산된다고 판단한다. 분석 결과는 관측선이 진단선 위로 지나가고 있어서 조사 청소년들의 주거지가 공간적으로 군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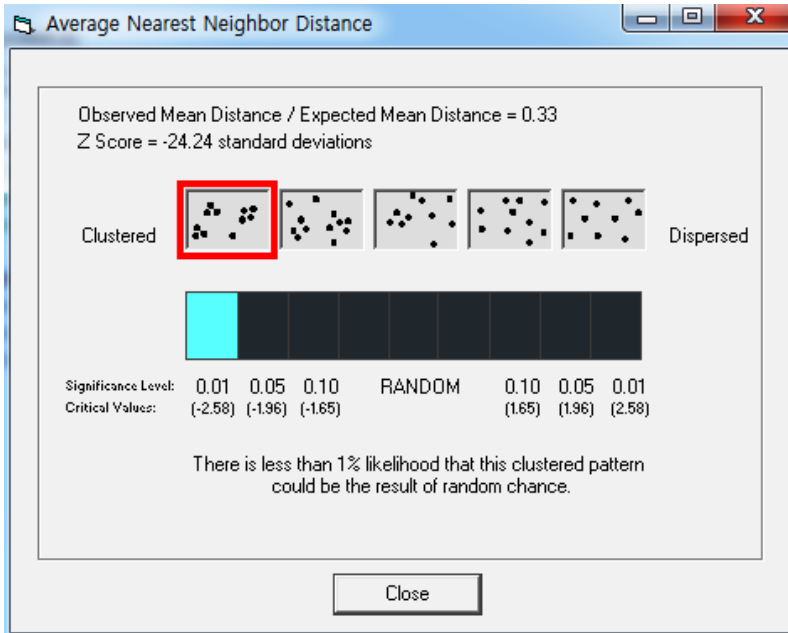


[그림 20] 설문조사 청소년 주거지 변수의 평균 최근린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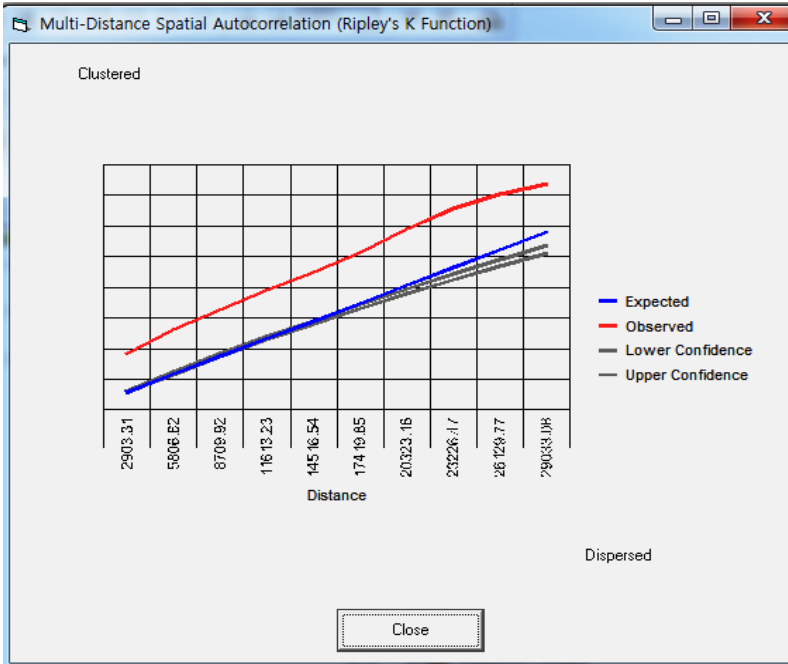


[그림 21] 설문조사 청소년 주거지 변수의 다중 거리 공간 군집분석(K-function)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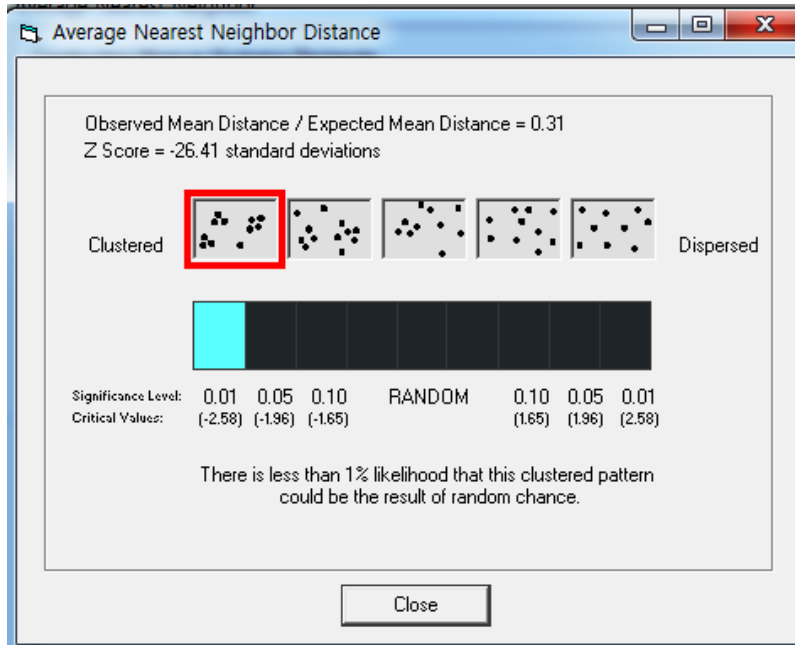
앞의 청소년들의 주거지에 대한 두 가지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래 [그림 22]에서 [그림 27]까지 조사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 장소 변수들에 대한 평균 최근린 분석과 다중 거리 공간 군집분석(multi-distance spatial cluster analysis)을 각각 시도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들에 대하여 두 가지 분석 모두 군집성을 확인하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평균 최근린 분석에서는 군집 패턴이 순수하게 무작위 확률의 결과일 확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서 설문조사에 응한 위기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 장소는 모두 공간적 군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함수 분석 결과도 모든 분석에서 관측선이 진단선 위로 지나가고 있어서 조사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 장소가 공간적으로 군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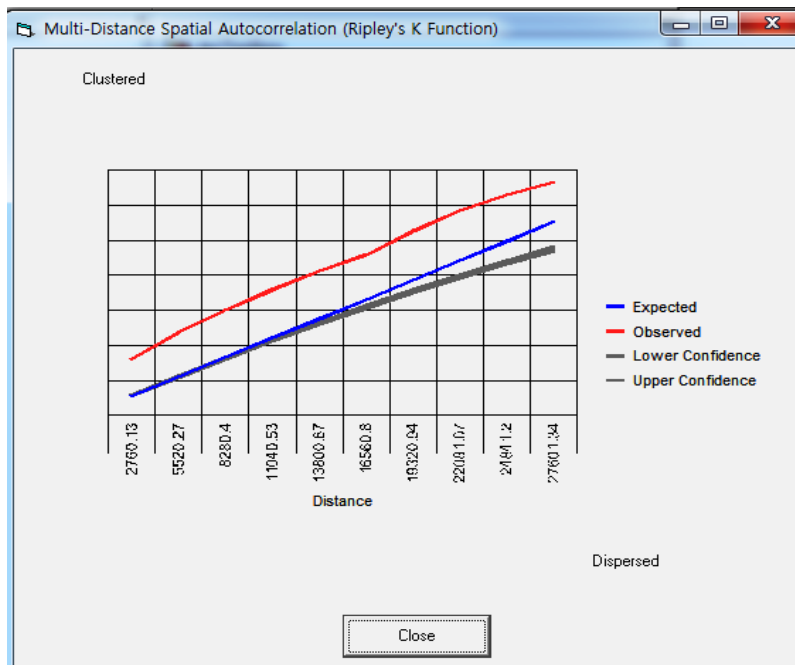
[그림 22] 설문조사 청소년 노는 장소 변수의 평균 최근린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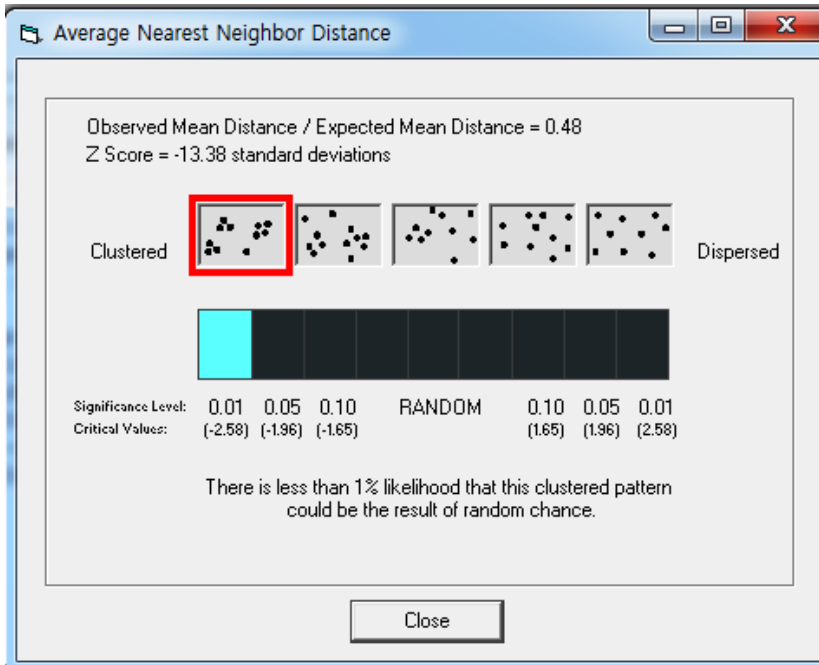
[그림 23] 설문조사 청소년 노는 장소 변수의 다중 거리 공간 군집분석(K-function)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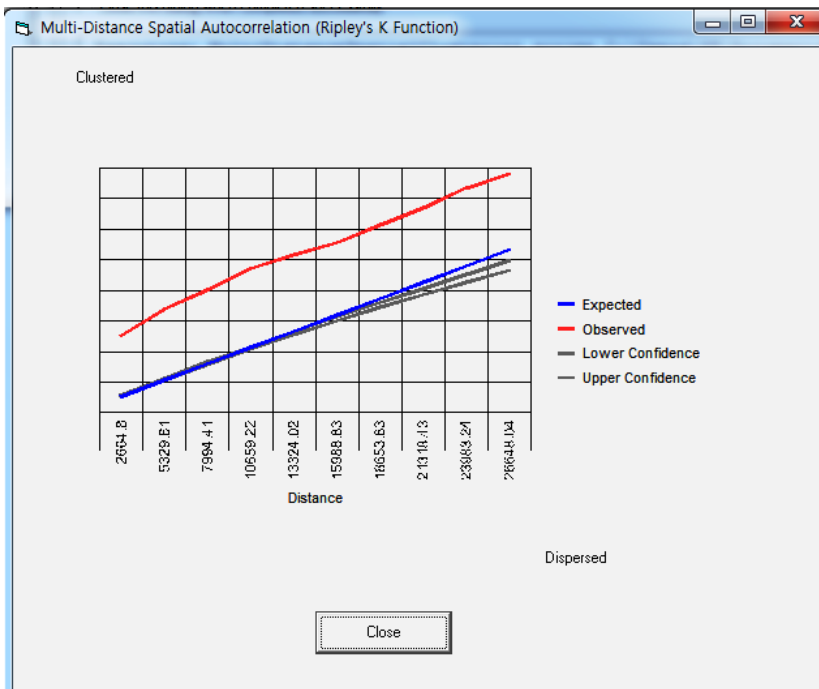
[그림 24] 설문조사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 변수의 평균 최근린 분석 결과



[그림 25] 설문조사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 변수의 다중 거리 공간 군집분석(K-function) 결과



[그림 26] 설문조사 청소년성매매 장소 변수의 평균 최근린 분석 결과



[그림 27] 설문조사 청소년성매매 장소 변수의 다중 거리 공간 군집분석(K-function) 결과

3. 공간자료 분석2: 서울 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패턴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구 지역의 범위를 좁혀서 미시적 수준으로 구체적인 공간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서 조사한 다양한 전역지수들을 통해서 청소년성매매의 군집성으로 대표되는 공간적 특성이 존재를 확인했고 시각화된 지도를 통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권에 집중적으로 성매매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아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의 범위를 서울 지역으로 좁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미시적 공간분석을 실행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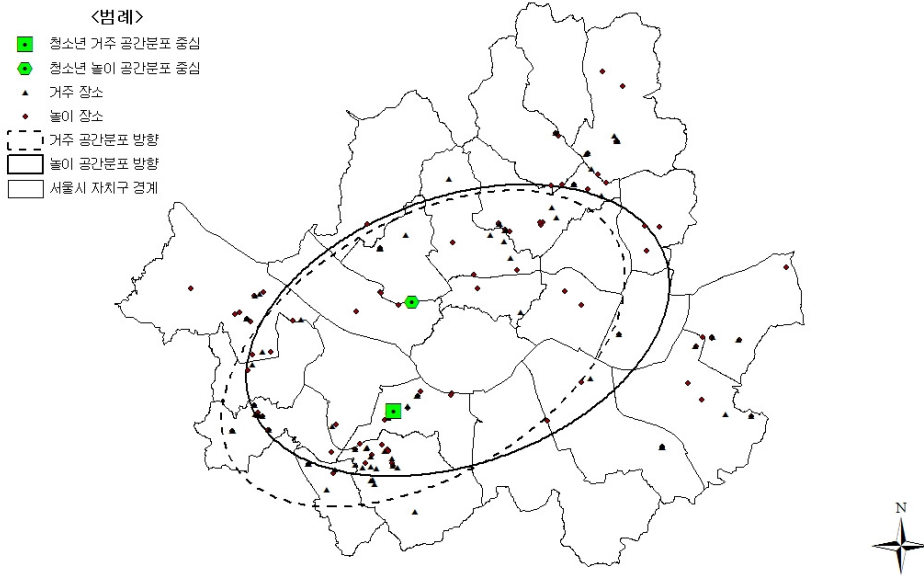
1) 중심점과 방향성에 기초한 주요 변수들의 지리적 분포패턴 측정

중심 사상(central feature)은 연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점 사상들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 사상을 보여준다. 즉 특정한 공간적 변인의 지리적 중심을 의미한다. 또한 방향적 분포(directional distribution)는 관심 있는 점 사상들이 지리적인 중심을 기준으로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또한 사상들이 방향성을 띤 분포 경향을 보여주는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방향적 분포는 기술적으로 표준편차적 타원(standard deviational ellipse)을 이용하여 공간적 확산과 정향(orientat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 [그림 28]는 조사 청소년들의 서울시 영역 안에서 거주 장소 및 노는 장소의 공간분포를 중심 사상과 방향적 분포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청소년 거주지 변수의 공간분포의 중심은 서울시의 남서부권에 다소 치우쳐서 위치해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주 장소가 균형 있게 퍼져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노는 장소 변수의 공간분포의 중심은 약간 서쪽으로 치우쳤지만 비교적 서울시 공간적 중심에 가깝게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거주지에 비해서는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는 좀 더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변수의 공간분포의 방향성의 경향을 보여주는 두 가지 타원은 비교적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먼저 거주지 공간분포의 방향은 확연히 서남부 거주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상향으로 비스듬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는 장소의 공간분포의 방향도 거주 공간분포 방향에 비해서는 다소 기울기가 작아졌지

만 서남부권역에서 완곡하게 북동쪽을 향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 이처럼 조사 청소년들의 거주 장소와 노는 공간 모두 비슷한 공간분포의 중심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청소년 거주 및 놀이 공간분포 중심과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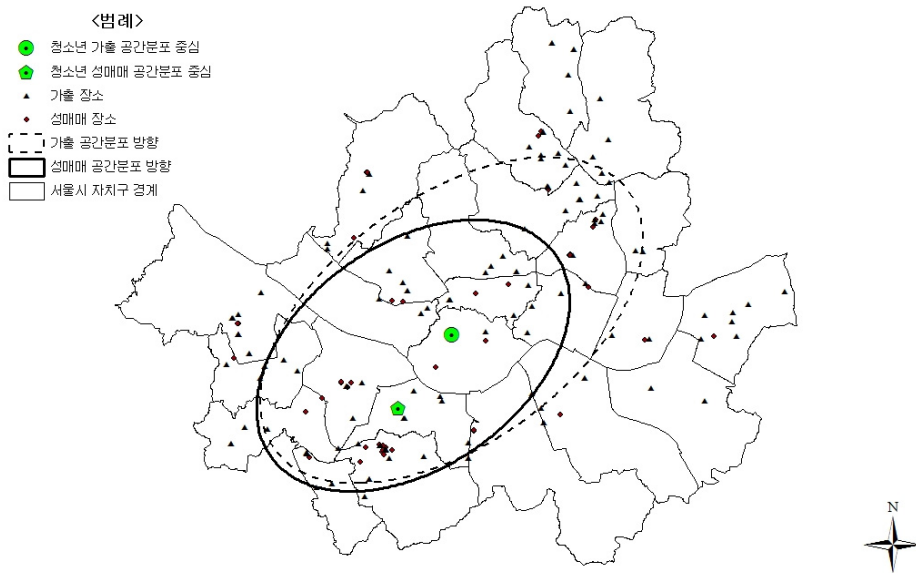


[그림 28] 조사 청소년들의 서울 지역 내 거주 및 노는 공간분포 중심과 방향

이어지는 [그림 29]는 조사 청소년들의 서울시 영역 안에서 가출 시 숙식장소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분포를 중심 사상과 방향적 분포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 변수의 공간분포의 중심은 거의 서울시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출 시 숙식장소가 동서남북 균형 있게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성매매 장소 변수의 공간분포의 중심은 확연히 서울시의 남서부권에 치우쳐서 위치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성매매 장소가 전 지역에 걸쳐서 균형 있게 퍼져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거주지나 성매매 등에 비해서는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와 가출 시 숙식장소가 공간적으로 좀 더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주

지와 성매매의 공간분포의 중심이 매우 근접해있다는 점도 흥미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출과 성매매 변수의 공간분포의 방향성의 경향을 보여주는 두 가지 타원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먼저 가출 시 숙식장소 공간분포의 방향은 확연히 서남부 거주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상향으로 약 45도 각도로 길게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의 공간분포의 방향도 거의 비슷한 서남부권역에서 북동쪽을 향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 이처럼 조사 청소년들의 가출 시 숙식장소와 성매매의 공간분포는 거주 장소와 노는 장소의 공간분포와 비교해서도 매우 유사한 중심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범죄 공간분포 중심과 방향



[그림 29] 조사 청소년들의 서울 지역 내 가출 및 성매매 공간분포 중심과 방향

2) 주요 교통망에 기초한 버퍼존을 이용한 주요 변수들의 공간적 특성

다른 범죄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성매매의 경우도 공간적 특성을 지닌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특히 서울시는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청소년들이 손쉽게 다양한 범죄관련 유해환경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통망과 공간적으로 근접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각종 유해환경들은 조성되기 십상이며 따라서 교통망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청소년성매매 발생의 공간적 집중이 예상된다. 서울시의 두 가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지하철 중에서 많은 인구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용하고 역사의 위치나 규모가 인근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하철망을 중심으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특히 ArcGIS가 제공하는 버퍼존(buffer zone) 분석은 특정 공간적 단위를 중심으로 완충지역을 설정하여 관심 있는 다른 공간적 변인들이 얼마나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아래 [그림 30]은 서울시 지하철 선로(subway lines)와 위기 청소년 거주지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버퍼존 지도이다. 이 지도를 통해서 생성된 지하철 선로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거주 공간이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해볼 수 있다. 서울지역 내에 설문 조사 위기청소년들의 거주 공간으로 확인된 총 138개 중에서 버퍼존안에 76개 거주 공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위기청소년 거주 공간의 절반이 넘는 약 55%에 이르는 수치이다.

서울시 지하철 선로와 비행 청소년 거주지의 버퍼존 지도



[그림 30] 서울시 지하철 선로와 비행 청소년 거주지의 공간 분포

[그림 31]은 선로가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 역사(subway stations)와 위기 청소년 거주지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버퍼존 지도이다. 역시 유사하게 생성된 지하철 역사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거주 공간이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해볼 수 있다. 서울지역 내에 설문조사 위기청소년들의 거주 공간으로 확인된 총 138개 중에서 버퍼존안에 44개 거주 공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위기청소년 거주 공간의 약 3분의 1가량 되는 32%에 이르는 수치이다.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비행 청소년 거주지의 버퍼존 지도



[그림 31]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비행 청소년 거주지의 공간 분포

이어지는 [그림 32]과 [그림 33]은 서울시 지하철 교통망과 위기 청소년 노는 지역 간의 관련성을 앞서와 유사하게 선로와 역사를 중심으로 생성시킨 버퍼존을 이용해 분석하고 있다. 먼저 [그림 32]에서는 생성된 지하철 선로 500미터내 버퍼존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노는 공간이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했고 그 결과 서울지역 내에 설문조사 위기청소년들의 노는 공간으로 확인된 총 121개 중에서 버퍼존안에 81개 거주 공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기청소년 노는 공간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약 67%에 이르는 수치이다. 또한 [그림 33]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거주 공간이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서울지역 내에 설문조사 위기청소년들의 노는 공간으로 확인된 총 121개 중에서 버퍼존안에 64개 거주 공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위기청소년 거주 공간의 절반이 좀 넘는 53%에 이르는 수치이다.

서울시 지하철 선로와 비행 청소년 노는지역의 버퍼존 지도



[그림 32] 서울시 지하철 선로와 비행 청소년 놀이의 공간 분포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비행 청소년 노는지역의 버퍼존 지도



[그림 33]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비행 청소년 놀이의 공간 분포

[그림 34]와 [그림 35]는 서울시 지하철 교통망과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 사이의 관련성을 앞서와 유사하게 선로와 역사를 중심으로 생성시킨 버퍼존을 이용해 분석하고 있다. 먼저 [그림 34]에서는 생성된 지하철 선로 500미터내 버퍼존 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들이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했고 그 결과 서울지역 내에 설문조사 위기청소년들의 가출 시 숙식장소로 확인된 총 155개 중에서 버퍼존안에 무려 132개 가출 시 숙식장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위기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의 무려 85%에 이르는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35]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들이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서울지역 내에 설문조사 위기청소년들의 가출 시 숙식장소로 확인된 총 155개 중에서 버퍼존 안에 130개 가출 시 숙식장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먼저 살펴보았던 선로와 비슷하게 84%에 이르는 위기청소년들의 가출 시 숙식장소가 지하철 역사와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 선로와 비행 청소년 가출지역의 버퍼존 지도



[그림 34] 서울시 지하철 선로와 비행 청소년 가출의 공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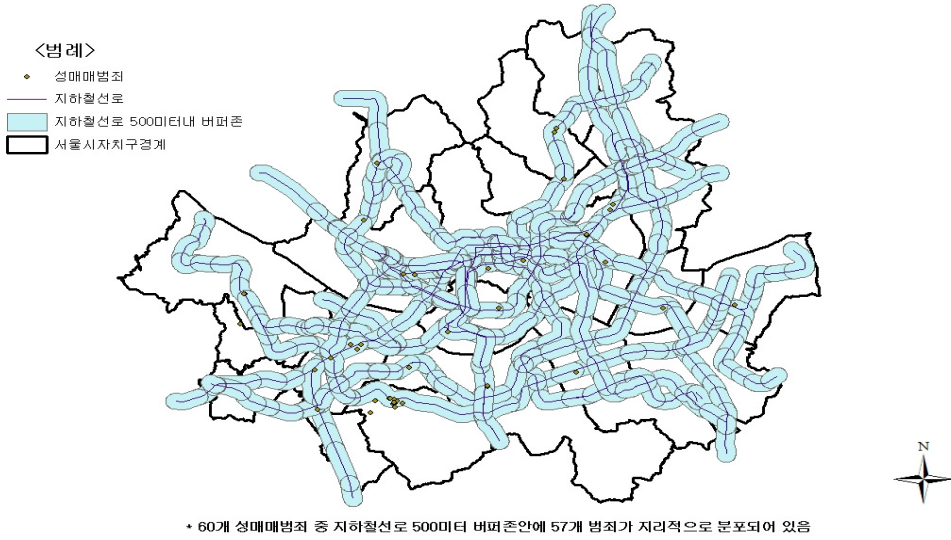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비행 청소년 가출지역의 버퍼존 지도



[그림 35]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비행 청소년 가출의 공간 분포

마지막으로 [그림 36]과 [그림 37]은 서울시 지하철 교통망과 위기 청소년성매매 장소 사이의 관련성을 앞서와 유사하게 선로와 역사를 중심으로 생성시킨 버퍼존을 이용해 분석하고 있다. 먼저 [그림 36]에서는 생성된 지하철 선로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성매매 장소들이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했고 그 결과 서울지역 내에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성매매 장소로 확인된 총 60개 중에서 버퍼존안에 무려 57개 가출 시 숙식장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청소년성매매 장소의 무려 95%에 이르는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37]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성매매 장소들이 포함되어있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서울지역 내에 설문조사 위기청소년들의 성매매 장소로 확인된 총 60개 중에서 버퍼존안에 54개 가출 시 숙식장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려 90%에 이르는 청소년성매매 장소가 지하철 역사와 공간적으로 근접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하철 노선과 성매매범죄의 버퍼존 지도



[그림 36] 서울시 지하철 선로와 청소년성매매의 공간 분포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성매매범죄의 버퍼존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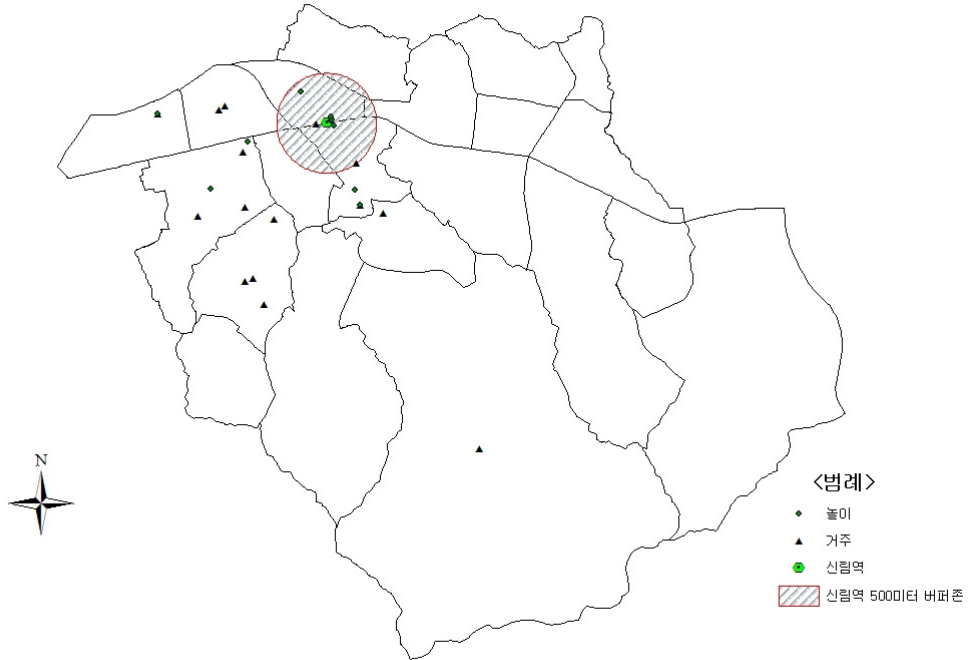
[그림 37]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청소년성매매의 공간 분포

3) 청소년성매매 다발 자치구에 대한 미시적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서울시 안에서 발생한 성매매의 총 수는 60건이다. 이들 중 가장 성매매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무려 19건이 확인된 관악구였으며 이어서 6건의 영등포구, 4건의 동대문구의 순서였다. 이번 섹션에서는 이들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성매매 다발 자치구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지역 내 대표적 교통망인 주요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아래 [그림 38]은 서울시 관악구 지역의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신림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 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태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15개 중에서 1개가 노는 장소는 10개 중에서 5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는 장소는 비교적 신림역 주변으로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거주 장소는 공간적 군집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 의 경우 친구집이나 선후배집 혹은 쉼터 등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공간적 패턴이 노는 장소의 경우 선호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 유흥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의 공간적 패턴과 다른 데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울 관악구 지역 위기청소년 거주/놀이 장소와 신림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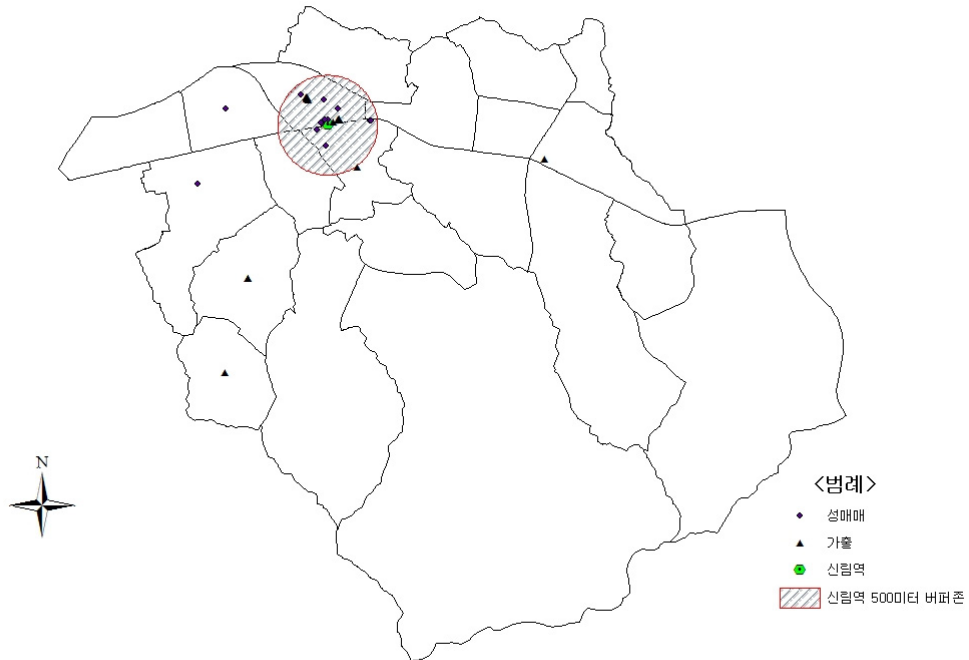


* 서울 관악구 지역의 15개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중 1개가, 10개 놀이 장소 중에서 5개가 각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38] 서울 관악구 청소년 거주/노는 장소와 신림역 버퍼존 분포

이어지는 [그림 39]는 서울시 관악구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신림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25개 중에서 19개가, 성매매 장소는 19개 중에서 무려 16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시 숙식장소와 성매매 장소가 모두 신림역 주변에 공간적으로 상당히 군집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들과 성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신림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관악구 지역 위기청소년 가출/성매매 장소와 신림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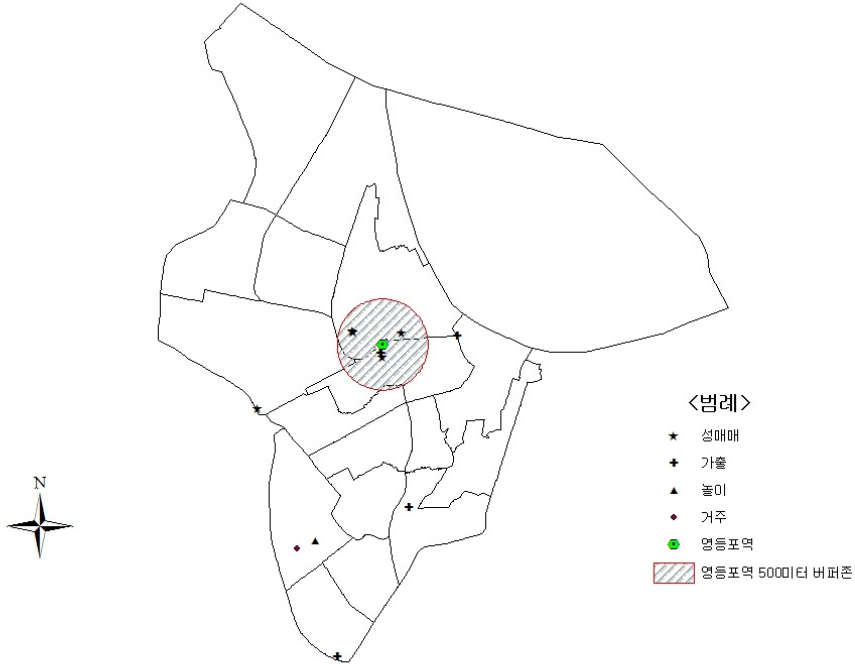


* 서울 관악구 지역의 25개 위기 청소년 가출 장소중 19개가, 19개 성매매 장소 중에서 16개가 각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39] 서울 관악구 청소년 가출/성매매 장소와 신림역 버퍼존 분포

[그림 40]은 서울시에서 성매매가 설문조사에서 비교적 많이 확인된 또 다른 자치구인 영등포구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지역 내 대표적인 지하철역사인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6개 중에서 3개가 성매매 장소는 6개 중에서 5개 모두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출 시 숙식장소와 성매매 장소가 모두 두 역 주변에 공간적으로 상당히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종 청소년 유희환경들과 성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영등포구 지역 위기청소년 활동/성매매 장소와 영등포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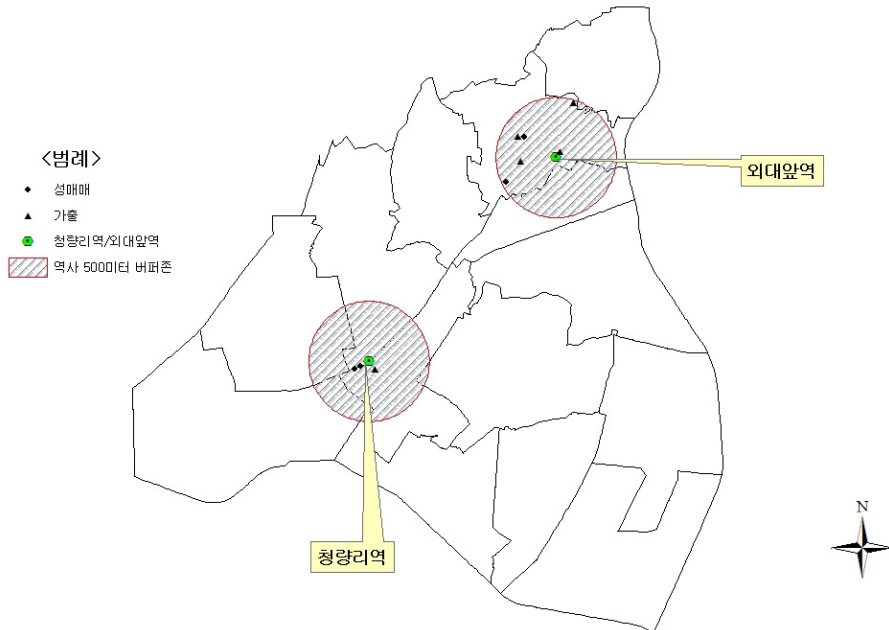


*서울 영등포구 지역의 6개 위기 청소년 가출 장소중 3개가, 6개 성매매 장소 중에서 5개가 각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40] 서울 영등포구 청소년 활동/성매매 장소와 영등포역 버퍼존 분포

이어지는 [그림 41]은 앞의 관악구 및 영등포구 사례와 유사하게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지역 내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청량리역과 외대앞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5개 중에서 5개가 성매매 장소는 4개 중에서 4개 모두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출 시 숙식장소와 성매매 장소가 모두 두 역 주변에 공간적으로 완벽하게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들과 성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청량리역과 외대앞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동대문구 지역 위기청소년 가출/성매매 장소와 청량리/외대앞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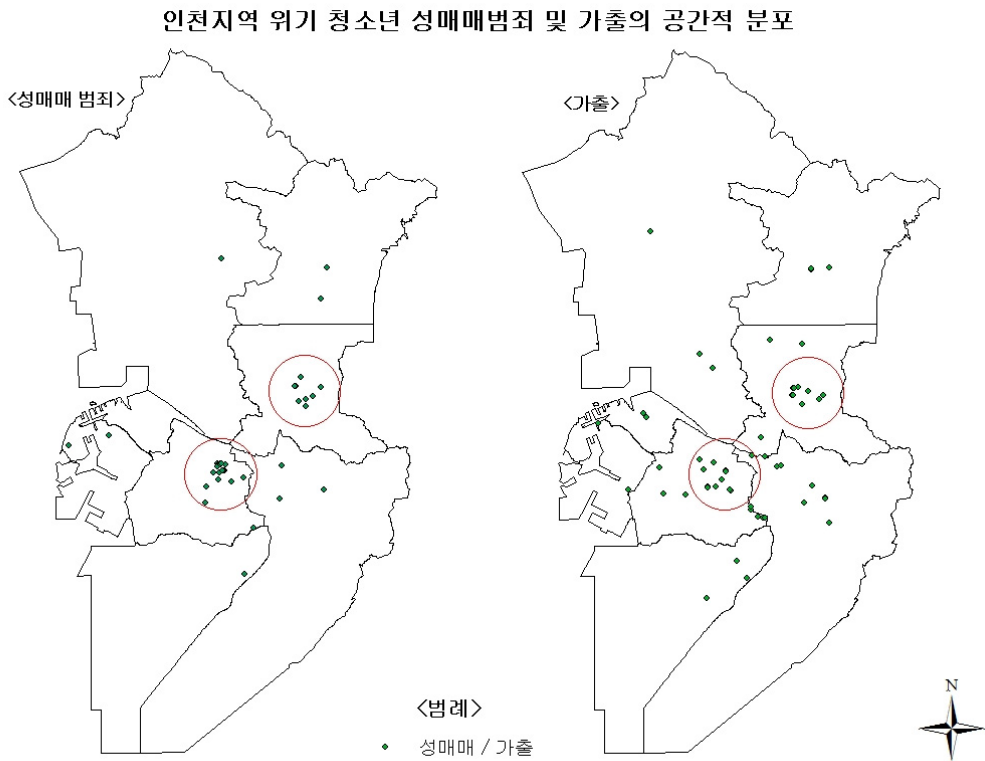
*서울 동대문구 지역의 5개 위기 청소년 가출 장소중 5개가, 4개 성매매 장소 중에서 4개가 각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41] 서울 동대문구 청소년 가출/성매매 장소와 주요 역사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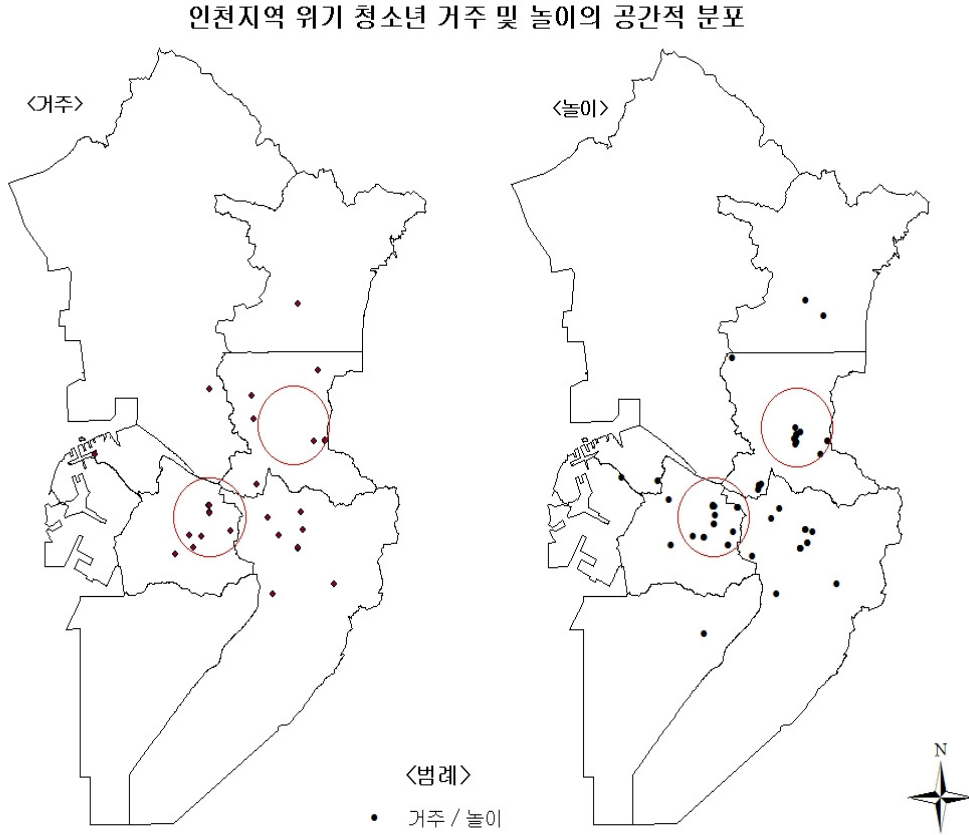
4. 공간자료 분석3: 인천 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천광역시 안에서 발생한 성매매의 총 수는 55건이다. 이들 중 가장 성매매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무려 32건이 확인된 남구와 13건이 발생한 부평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년성매매 다발 자치구들 모두 지역 내 대표적 교통망인 주요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의 활동 및 성매매의 공간적 군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와 [그림 43]은 인천지역 위기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과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의 경우 남구와 부평구 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전체 영역에서도 붉은 원으로 표시된 특정 공간에 범죄의 공간적 군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출 시 숙식장소의 경우도 성매매

만큼은 아니지만 동일한 지역에서의 공간적 군집이 상당한 수준에서 확인되고 있다. 노는 공간의 경우는 먼저 살펴본 성매매나 가출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군집지역이 발견되고 있는데 반해서 거주 공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분포가 흩어져 있다. 이러한 특성은 거주 공간의 경우 친구집이나 선후배집 혹은 쉼터 등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공간적 패턴이 비교적 분산될 가능성이 높는데 반해서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혹은 비행 및 범죄 장소의 경우 선호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 유흥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 지리적으로 특정 공간에 군집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 분석을 위해서 남구와 부평구를 중심으로 세부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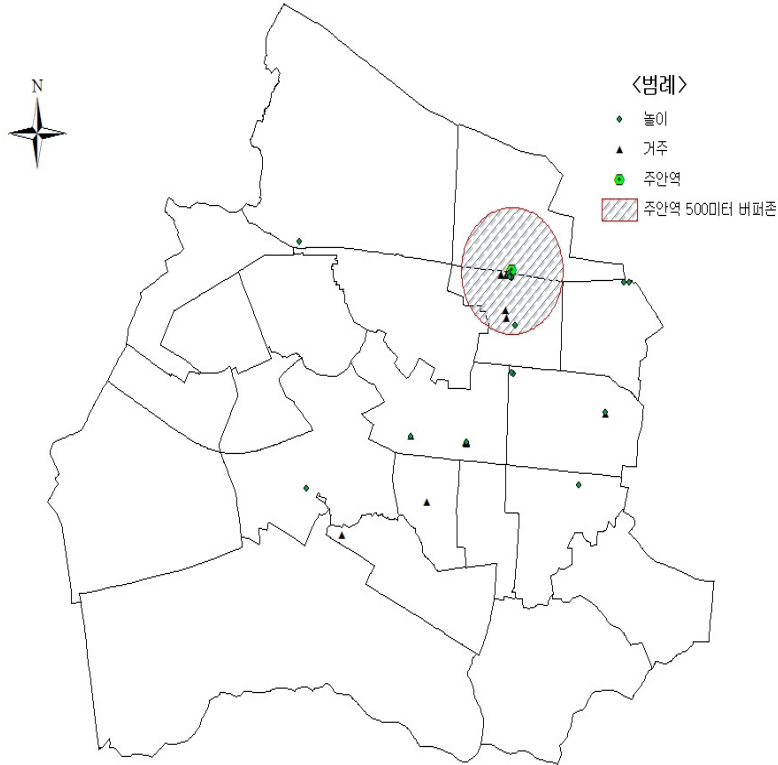
[그림 42] 인천 지역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의 공간적 분포



[그림 43] 인천 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놀이의 공간적 분포

먼저 아래 [그림 44]는 인천시 남구 지역의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주안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태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23개 중에서 6개가 노는 장소는 25개 중에서 12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는 장소는 어느 정도 주안역 주변으로 공간적으로 균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해서 거주 장소는 공간적 균집성이 그다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 경우 친구집이나 선후배집 혹은 쉼터 등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공간적 패턴이 노는 장소의 경우 선호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 유희 및 유희업소 밀집 지역의 공간적 패턴과 다른데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천 남구 위기청소년 거주/놀이 장소와 주안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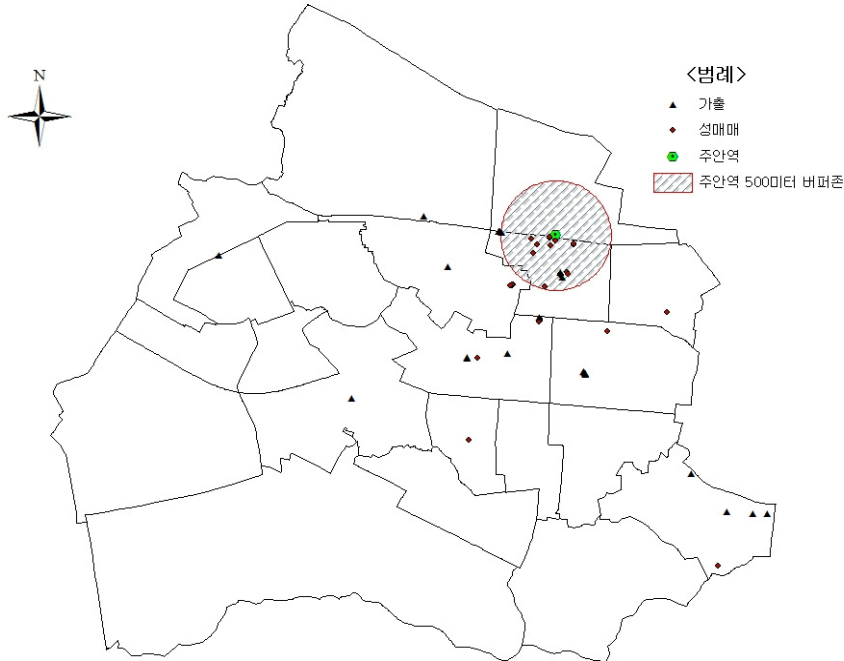


• 인천 남구의 23개 위기 청소년 거주지 중에서 6개가, 25개 위기 청소년 놀이 장소 중에서 12개가 각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44] 인천 남구 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놀이 장소와 주안역 버퍼존 분포

이어지는 [그림 45]는 인천시 남구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주안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28개 중에서 4개가 성매매 장소는 32개 중에서 무려 19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구의 경우 가출 시 숙식장소는 주안역 주변에 공간적으로 균집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매매 장소는 주안역 주변에 공간적으로 상당히 균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들과 성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주안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인천 남구 위기청소년 가출/성매매 장소와 주안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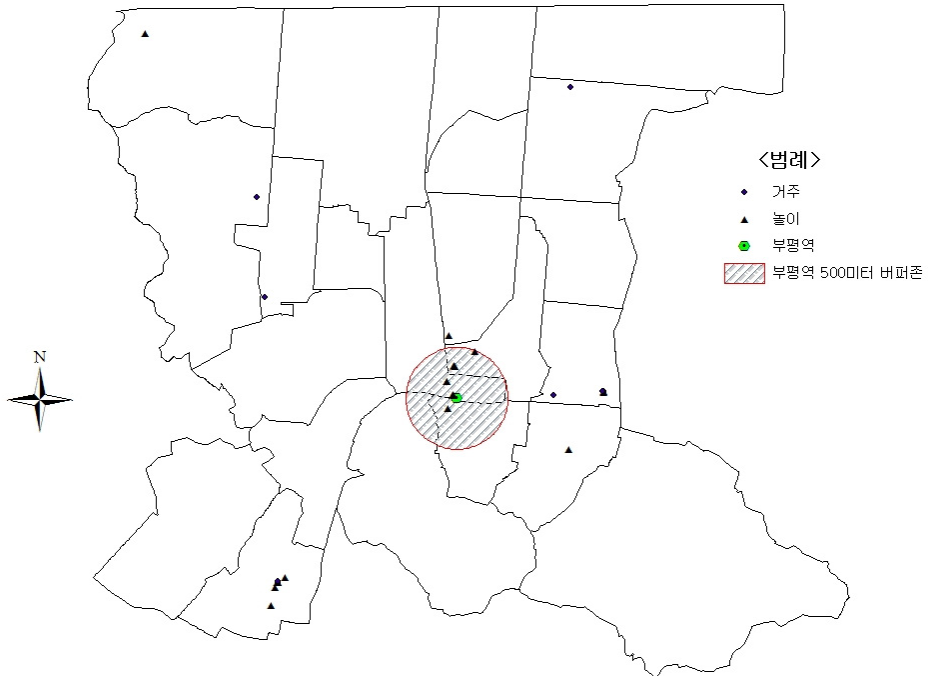


* 인천 남구의 28개 위기 청소년 가출 장소 중에서 4개가, 32개 청소년 성매매 장소 중에서 19개가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45] 인천 남구 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주안역 버퍼존 분포

인천 부평구를 보여주는 [그림 46]은 앞에서 살펴본 남구의 사례와 유사하게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부평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태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21개 중에서 0개가 노는 장소는 20개 중에서 9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는 장소는 어느 정도 부평역 주변으로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거주 장소는 공간적 군집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 의 경우 친구집이나 선후배집 혹은 쉼터 등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공간적 패턴이 노는 장소의 경우 선호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 유흥 및 유흥업소 밀집 지역의 공간적 패턴과 다른데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천 부평구 위기청소년 거주/놀이 장소와 부평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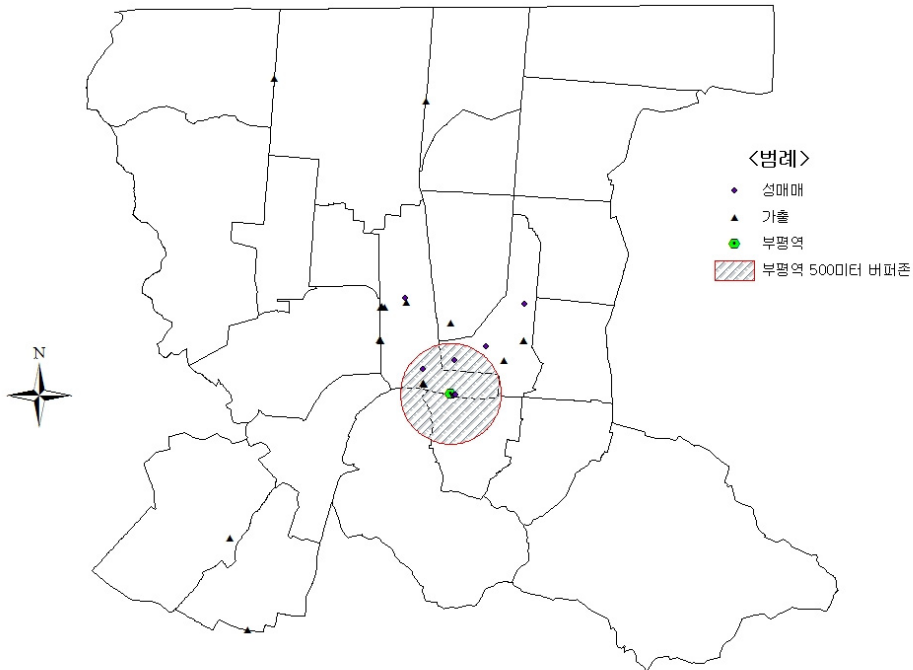


* 인천 부평구의 21개 위기 청소년 거주지 중 0개가, 20개 위기 청소년 놀이 장소 중에서 9개가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46] 인천 부평구 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부평역 버퍼존 분포

[그림 47]은 인천시 부평구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부평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21개 중에서 4개가 성매매 장소는 13개 중에서 8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부평구의 경우 가출 시 숙식장소는 부평역 주변에 공간적으로 균 집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매매 장소는 부평역 주변에 공간적으로 상당히 균 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들과 성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부평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인천 부평구 위기청소년 가출/성매매 장소와 부평역 버퍼존 분포



* 인천 부평구의 21개 위기 청소년 가출 장소중 4개가, 13개 청소년 성매매 장소 중에서 8개가 각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47] 인천 부평구 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부평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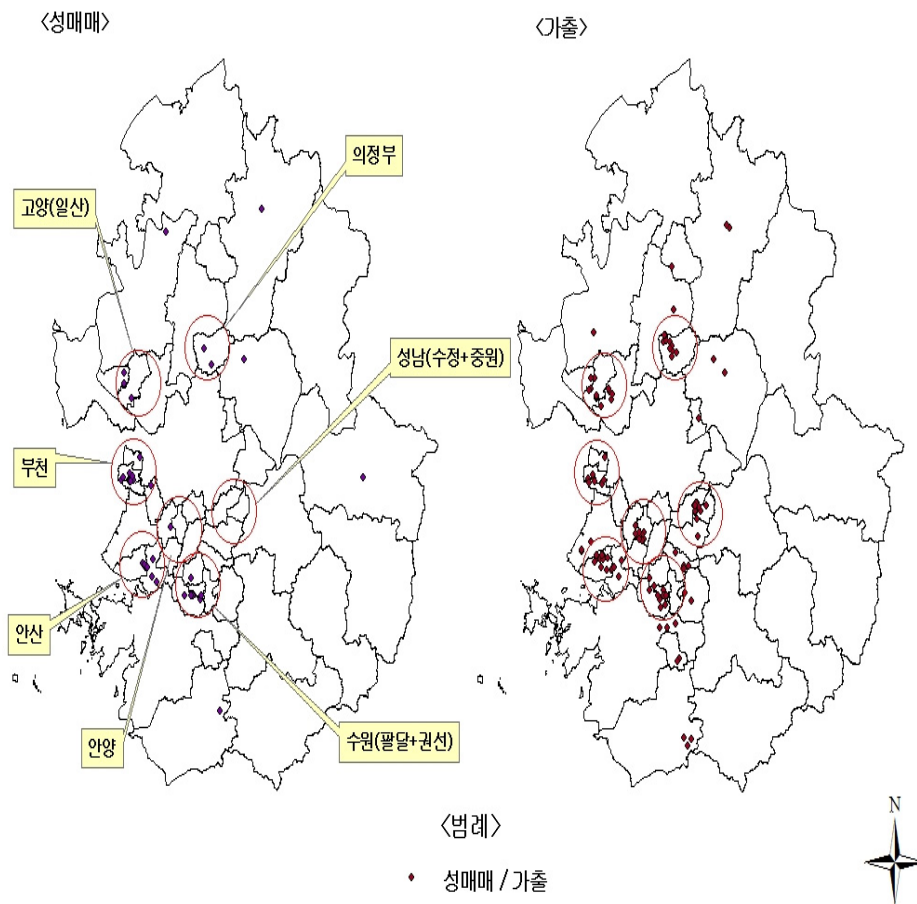
5. 공간자료 분석4: 경기 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기도 안에서 발생한 성매매의 총 수는 63건이다. 이들 중 가장 성매매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16건이 확인된 부천시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원시(팔달+권선) 14건, 고양시(일산서+일산동) 11건, 안산시(단원+상록) 10건의 순서였다. 이들 청소년성매매 다발 자치구들 모두 지역 내 대표적 교통망인 주요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의 활동 및 성매매의 공간적 군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8]과 [그림 49]은 경기지역 위기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과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의 경우 경기 서부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고양 일산, 부천, 안산, 수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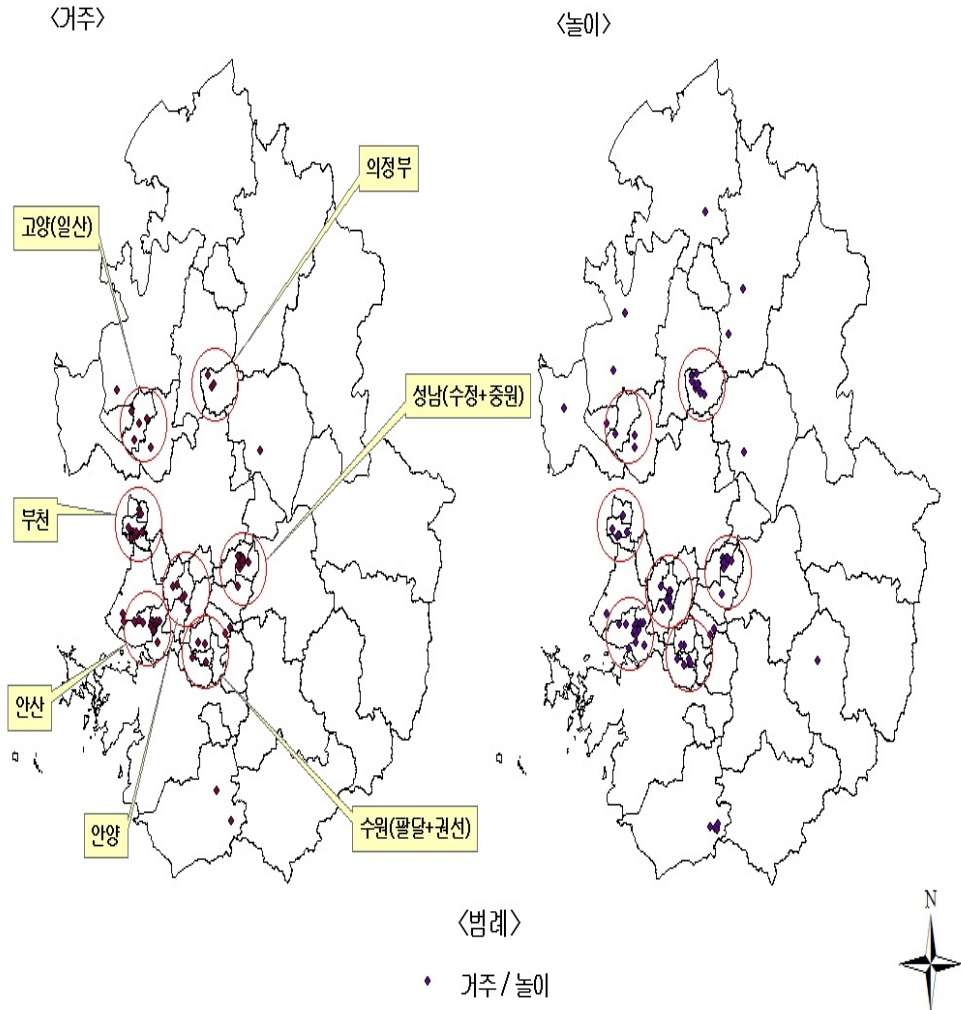
해당 지역의 전체 영역에서도 특정 공간에 범죄의 공간적 군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출 시 숙식장소의 경우도 성매매와 유사하게 상기 성매매 다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간적 군집이 상당한 수준에서 확인되고 있다. 거주 및 노는 공간의 경우도 앞에서 언급한 성매매 다발 지역들과 함께 의정부, 안양, 성남 등 군집지역들이 발견되고 있다. 전체 경기도 지도를 통해서서는 미시적인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보다 미시적 분석을 위해서 청소년 활동 및 성매매 다발 도시 사례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경기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공간적 분포



[그림 48] 경기 지역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의 공간적 분포

경기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놀이의 공간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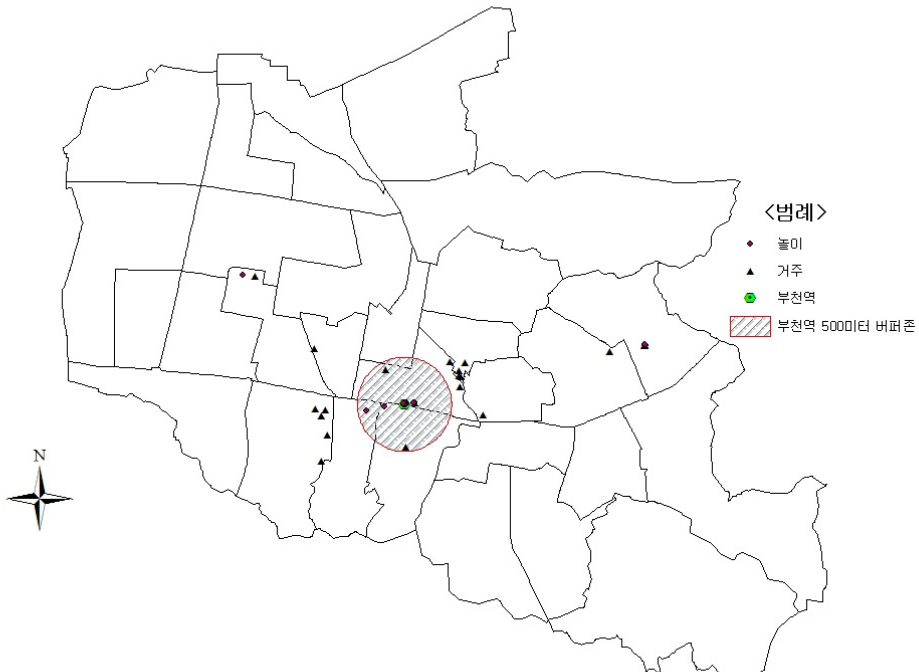


[그림 49] 경기 지역 청소년 거주 및 놀이의 공간적 분포

먼저 [그림 50]은 경기 부천시시의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부천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23개 중에서 3개가 노는 장소는 30개 중에서 무려 26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노는 장소의 경우 부평역 주변으로 매우 높은 공간적 군집현상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거주 장소는 공간적 군집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 의 경우 친구집이나 선후배집 혹은 쉼터 등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경향 때문에 공간적 패턴이 분산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반해서 노는 장소의 경우 선호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 유흥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 역 주변 지역에 공간적으로 군집되는 패턴이 나타나는데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기 부천시 위기청소년 거주/놀이 장소와 부천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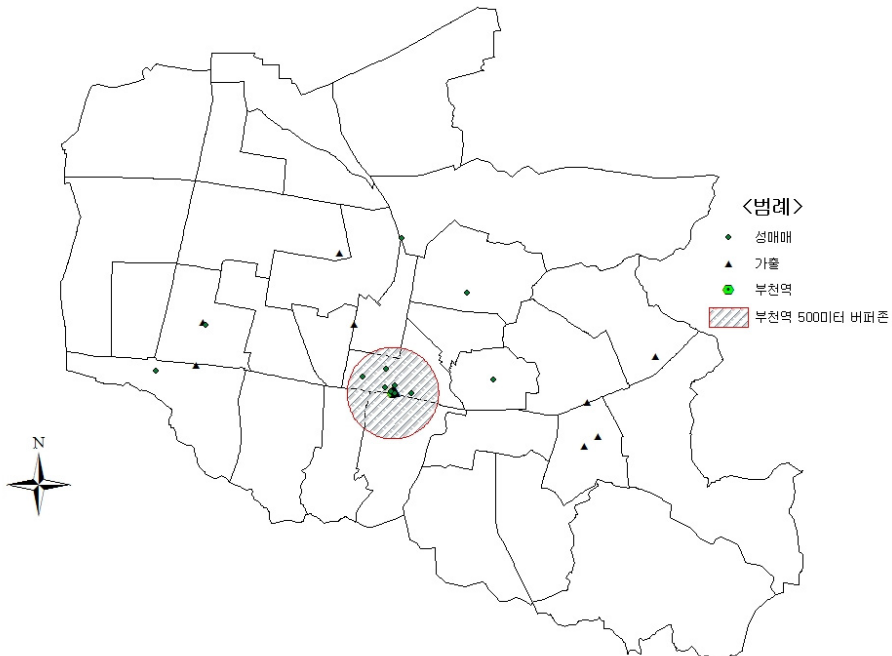
• 경기 부천시의 23개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중 3개가, 30개 놀이 장소 중에서 26개가 각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50] 경기 부천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부천역 버퍼존 분포

[그림 51]은 경기 부천시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부천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22개 중에서 14개가 성매매 장소는 16개 중에서 10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 부천시외의 경우 가출 시 숙식장소는 부천역 주변에 공간적으로 비교적 균집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성매매 장소는 부천역 주변에 공간적으로 상당히 균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들과 성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부천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 부천시 위기청소년 가출/성매매 장소와 부천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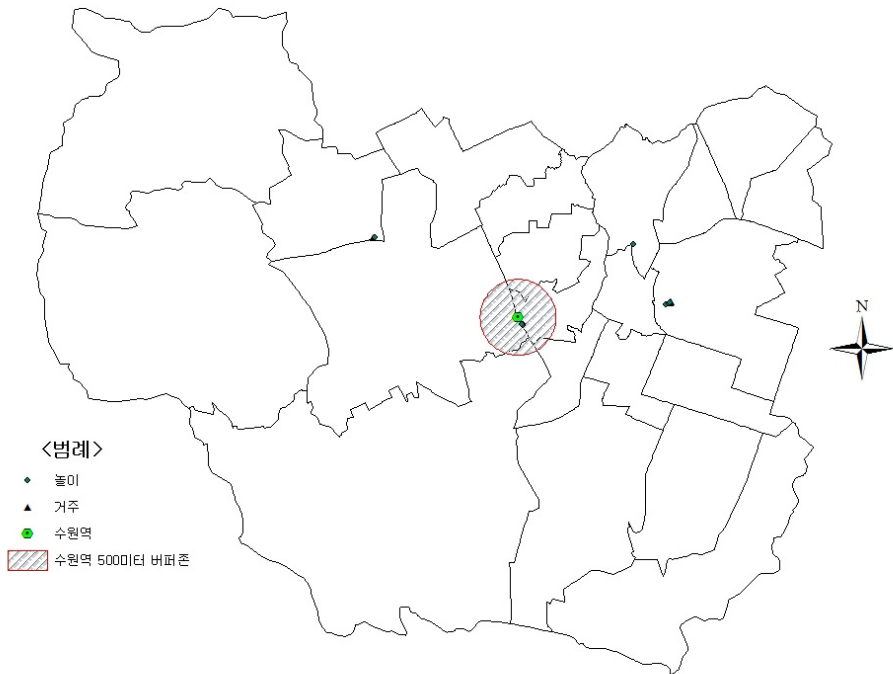
* 경기 부천시의 22개 위기 청소년 가출 장소중 14개가, 16개 성매매 장소 중에서 10개가 각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51] 경기 부천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부천역 버퍼존 분포

[그림 52]는 경기 수원시의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수원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8개 중에서 0개가 노는 장소는 9개 중에서 3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는 장소의 경우 수원역 주변으로 아주 약하게 공간적 균집현상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반해

서 거주 장소는 공간적 군집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 의 경우 친구 집이나 선후배집 혹은 쉼터 등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경향 때문에 공간적 패턴이 분산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반해서 노는 장소의 경우 선호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 유흥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 역 주변 지역에 공간적으로 군집되는 패턴이 나타나는데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기 수원시(팔달+권선) 위기청소년 거주/놀이 장소와 수원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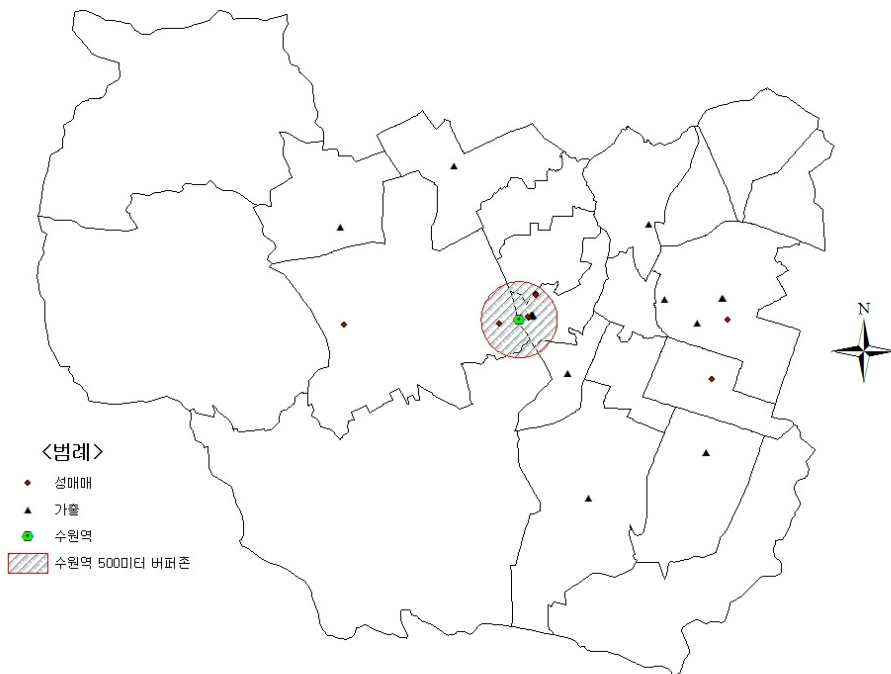
* 경기 수원시(팔달+권선)의 8개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중 0개가, 9개 놀이 장소 중에서 3개가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52] 경기 수원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수원역 버퍼존 분포

이어지는 [그림 53]는 경기 수원시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수원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태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22개 중에서 10개가 성매매 장소는 14개 중에서 10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 수원시의 경우 가출 시 숙식장소는 수원역 주

변에 공간적으로 비교적 근접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성매매 장소는 수원역 주변에 공간적으로 상당히 근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 중 청소년 유해환경들과 성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수원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 수원시(팔달+권선) 위기청소년 가출/성매매 장소와 수원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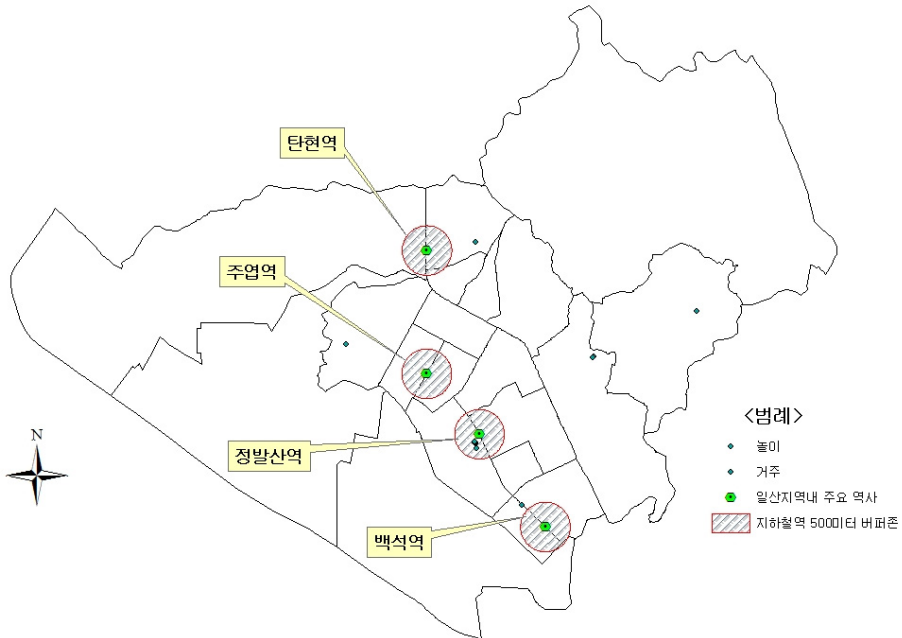
• 경기 수원시(팔달+권선)의 22개 위기 청소년 가출 장소중 10개가, 14개 성매매 장소 중에서 10개가 각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53] 경기 수원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수원역 버퍼존 분포

[그림 54]은 경기 고양시의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지역 내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탄현, 주엽, 정발산, 백석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19개 중에서 0개가 노는 장소는 14개 중에서 13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는 장소의 경우 역사들 주변으로 아주 높은 공간적 근접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거주 장소는 공간적 근접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의 경우 친구집이나 선후배집 혹은 쉼터 등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경향 때문에 공간적 패턴이 분산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반해서 노는 장소의 경우 선호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 유흥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 역 주변 지역에 공간적으로 군집되는 패턴이 나타나는데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지역 위기청소년 거주/놀이 장소와 주요 역사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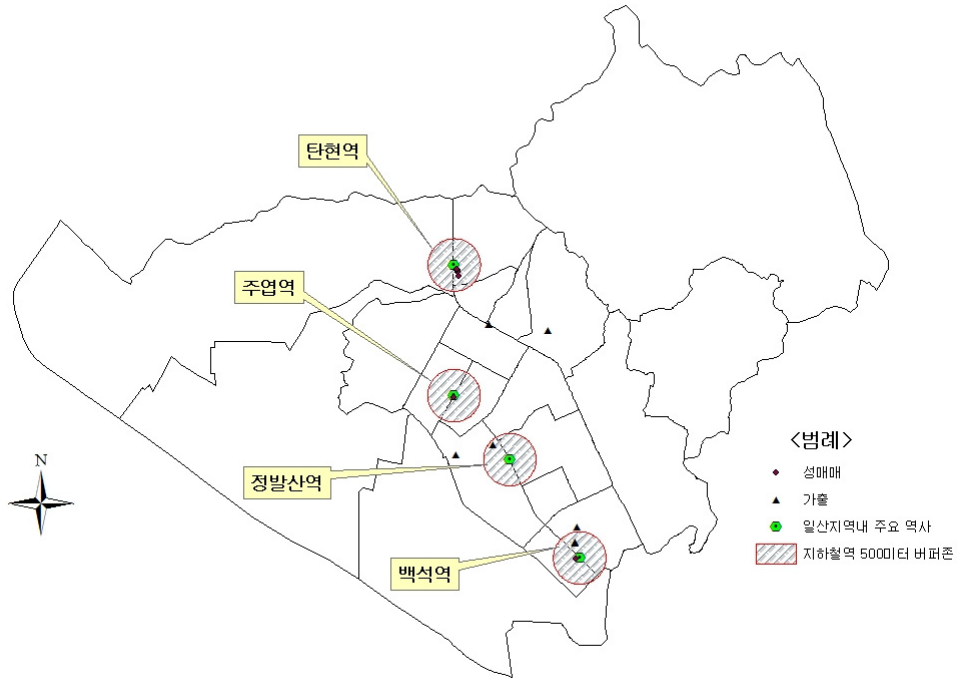
* 경기 고양시 일산지역의 19개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중 0개가, 14개 놀이 장소 중에서 13개가 각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54] 경기 고양 일산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주요 역사 버퍼존 분포

이어지는 [그림 55]은 경기 고양시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인 4개 지하철 역사들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태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8개 중에서 3개가 성매매 장소는 11개 중에서 11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 고양시 일산지역의 경우 가출 시 숙식장소는 역사 주변에 매우 약하게 군집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반해서 성매매 장소는 역사 주변에 공간적으로 매우 강하게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들과 성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4개 지하철역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 고양시 일산지역 위기청소년 가출/성매매 장소와 주요 역사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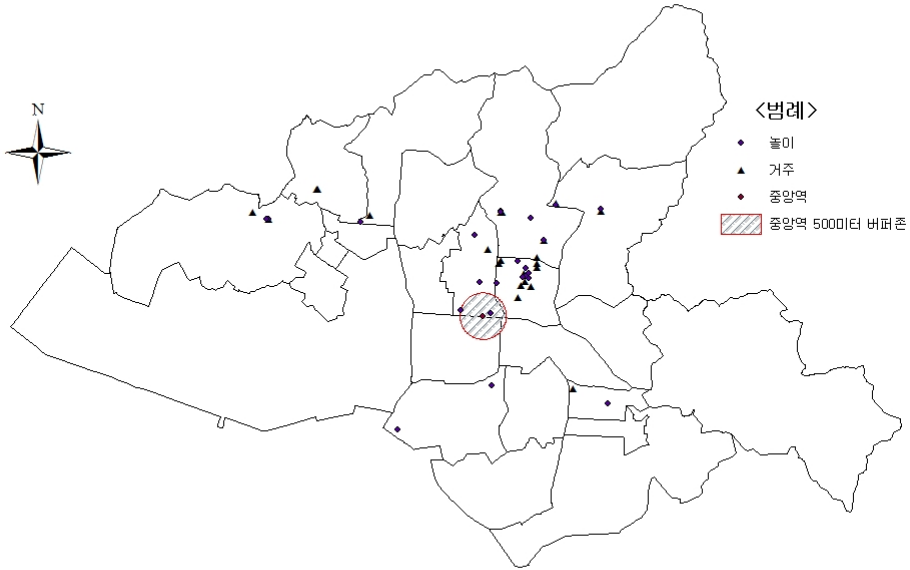


* 경기 고양시 일산지역의 8개 위기 청소년 가출 장소중 3개가, 11개 성매매 장소 중에서 11개가 각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55] 경기 고양 일산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주요 역사 버퍼존 분포

[그림 56]는 경기 안산시의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중앙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25개 중에서 0개가 노는 장소는 25개 중에서 무려 1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 및 노는 장소가 모두 중앙역 주변에 공간적 군집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청소년성매매 다발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교통망 주변에서의 청소년 탈선, 비행, 성매매의 공간적 집중 현상이 안산의 경우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 안산시(단원+상록) 위기청소년 거주/놀이 장소와 중앙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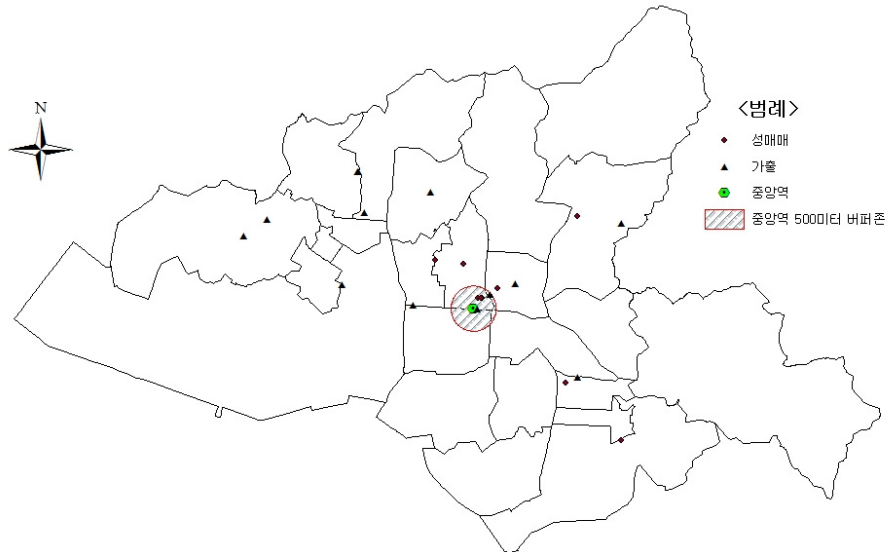


* 경기 안산시(단원+상록)의 25개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중 0개가, 25개 놀이 장소 중에서 1개가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56] 경기 안산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놀이 장소와 중앙역 버퍼존 분포

[그림 57]은 경기 안산시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대표적인 지하철 역사인 중앙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13개 중에서 2개가 성매매 장소는 10개 중에서 3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거주/놀이 장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출 및 성매매 장소가 모두 중앙역 주변에서 공간적 군집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청소년성매매 다발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교통망 주변에서의 청소년 탈선, 비행, 성매매의 공간적 집중 현상이 안산의 경우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 안산시(단원+상록) 위기청소년 가출/성매매 장소와 중앙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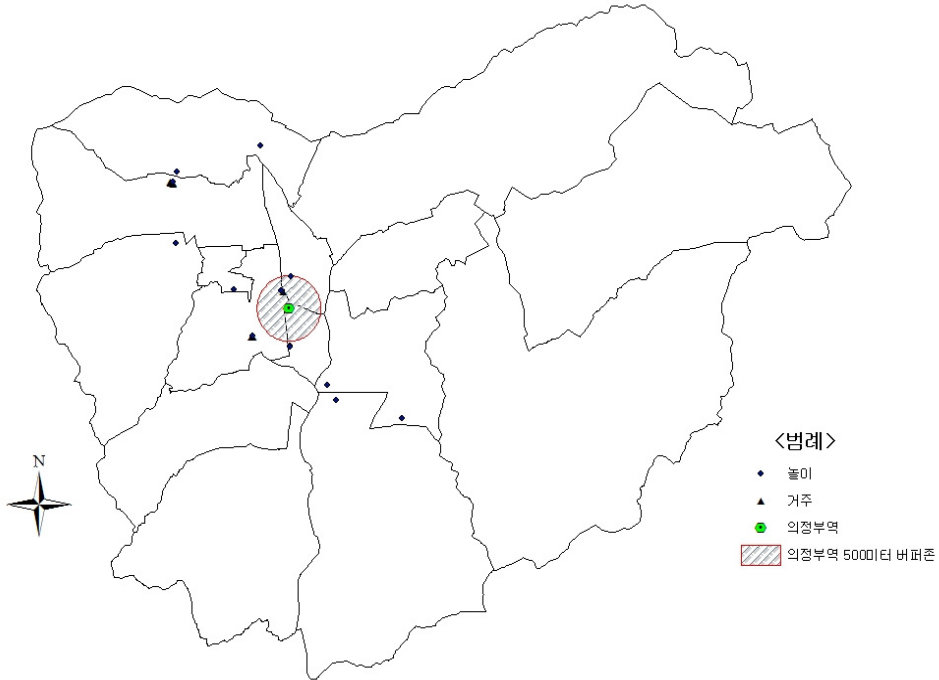


* 경기 안산시(단원+상록)의 13개 위기 청소년 가출 장소중 2개, 10개 성매매 장소 중에서 3개가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57] 경기 안산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중앙역 버퍼존 분포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설문조사에서 성매매가 10건 이상 확인된 경기도의 청소년 성매매 다발 지역이다. 이에 비해서 다음 소개할 의정부와 안양 지역은 성매매가 3건에 지나지 않지만 비교를 위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8]은 경기 의정부시의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태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24개 중에서 1개가 노는 장소는 16개 중에서 4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는 장소의 경우 역사들 주변으로 공간적 군집현상을 미세하게나마 확인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거주 장소는 공간적 군집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 경우 친구집이나 선후배집 혹은 쉼터 등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경향 때문에 공간적 패턴이 분산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기 의정부시 위기청소년 거주/놀이 장소와 의정부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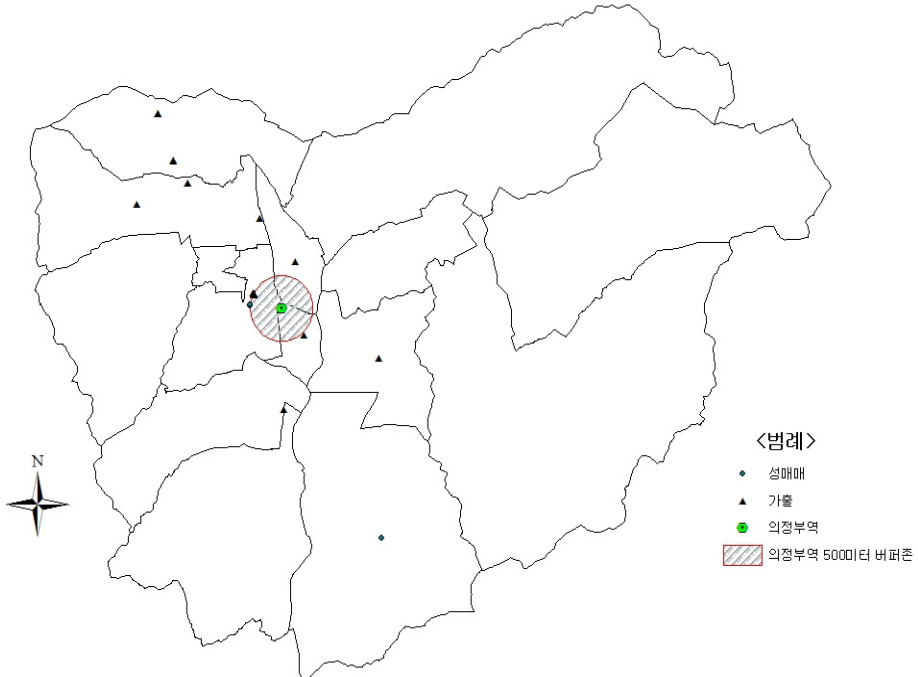


* 경기 의정부시의 23개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중 1개가, 16개 놀이 장소 중에서 4개가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58] 경기 의정부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의정부역 버퍼존 분포

이어지는 [그림 59]는 경기 의정부시 지역의 위기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23개 중에서 6개가 성매매 장소는 3개 중에서 0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출 및 성매매 장소가 모두 의정부역 주변에서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청소년성매매 다발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교통망 주변에서의 청소년 탈선, 비행, 성매매의 공간적 집중 현상이 의정부의 경우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 의정부시 위기청소년 가출/성매매 장소와 의정부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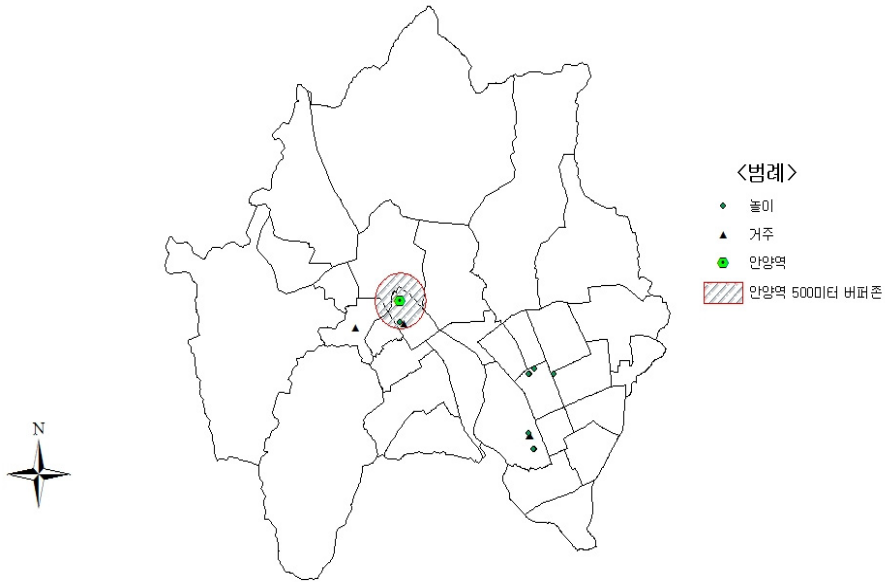


* 경기 의정부시의 23개 위기 청소년 가출 장소중 6개가, 3개 성매매 장소 중에서 0개가 각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59] 경기 의정부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의정부역 버퍼존 분포

[그림 60]은 경기 안양시 지역의 위기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안양역을 중심으로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테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12개 중에서 1개가 성매매 장소는 11개 중에서 1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양시 위기청소년 거주/놀이 장소와 안양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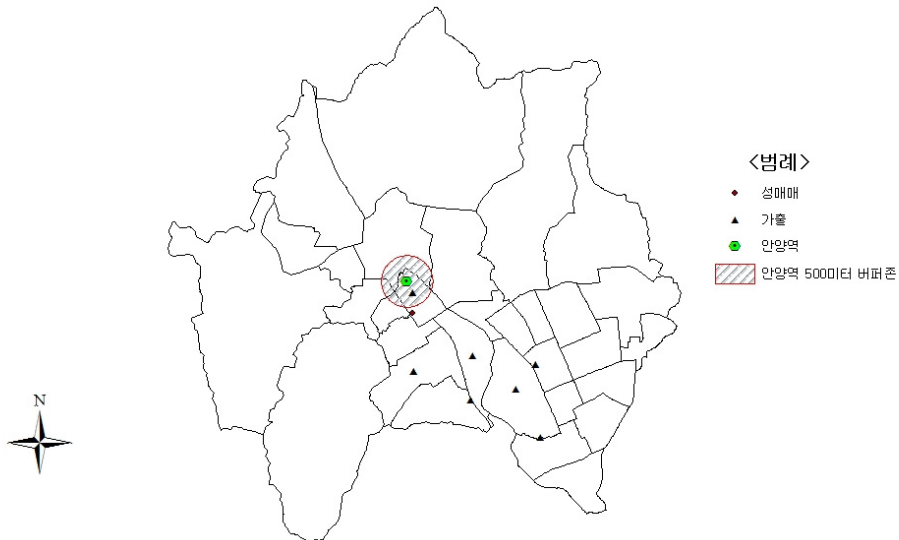


• 경기 안양시의 12개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중 1개가, 11개 놀이 장소 중에서 1개가 각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60] 경기 안양 지역 위기 청소년 거주 및 노는 장소와 안양역 버퍼존 분포

뿐만 아니라 [그림 61]에서 보듯이 가출 및 성매매 장소의 경우도 버퍼존안에 각 각 10개 중 2개, 1개 중에서 0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거주, 놀이, 가출, 성매매 장소가 모두 안양역 주변에서 공간적으로 균집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청소년성매매 다발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교통망 주변에서의 청소년 탈선, 비행, 성매매의 공간적 집중 현상이 안양시의 경우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 안양시 위기청소년 가출/성매매 장소와 안양역 버퍼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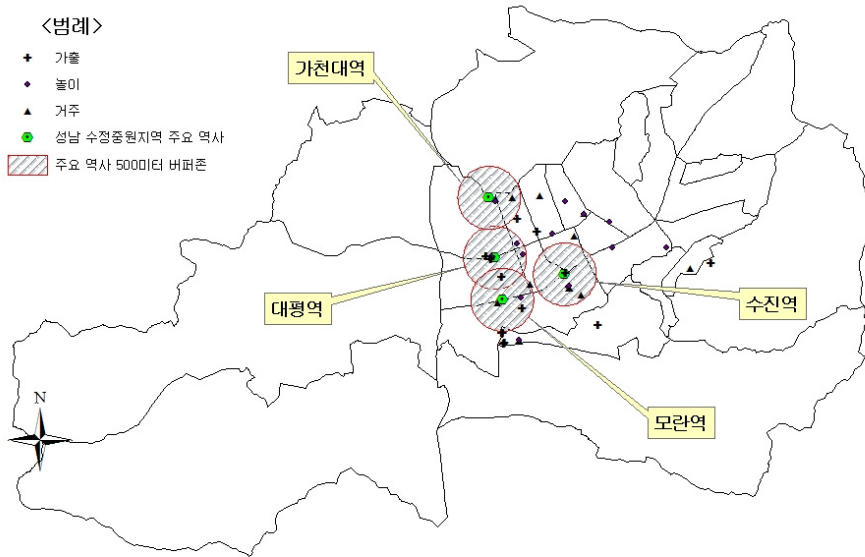
* 경기 안양시의 10개 위기 청소년 가출 장소중 2개가, 1개 성매매 장소 중에서 0개가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61] 경기 안양 지역 위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장소와 안양역 버퍼존 분포

마지막으로 경기 성남시의 경우는 성매매가 설문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다른 위기 청소년들의 활동들의 군집이 확인되어서 비교를 위해서 소개하였다. [그림 62]는 경기 성남시 지역의 위기청소년 거주, 놀이, 그리고 가출 시 숙식장소의 공간적 패턴을 지역 내 4개 지하철 역사들을 500미터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시각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지도에서 붉은 원형태두리의 빗금 처리된 버퍼존안에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는 21개 중에서 9개가 노는 장소는 18개 중에서 8개가 가출 시 숙식장소는 17개 중에서 7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 놀이, 그리고 가출 시 숙식장소가 모두 역 주변에서 공간적으로 비교적 군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설문에서 청소년성매매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청소년성매매 다발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교통망 주변에서의 청소년 탈선, 비행, 성매매의 공간적 집중 현상이 성남시에도 심화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탈선과 비행을 이끄는 각 중 청소년 유해환경들과 성

매매 발생 확률이 높은 모텔 및 노래방 등이 4개 지하철역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성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중원 지역 위기청소년 거주/놀이/가출 장소와 주요 역사 버퍼존 분포



* 경기 성남시 수정중원 지역의 21개 위기 청소년 거주 장소중 9개가, 18개 놀이 장소 중에서 8개가 각 각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또한 17개 위기 청소년 가출 장소중 7개가 버퍼존안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 내 설문 청소년 성매매 범죄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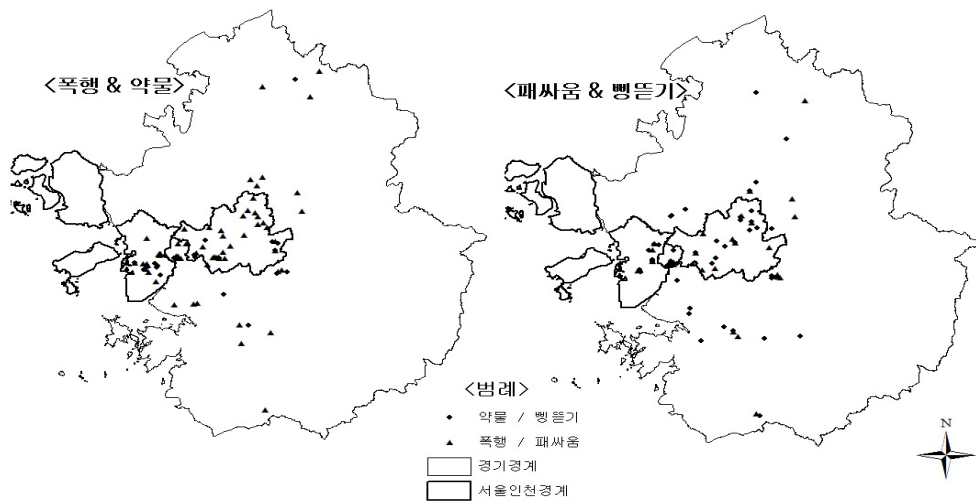
[그림 62] 경기 성남 지역 위기 청소년 활동 장소와 주요 역사 버퍼존 분포

6. 공간자료 분석5: 청소년성매매와 비행의 공간적 연관성 분석

청소년 비행은 향후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따라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청소년 성매매의 공간적 특성과의 관련성이 예상되는 중요한 변인이다.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 혹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훨씬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챕터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공간적 패턴을 수도권 전역은 물론 3개 광역 단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미 파악한 청소년성매매와 비교한 지도들을 통해서 두 가지 변인들의 공간적 관련성을 탐색적으로 조사해볼 것이다. 먼저 [그림 63]은 수도권 전체 걸쳐 파악한 조사 청소년들의 비행 실태를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이다. 탈선의 유형을 폭행, 약물, 패싸움, 뺨뜯기 등 4가지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는 실시했는데 좌측 지도는 폭행과 약물과 관련된 비행이 발생한 장소를 우측 지도는 패싸움과 뺨뜯기가 발생한 장소를 나누어서 보여준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의해서 자행된 비행의 상당수는 서울시 행정구역안과 인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경기도는 인천과 서울을 잇는 서부권역에 집중되었다.

비행 유형에 따른 조사 청소년 비행의 공간패턴



[그림 63] 유형에 따른 조사 청소년 비행의 수도권 지역 공간 패턴

이러한 수도권 전역을 포괄하는 유형별 비행의 공간적 분포는 현황 파악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권역으로 보다 범위를 좁혀서 청소년성매매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공간적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그림 64]는 서울시 영역 안에서 발생한 성매매 장소 및 비행 장소의 공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성매매 장소의 공간분포는 상당수가 집중적으로 남서부권에 군집되어 있고 그 외 서울북부도심 지역에 일부 군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총 56개 비행장소가 확인된 서울의 청소년 비행의 경우도 성매매 장소의 공간분포의 방향과 거의 비슷하게 서남부권역, 중심도심권, 북

동권역 등에서 확인한 군집을 띠고 있다. 이처럼 조사 청소년들 비행의 공간분포는 성매매의 공간분포와 비교해서도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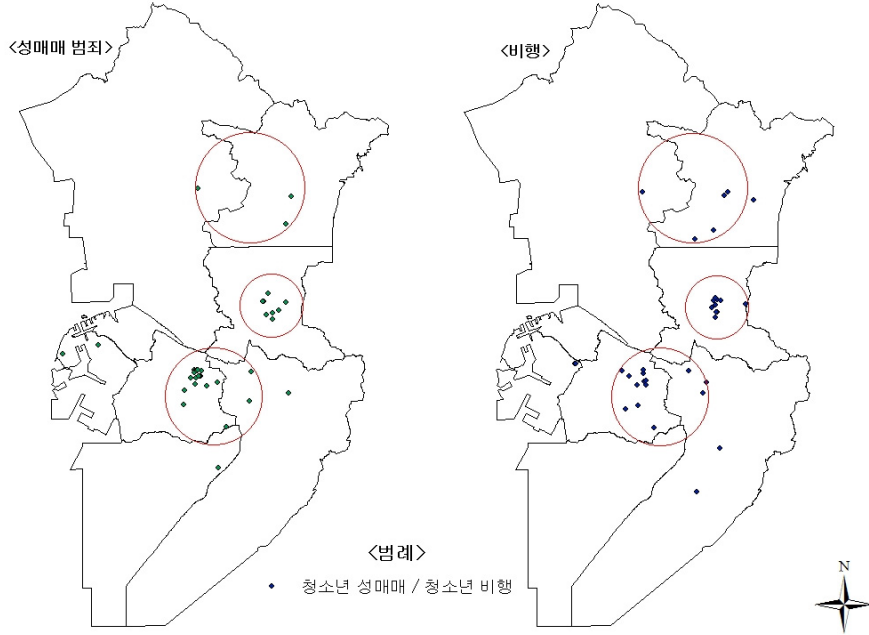
서울시 청소년 성매매범죄 및 비행의 공간분포 비교



[그림 64] 서울시 청소년성매매 및 비행의 공간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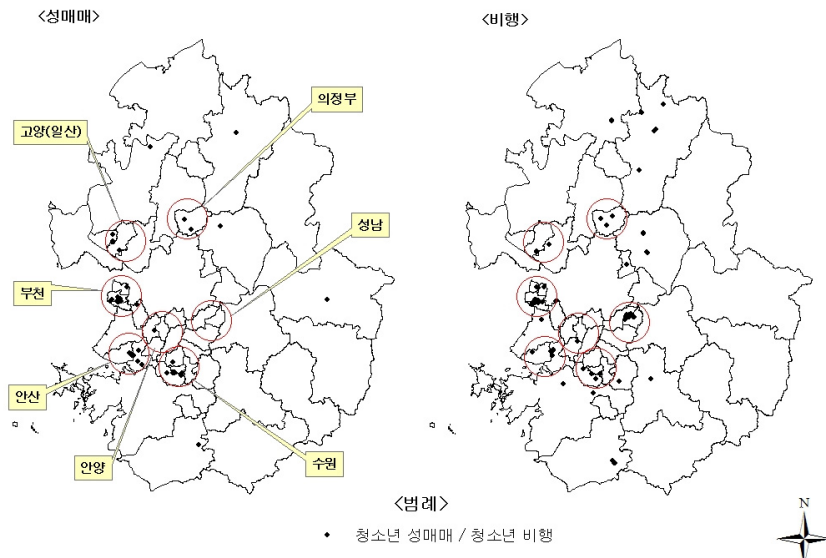
설문조사를 통해 비행 장소가 확인된 인천광역시 안에서 발생한 비행의 총 수는 37건이다. [그림 65]는 인천지역 위기 청소년의 성매매 및 비행 장소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의 경우 남구와 부평구 두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붉은 원으로 표시된 특정 공간에 성매매가 공간적으로 군집되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비행 장소의 경우도 성매매와 매우 유사하게 타겟으로 표시한 일부 지역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75건의 청소년 비행 장소가 발견된 경기도의 경우 역시 서울시나 인천광역시에서 나타났던 청소년성매매와 청소년 비행 간의 공간적 분포의 유사성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인천지역 위기 청소년 성매매범죄 및 비행의 공간적 분포



[그림 65] 인천 지역 위기 청소년성매매 및 비행의 공간적 분포

경기지역 위기 청소년 성매매 및 비행의 공간적 분포



[그림 66] 경기 지역 청소년성매매 및 비행의 공간적 분포

경기 지역의 경우 성매매는 부천, 안산, 수원, 고양, 의정부 지역들에서 군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행의 경우도 이들 지역에서 공간적 집중 현상이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성남 지역의 경우는 성매매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비행 장소들이 발견되어 성매매를 포함한 청소년 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3절 자치구별 청소년성매매 발생도

1. 청소년성매매 발생도의 의의와 측정 방식

앞에서 다양한 공간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설명한바와 같이 청소년성매매는 지극히 공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지역에 따른 범죄 정도의 변이가 두드러지며 일부 지역들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적 단위들에 걸쳐서 청소년성매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공간적 패턴에 대한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다른 범죄 유형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성매매 역시 범죄 정도를 측정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 때문에 국가기관은 범죄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소위 공식범죄통계는 국가의 대표적 수사기관에 의해서 한 해 동안 범죄사건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요약한 자료의 형태로 제공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통계 자료는 실제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서 확인되고 처리된 사건들만을 다룰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성매매는 다른 범죄 유형과는 달리 상당 부분 피해자의 합의하에 범죄가 발생하다 보니 피해자 신고를 통한 공권력의 확인 및 처리가 극도로 어려운 범죄 유형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기관들의 단속 등에 의한 결과로 확인될 여지가 많은 경찰청의 청소년성매매 공식통계 자료는 실제 성매매가 지역적으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역부족이다.

이 연구가 실시한 청소년성매매 공간패턴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러한 공식통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공간적 자료를 제공한다. 성매매 장소에 대한 점 자료(point data)를 추출한 후 수도권 시군구 경계 정보를 담은 면 자료(polygon data)에 청소년성매매 점 자료와 중첩시키는(overlapping) 기법을 사용하면 시군구 행정구역내에서 발생한 청소년성매매 건수의 합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시킨 설문조사의 성매매건수 합 변수를 인구수로 표준화시키면 앞에서 공식적 통계의 분석을 위한 변수로 사용했던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성매매 건수와 유사한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식통계와 설문조사의 청소년성매매 변수들을 이용하여 같은 비율로 가중치를 주어서 새로운 청소년성매매

발생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실제 공권력에 의해서 확인되는 청소년성매매의 수준을 공식통계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 동시에 공권력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지만 실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의 잠재적이며 숨겨진 수준을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청소년성매매 발생도 측정방식을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수식 1: } OI_i = \frac{OI_i}{OI_m} \qquad \text{수식 2: } SI_i = \frac{SI_i}{SI_m}$$

수식1에서 OI_i 는 공식통계의 청소년성매매 수치를 의미하며 OI_i 와 OI_m 은 각각 해당 시군구 i 의 공식통계의 10만 명당 청소년성매매 건수와 같은 변수의 최댓값(maximum value)이다. 수식2에서 SI_i 는 설문조사의 청소년성매매 수치를 의미하며 SI_i 와 SI_m 은 각각 해당 시군구 i 의 설문조사의 10만 명당 청소년성매매 건수와 같은 변수의 최댓값(maximum value)이다. 두 영역별 지수들은 최솟값을 0을 갖고 최댓값은 1을 갖는다. 이렇게 공식통계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두 가지 성매매 지수들에 50씩 동일한 가중치를 곱한 후 합계를 내면 아래와 같은 최종적인 청소년성매매 발생도가 도출된다.

$$\text{수식 3: } RI_i = OI_i \times 50 + SI_i \times 50$$

수식3에서 RI_i 는 청소년성매매 발생도를 의미하며 특정 시군구에서 어떠한 청소년성매매가 공식통계든 설문조사 상에서든 확인이 되지 않을 때 최소 0에서 2가지 영역에 대한 지수를 모두 최댓값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최대 100에 이르는 변수값의 범위를 갖는다.

2. 청소년성매매 발생도의 해석 및 분석

청소년성매매 발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위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도권 청소년성매매 위험의 상위 20개 지역들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 41]과 같다. 전체 78개 경기도 시군구들 중에서 청소년성매매 발생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인천 남구로 발생도가 52.5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평균 5.92보다 약 9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 지역의 청소년성매매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서울 종로구가 지수 50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서울 금천(39.5), 서울 중구(29), 서울 관악(29) 등이 상위 5개 시군구로 나타나서 인천 남구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에 소재한 자치구들이었다. 이들 5위권을 이어서 인천 부평(18.5), 서울 동대문(14), 경기 수원팔달(14), 인천 중구(11.5), 서울 강북 및 서초(각각 11) 등이 청소년성매매 다발 발생지역 10위권에 들어갔다. 전체 상위권 20개 지역들 중에서 서울시 자치구들이 14개 지역을 차지하였고 인천과 경기도 각각 3개 지역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성매매 발생지역의 비중이 서울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56%를, 인천은 전체 9개 자치구 중에서 33%를, 경기도는 44개 시군구 중에서 6.8%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성매매의 발생 정도가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울과 인천의 일부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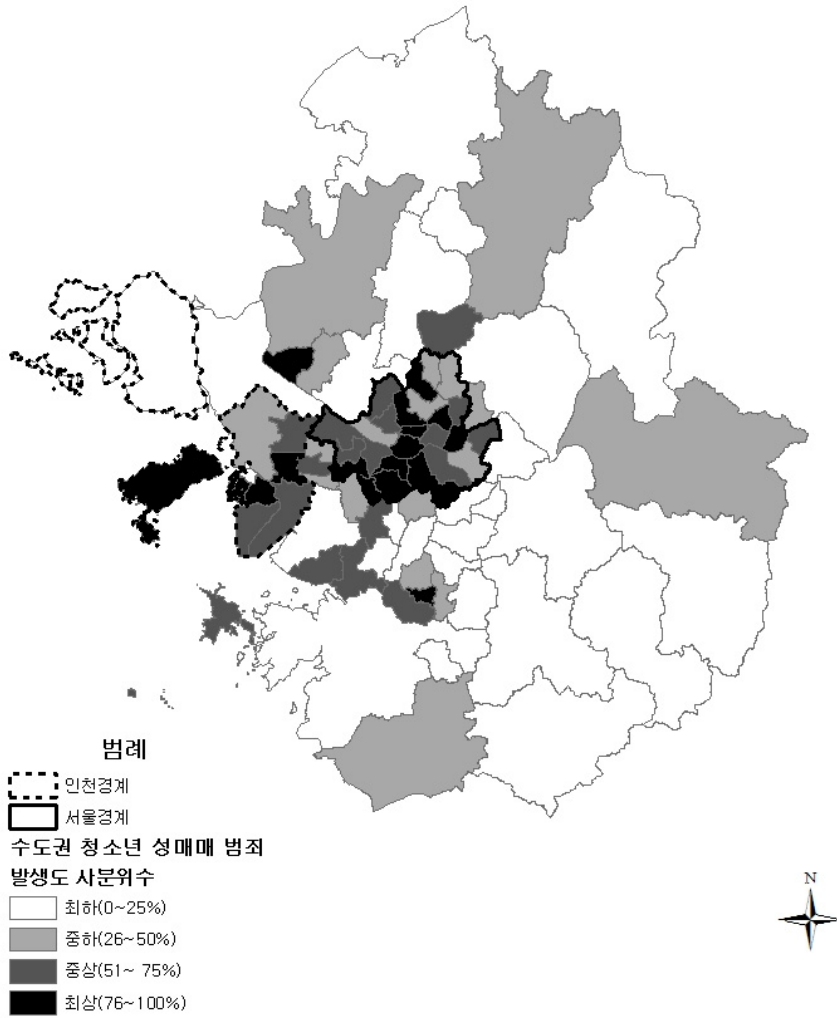
[표 41] 청소년성매매 발생도 상위 20개 시군구 현황

순위	시군구	청소년성매매 발생도
1	인천 남	52.50
2	서울 종로	50.00
3	서울 금천	39.50
4	서울 중구	29.00
5	서울 관악	29.00
6	인천 부평	18.50
7	서울 동대문	14.00
8	경기 수원팔달	14.00
9	인천 중구	12.50
10	서울 강북	11.50
11	서울 서초	11.50

순위	시군구	청소년성매매 발생도
12	서울 광진	11.00
13	서울 구로	11.00
14	서울 동작	10.50
15	서울 용산	10.00
16	경기 고양 일산서	10.00
17	서울 성동	9.50
18	서울 영등포	9.50
19	경기 부천원미	9.50
20	서울 은평	7.00
	전체평균	5.92

이러한 수도권 시군구 지역들에 걸친 청소년성매매 발생의 수준을 공간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의 [그림 67]이다. 측정한 발생 정도를 사분위수로 나누어 시각화한 지도는 검은색 음영을 가질수록 발생 정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 방향의 수도권 서부권에서 청소년성매매의 발생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안에서는 관악, 구로, 금천, 영등포로 이어지는 서남부 지역과 종로, 중구,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강북 도심 지역의 발생 정도가 매우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은 역시 서울 서남부 지역과 인접해 있는 곳들에서 발생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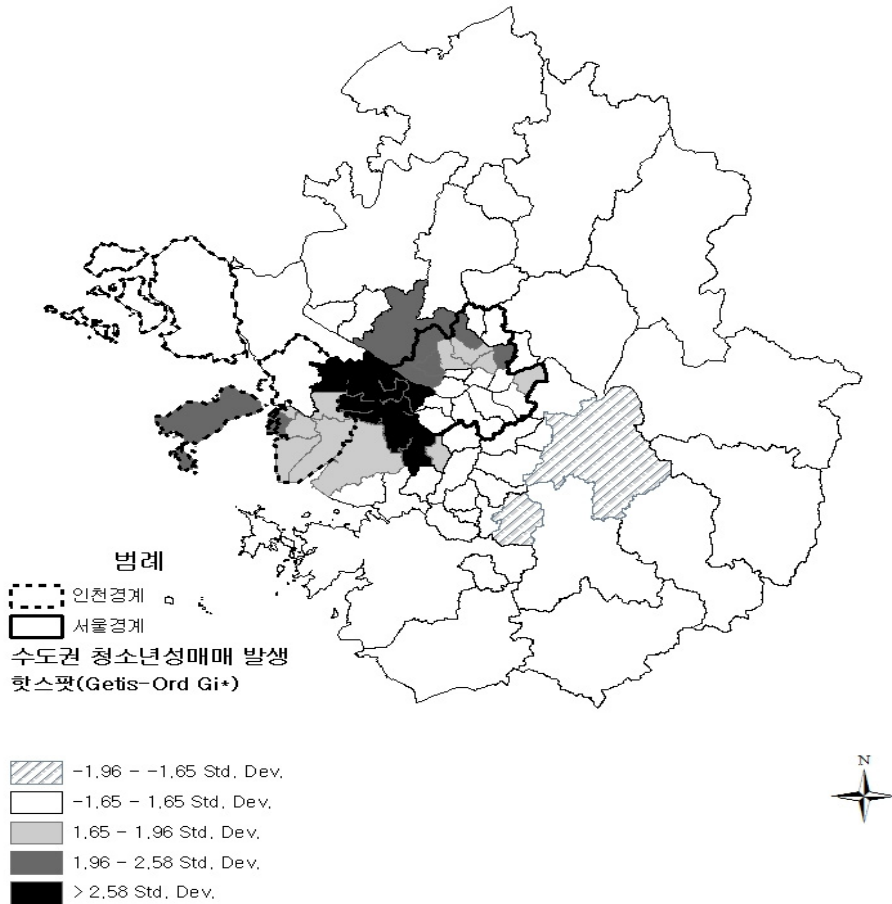
수도권 청소년성매매 범죄 발생도



[그림 67] 수도권 청소년성매매 발생 정도의 공간적 패턴

이어지는 [그림 68]은 [그림 67]에서 보여준 청소년성매매 발생 정도의 공간적 패턴의 핫스팟 지역을 분석한 Getis-Ord G_i^* 공간통계(spatial statistics)의 결과이다. 소위 G-statistic이라고 불리는 핫스팟분석 통계는 높은 값들을 갖거나 낮은 값들을 갖는 공간적 사상(spatial feature)들이 연구 지역(study area)내에서 군집되는 경향이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도구는 기본적으로 이웃해 있는 사상들의 맥락 안에서 각각의 공간적 사상을 관찰함으로써 작동된다. 만약 사상의 값이 높고 동시에 모든 이웃해 있는 사상들의 값들이 역시 높다면 핫스팟(hotspot)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사상과 그 이웃한 사상들에 대한 지역적 합계(local sum)는 연구 지역의 모든 사상들의 합계(sum)와 비례해서 비교될 수 있다. 측정된 지역적 합계가 기대하는 지역적 합계(expected local sum)보다 많이 다를 때 그 차이가 무작위적 확률의 결과라고 하기에 과도하게 크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z스코어가 결과로 나온다는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G_i^* -Statistic은 실제 z스코어를 의미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z 스코어값들에 대해서는 z스코어가 클수록 높은 값들의 군집이 강하게 나타나는 핫스팟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z 스코어값들에 대해서는 z스코어가 작을수록 낮은 값들의 군집이 강하게 나타나는 핫스팟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청소년성매매 발생정도의 핫스팟 분석



[그림 68] 수도권 청소년성매매 발생 정도의 핫스팟 분석

제 4절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앞에서 살펴본 분석은 주로 청소년성매매가 발생한 공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공식통계 자료를 통한 시군구 단위에서의 공간패턴과 함께 설문조사를 통하여 입수한 수도권 위기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성매매 장소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공간적 속성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위기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공간과의 연계성에 입각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순수한 공간적 접근과 더불어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지역적 특성들이 청소년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청소년성매매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 인과성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 연구의 주된 초점은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성에 있지만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의 결정요인들을 두루 살펴보는 분석을 병행해보고자 한다.

1. 분석단위와 변수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금 현재 입수 가능한 공식적 자료는 경찰청이 공개한 2010, 2011년도 수도권 경찰서별 청소년성매매 검거 인원 및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다른 범죄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범죄 건수, 범죄자 혹은 범죄피해자를 분석단위로 해서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성매매의 경우도 지역적 단위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 단위는 경찰서 관할구역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시군구 행정단위이다. 지역적 분석단위를 사용할 때 가급적 미시적 분석단위를 사용하면 훨씬 더 관측치들의 수를 늘릴 수 있으며 소지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보다 다양한 지역적 변이를 통제하는 큰 잇점이 있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 연구에서 불가피하게 시군구 지역의 분석단위를 이용하고자 한다.

청소년성매매의 영향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종속변수는 청소년성매매이다. 시군구별 청소년성매매의 정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서 바로 앞장에서 측정한 시군구별 청소년성매매 발생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것이다. 독립변수가 될 청소년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첫 분석파트에서 공식통계 결과와 함께 소개했던 지역의 주요 범죄

유발 환경들을 중심으로 아래 [표 42]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변수인 인구밀도와 청소년 인구비율을 인구 통계적 요소로 보고 포함하였다. 또한 유해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 천 명당 숙박업소 수와 인구 천 명당 주점 및 오락업소 수를 모형에서 통제하기로 하였다. 원래 유해환경 요인들에 대한 자료는 숙박, 주점, 오락, 마사지 등 4가지 유형의 업소들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앞에서 공간적인 분포를 보여줄 때는 모든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회귀분석을 위하여 4가지 변수들을 모두 포함했을 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하여 마사지 업소는 제외시켰으며 주점과 오락업소는 숫자를 합하여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기 청소년의 비행이나 탈선의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지원시설 수와 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를 막기 위한 지원시설 수도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개괄적인 빈곤정도를 보여주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과 주거환경을 보여주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비율 변수도 함께 고려하였다.

[표 42] 변수명과 변수설명

	변수명	변수설명
인구통계	인구밀도	1제곱 평방 미터 당 인구수
	청소년인구	청소년인구 비율
유해환경	숙박업소	인구 천 명당 숙박업소 수
	주점 및 오락업소	인구 천 명당 주점 및 오락업소 수
정부지원	성문제 지원시설	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지원시설 수
	청소년 지원시설	위기 청소년 지원 시설 수
지역특성	빈곤	기초생활수급인구 비율
	공동주거	연립 및 다세대주택 비율

2. 모형에 대한 고찰

앞에서 청소년성매매가 나타나는 공간적 패턴을 보여주는 지도그리기(mapping)와 지리적으로 군집되어있는지를 살펴보는 일련의 탐색적 공간자료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은 청소년성매매가 지닌 특유의 공간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청소년성매매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도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량기법이 응용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도시지리학이나 범죄학 관련 연구들은 회귀분석에 공간적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회귀분석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몇 가지 대표적인 공간회귀모형을 전통적인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회귀모형과 비교하면서 청소년성매매를 이끄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한다.

기본적으로 공간자료를 활용한 회귀모형은 전통적인 OLS 회귀모형에 대해서 갖는 종속변수와 오차항의 등분산성의 가정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회귀모형에서 추정하는 기대치(expected value)와 실제 관측치(observed value) 사이의 차이가 전체 구간에 걸쳐서 동일한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지리적 단위에 대한 분석에서 특히나 변수의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y)가 두드러진 경우에는 만족시키기 어려운 가정이다. 분석단위가 되는 지역이 이웃지역과의 공간적 의존성에 때문에 발생하는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을 적절히 통제하는 모형이 바로 공간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첫 번째 공간회귀모형은 공간적 자기상관 모형(spatial autoregressive model: SAR)으로 공간적 지체 모형(spatial lag model)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공간적 자기상관 모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간적으로 지체된(spatially lagged) 종속변수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간적 효과를 다루는 모형이고 아래 수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y = \rho Wy + X\beta + \epsilon$$

이때 W 는 공간적 가중치 행렬(Spatial weighted matrix)로서 종속 변수인 y 의 지역 간 의존 관계를 나타낸다. X 는 설명변수들에 대한 관치들의 행렬을, ϵ 는 오차항들의 벡터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ρ 는 종속변수인 y 의 공간적 계수(spatial coefficient)이다. 이때 공간적 자기상관이 없다면 y 는 이웃하는 y 값들에 의존하지 않게 되며 ρ 값은 0이 된다.

두 번째 사용할 공간회귀모형은 공간자기상관을 오차 값에 의해 설명하는 모형으로 소위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 SEM)이라고 한다. 이 모형의 기본적인 속성은 아래 공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y = X\beta + \epsilon$$

$$\text{이때, } \epsilon = \lambda W\epsilon + \zeta$$

ϵ 는 오차항의 벡터이며 가중치행렬(W)을 사용해서 공간적으로 가중되어 있고 λ 는 공간적 오차 계수를 ξ 는 상관되어있지 않은 오차항의 벡터를 의미를 한다. 만약 오차항들간에 공간적 상관관계가 없다면 람다는 0의 값의 갖는다.

3. 분석 결과

먼저 아래 [표 43]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요약통계를 보여준다. 우선 종속변수인 청소년성매매의 발생도는 평균 5.92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이 0, 최대값이 52.5에 이르러서 지역 간 변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변수로 포함된 인구밀도 변수 역시 평균이 5631.54인데 최소값 67.69에서 최대값 22108.62까지 분포되어 있어서 인구가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과 경기도 외곽 군지역의 편차가 두드러졌다. 숙박업소는 인구 천 명당 평균 0.73개로 나타났지만 역시 최소값 0.03에서 4.26의 비교적 큰 지역 간 변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유흥 및 오락 업소의 경우는 최소값과 최대값간의 차이가 무려 18배에 이르렀다. 청소년성매매 및 성폭력 지원 시설 수와 위기 청소년 지원 시설 수는 지역들에 걸쳐 평균적으로 1개 정도씩 분포되었지만 아예 없는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5개 이상의 시설들이 집중된 지역들도 확인되었다. 이 밖에 기초생활 수급가구 비율과 연립 및 다세대주택 비율 변수들도 상당한 수준의 지역적 변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청소년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 43] 서술통계 요약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청소년성매매 발생	5.92	10.27	0	52.5
인구밀도(1m ² 당)	5.63	4.44	0.07	22.11
청소년 인구 비율	0.08	0.01	0.06	0.11
숙박업소	0.73	0.77	0.03	4.26
유흥 및 오락 업소	5.58	3.54	0.96	17.66
성문제 지원 시설	1.06	1.26	0	5
청소년 지원 시설	1.81	1.27	0	7
기초생활 수급가구 비율	0.03	0.02	0.01	0.09
연립 및 다세대주택 비율	0.18	0.10	0.05	0.49

회귀분석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어지는 [표 44]의 내용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인과성을 배제한 순전히 변수들 사이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청소년성매매와 숙박업소, 유흥오락업소, 연립다세대주택 비율 등의 변수들 간에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들 사이는 청소년 비율과 숙박업소 사이는 부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숙박업소와 유흥오락업소, 기초수급가구비율과 숙박업소, 유흥오락업소와 연립다세대주택 비율 들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44]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발생	밀도	청소년	숙박	유흥	성지원	청지원	기초	연립
발생	1								
밀도	0.18	1							
청소년	-0.24	0.14	1						
숙박	0.53	-0.09	-0.56	1					
유흥	0.67	0.14	-0.30	0.65	1				
성지원	0.17	0.24	-0.03	-0.12	0.004	1			
청지원	0.09	0.18	0.007	-0.10	0.11	0.30	1		
기초	0.14	-0.27	-0.13	0.51	0.35	-0.12	0.03	1	
연립	0.46	0.30	-0.21	0.26	0.57	0.13	0.14	0.09	1

이어지는 [표 45]는 최소자승(OLS) 회귀모형의 분석결과와 함께 앞에서 설명했던 공간적 자기회귀모형(SAR)과 공간오차모형(SEM)의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표 45] 공간회귀모형의 비교

	최소자승회귀(OLS)		공간자기회귀(SAR)		공간오차(SEM)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Constant	-14.48**	8.35	-14.60**	7.83	-15.58**	7.69
인구밀도	0.04**	0.22	0.08**	0.21	0.06**	0.20
청소년	93.74**	92.74	90.31**	87.36	103.53**	85.91
숙박업소	5.18**	1.97	5.09**	1.85	5.34**	1.83
유흥오락	1.27**	0.39	1.39**	0.39	1.22**	0.35
성문제지원	1.40**	0.72	1.39**	0.67	1.43**	0.68
청소년지원	0.12**	0.72	0.11**	0.68	0.17**	0.68
기초생활	-91.53**	53.04	-75.87**	49.59	-79.58**	48.01
연립다세대	12.83**	11.56	13.55**	10.79	13.06**	10.78
Lamda					-0.11**	
Rho			-0.15**			
R^2	0.54		0.55		0.54	
AIC	541.505		542.434		541.22	

우선 최소자승회귀 모형은 전체 청소년성매매 발생정도의 54%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독립변인들 중에서 숙박업소 수와 유흥 및 오락업소 수가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본 결과 Belsely et. al(1980)이 제시했던 조건숫자(condition number)가 35.155로 나타났고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차항의 정규성에 대한 Jarque-Bera 검정결과 최소자승회귀 모형은 예측값이 갖는 오차가 비정규분포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JB=259.07, p=0.00000). 또한 최소자승모형을 통해서 예측된 값과 실제값의 오차가 동일한 편차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등분산성에 대한 검정인 Koenker-Bassett 검증에서 모형은 이분산성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B=14.21, p=0.08). 결과적으로 최소자승모형은 회귀계수값이 반드시 편향(biased)되지는 않더라도 비효율적(inefficient)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공간자기회귀 모형의 경우 OLS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숙박업소 수와 유흥 및 오락업소 수가 청소년성매매 발생도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청소년 성범죄관련 지원시설들이 많을수록 지역의 청소년성매매 발생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자기회귀 모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결과는 이웃한 관측들에 의하여 관측들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력을 측정함으로써 이 연구의 표본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공간적 종속성(spatial dependence)을 반영하는 로(rho)값이다. 분석결과 위 공간자기회귀 모형의 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한 지역의 청소년성매매 발생정도가 이웃하는 지역의 발생정도에 지체효과(lag effects)를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공간오차모형은 공간자기회귀 모형과 마찬가지로 숙박업소 수, 유흥 및 오락업소 수, 그리고 청소년 성범죄관련 지원시설 수 등이 지역의 청소년성매매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공간자기회귀 모형과 비교했을 때 공간오차모형에서는 공간적으로 상관된 오차들(spatially correlated errors)에 대한 회귀계수인 람다(lambda)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분석결과 람다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서 최소자승모형의 이분산성이 공간적인 오차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최소자승회귀 모형의 대안으로 모색했던 공간적 지체를 이용한 공간자기회귀모형과 공간적 오차를 이용한 공간오차모형 모두 이 연구에서 살펴보려했던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뚜렷한 장점을 보여주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공식통계에 기초한 청소년성매매발생도가 공간적으로 수도권 시군구라는 상대적으로 큰 지리적 분석단위에서 측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 단위가 미시적이고 관측치가 많을수록 공간자료는 훨씬 더 많은 공간적 역동성과 변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공간회귀분석을 통해서 공간적 의존성을 통제한 모형을 활용하기에는 근원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의 다양한 탐색적인 공간자료 분석들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청소년성매매 발생의 공간적 특성들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시도한 3가지 회귀모형들에 대한 소개는 향후 분석단위를 보다 좁히고 양질의 자료들의 축적을 통해서 지역의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이나 발생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 5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제 1절 요약

제 2절 정책적 제언



제 5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제 1절 요약

환경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오랫동안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최근에는 문제발생 가능성이 많은 공간적 특성을 개선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하는 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등과 같은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청소년문제 및 범죄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정책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와 그와 관련된 도구를 이용하여, 가출 및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을 지역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2010년과 2011년의 청소년대상 성매매 검거인원과 검거건수(공식통계)를 종속변수로 하여, 지역별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가해자와 범죄건수의 공간적 패턴, 지역별 청소년성매매 유해환경요소 및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들의 공간적 패턴, 청소년 대상 성매매 공식통계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2011년 수도권 시군구별 청소년성매매의 공간패턴을 살펴보면, 검거인원이나 검거건수 모두 대도심인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권에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과 검거건수를 종합한 결과’와 ‘인구 10만 명 당 청소년성매매 건수’에 대한 공간적 패턴도 2011년 수도권 시군구별 청소년성매매의 공간패턴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청소년성매매의 공간패턴을 발생비율의 차이와 밀도점(density plot)으로 나타낸 결과, 서울 일부지역들의 경우 청소년성매매가 발생한 경기도의 일부 외곽지역들에 비해서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이 10~100배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성매매율 밀도 지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안에서도 남서권과 한강 이북의 중심지역들에서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문제가 언급될 때 마다 제기되는 사항 가운데 하나가 유해환경과 청소년문제 간의 관계이다. 특히 청소년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주변지역의 유해환경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주변지역 유해환경을 청소년 비행 및 범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점업, 숙박업, 오락업, 마사지업 4가지 유해업종과 기초수급자비율과 연립 및 다세대 주택비율을 통한 지역낙후성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숙박업의 경우 중상 및 최상에 포함되는 지역들이 서울지역에 다수 집중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인천·경기 서부권과 경기 동부 및 북부권의 농촌지역으로도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점업은 서울지역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오락업은 주점업과 유사하게 서울 및 수도권 서부권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반면 마사지업종은 서울지역에 좀 더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락업과 유사한 공간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숙박업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의 경우 청소년성매매와 공간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수급자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경기 북동부의 일부 농촌지역들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도 일부 강북지역과 서남부 지역이 비교적 높은 빈곤정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서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서울인접 근교지역은 빈곤정도가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분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립 및 다세대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서울과 수도권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분포와 유사성을 띠고 있었다.

셋째,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안전망의 분포를 수도권지역의 청소년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정부지원시설의 지리적 분포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정부시설의 공간적 분포는 수도권 외곽 농촌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서울 및 인접 수도권에 걸쳐서 고루 퍼져 있었다. 실제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장소와 정부 및 지역사회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시설의 위치 사이에는 공간적 불일치(spatial mismatch)가 존재하였다.

넷째,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한 결과, 해당지역과 이웃주변지역들의 청소년성매매율이 모두 높은 지역은 관악구,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로 모두 서울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지역과 이웃주변지역들의 청소년성매매율이 모두 낮은 지역은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북부와 동부 농촌지역들과 일부 서울 남쪽 근교도시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높은 청소년성매매율 지역들에 둘러 싸여서 낮은 청소년성매매율로 고립된 지역은 성북구와 은평구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수도권 지역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398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특성, 수도권전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 서울·인천·경기에 대한 미시적 분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첫째, 설문에 응한 청소년들의 특성 가운데 흥미로운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설문에 응한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1순위 노는 장소로 'PC방과 노래방'을 꼽았다. 이러한 사실은 위기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 공간을 파악하고 지리적 패턴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즉 위기 청소년들의 탈선,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있어서 PC방과 노래방 밀집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를 성별, 학교재학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남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PC방(49.54%)이며, 노래방(15.60%), 공원(4.59%), 술집(3.67%), 쉼터(3.67%)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여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노래방(32.31%)이며, 그 다음 순위는 PC방(19.49%), 놀이터(6.67%), 골목/길거리(5.1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과 학생이 아닌 경우 모두 가장 선호하는 노는 공간은 'PC방과 노래방'이었지만, 그 외 노는 공간의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술집이나 역부근'을,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놀이터, 공원, 골목/길거리'를 선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성매매 경험 여부를 교차분석 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 < .05$). 성매매 경험은 여자청소년이 약 26%로 남자청소년의 9.5%보다 훨씬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성매매의 주표적이 여자청소년들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일부 남자청소년들도 성매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다.

유지웅(2012)은 최근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남성과 여자청소년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남자청소년과 여자성인, 드물게는 남자청소년과 남자성인사이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성매매의 개념을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정의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정혜원(2011a)연구에서도 성매매피해자로서 남자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 경우에는 성매매경험이 14.69%로 학생이 아닌 경우 28.13%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제도에서 멀어질 경우 성매매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일 수도 있고, 학교라는 제도가 위기청소년에게 또 하나의 보호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밖 위기청소년과 학교 내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체계 및 서비스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현재 먹고 자는 공간(거주 장소)과 노는 장소, 그리고 과거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거주 장소는 대부분 서울 및 인천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노는 장소도 거주 장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군집정도가 다소 떨어졌다. 가출 시 숙식장소는 특정도시의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정도가 매우 강했고, 성매매피해 장소는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도출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서울과 인천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의 군집경향이 유의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K함수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가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패턴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연구 지역의 범위를 좁혀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영역 안에서 거주 장소의 공간분포는 서울시의 남서부 거주지 밀집지역 중심으로 우상향으로 비스듬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는 장소의 경우에는 거주 공간분포방향에 비해서는 다소 기울기가 작아졌지만 남서부권역에서 완곡하게 북동쪽을 향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거주 장소와 노는 공간 모두 비슷한 공간분포의 중심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가출 시 숙식장소의 공간분포는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으로 균형 있

게 퍼져 있고, 성매매피해장소는 서울시 남서부권에 치우쳐서 성매매피해장소가 전 지역에 걸쳐서 균형 있게 퍼져 있지 않았다. 흥미로운 지점은 거주 장소와 성매매피해장소의 공간 분포의 중심이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의 지하철 선로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한 버퍼존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지하철 선로와 지하철역사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표 45]에 나타나듯이,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거주 장소는 약 55%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거주 장소가 약 32% 포함되어 있었다.

[표 46] 지하철망을 이용한 버퍼존 분석결과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
지하철 선로	약 55%	약 67%	약 85%	약 95%
지하철 역사	약 32%	약 53%	약 84%	약 90%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노는 장소는 약 67%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노는 장소가 약 53%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는 약 85%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가출 시 숙식장소가 약 84%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장소는 약 95%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장소가 약 90% 포함되어 있었다.

넷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청소년성매매 다발 자치구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 안에서 청소년성매매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관악구, 동대문구, 영등포구의 순서였고, 이들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 대표적인 교통망인 주요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500m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노는 장소, 거주 장소, 성매매 장소가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는지 살펴 본 결과, 가출 시 숙식장소와 성매매 장소가 관악구는 신림역을 중심으로, 동대문구는 외대앞역과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영등포구는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군집되어 있었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남구와 부평구 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출 시 숙식장소의 경우도 성매매만큼은 아니지만 동일한 지역에서의 공간적 군집이 상당한 수준에서 확인되고 있었다. 노는 장소의 경우는 먼저 살펴본 청소년성매매나 가출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군집지역이 발견되고 있는데 반해서, 거주 장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분포가 흩어져 있었다. 특히, 남구 주안역과 부평구 부평역을 중심으로 노는 장소와 성매매 장소는 군집되어 있었지만 거주 장소와 가출 시 숙식장소는 흩어져 있었다. 경기지역에서는 청소년성매매가 경기 서부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고양 일산, 부천, 안산, 수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출 시 숙식장소의 경우도 청소년성매매와 유사하게 청소년성매매 다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공간적 군집이 상당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거주 및 노는 장소의 경우도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성매매 다발 지역들과 함께 의정부, 안양, 성남 등의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부천시 부천역, 수원시 수원역, 고양시 탄현역·정발산역·주엽역·백석역 주변에 청소년성매매 피해 장소들이 군집되어 있었다.

특이한 결과는 경기 안산시 지역 경우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청소년성매매 장소 모두가 공간적 군집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청소년성매매 다발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교통망 주변에서의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집중 현상이 안산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7]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 결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관악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남구	부평구	부천시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노는 장소	군집○	-	-	군집○	군집○	군집○	-	군집○	군집×
거주 장소	군집×	-	-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가출 시 숙식장소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성매매 장소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관악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남구	부평구	부천시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신림역	외대앞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주안역	부평역	부천역	수원역	탄현역 정발산역 주엽역 백석역	중앙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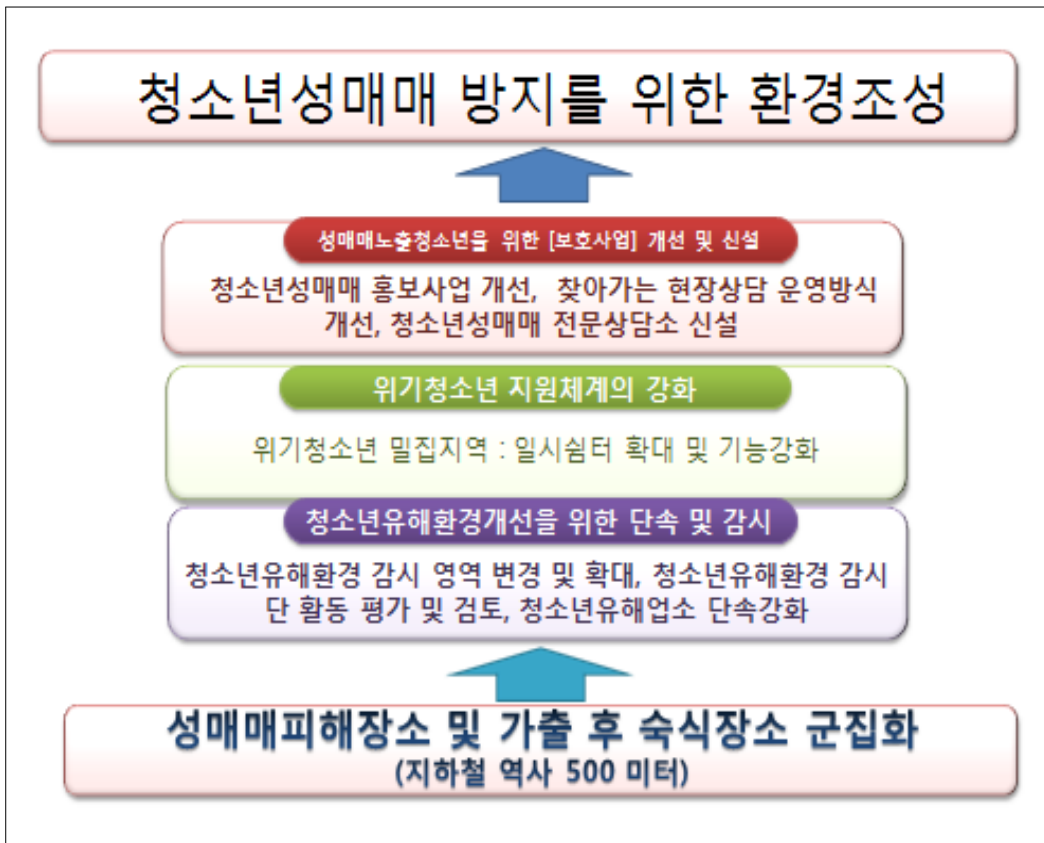
다섯째, 청소년성매매와 비행의 공간적 연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설문조사를 통해 보고된 비행의 상당수는 서울시 행정구역과 인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경기도는 인천과 서울을 잇는 서부권역에 집중되었다. 이처럼 조사 청소년들 비행의 공간분포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분포와 비교해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로 공식통계와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성매매의 발생도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 수도권 전체 78개 시군구 가운데 청소년성매매 발생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인천남구로 발생도가 52.6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종로구(50.0), 서울 금천구(39.5), 서울 중구(29.0), 서울 관악구(2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전체 상위권 20개 지역들 중에서 서울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14개인 56%, 인천은 전체 9개 자치구 중에서 3개인 33%, 경기도는 44개 시군구 중에서 3개인 6.8%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정도가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울과 인천의 일부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시 내에서는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로 이어지는 서남부 지역과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로 이어지는 강북 도심 지역의 발생도가 매우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인천과 경기지역은 역시 서울 서남부 지역과 인접해 있는 곳들에서 발생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지역 특성들이 청소년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최소자승모형(OLS), 공간자기회귀 모형, 공간오차모형 등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소자승모형이나 공간자기회귀 모형, 공간오차모형 모두에서 숙박업소 수와 유흥 및 오락업소 수가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소년 성범죄관련 지원시설 수는 공간자기회귀모형과 공간오차모형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제 2절 정책적 제언

이 연구는 성매매노출 가능성이 큰 거리청소년의 공간적 활동을 파악함으로써 성매매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노출가능성 및 그 징후가 보이는 대상과 상황을 고려한 공간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간단히 정리하면 [그림 69]와 같다.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 정책적 제언은 성매매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일부일 뿐이며, 자료수집의 한계¹⁶⁾가 있었음을 밝힌다.



[그림 69] 정책적 제언

16) 이 연구의 자료수집 한계는 공식통계가 지니는 일반적 한계와 조사모집단의 한계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 성매매노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사업』 개선 및 신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청소년성매매 다발 자치구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살펴 본 결과, 인천 및 경기 일부지역에서는 가출 후 숙식 장소와 성매매피해 장소의 공간적 근접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출청소년과 성매매노출청소년들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거리생활을 하는 많은 경우에 성매매 노출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집이 아닌 거리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누구나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정혜원(2011a)연구에 의하면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들과 가출만 경험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가족, 학교생활, 거리생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집으로부터 벗어나 거리생활을 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성매매노출가능성이 큰 청소년들이나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된 『보호사업』의 개선과 신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한 홍보사업의 개선’, ‘찾아가는 현장상담의 운영방식 개선’과 성매매노출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소’ 신설을 제안한다.

1) 청소년성매매예방과 억제 효과를 위한 "홍보사업"의 개선

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 학대이며 성적 착취라는 것을 국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다¹⁷⁾. 이에 설득력 있는 홍보콘텐츠 개발도 해야 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느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노출청소년의 활동공간 파악을 통해 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예방 홍보활동에 대해 다양한 운영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승용차를 이용한 ‘움직이는 홍보’

현재 청소년들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동쉼터가 운영 중이다. 이동쉼터는 45

17) 국제아동인권에서는 미성년 성매매를 ‘상업적 아동 성착취(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SEC)’라고 규정하고, 미성년의 경우 성매매라는 용어는 성립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학대이고 성적 착취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청소년의 성(性)이 일회용품 처럼 팔리고 있다.

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거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음식, 위생 등 물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위기청소년들의 경우 노는 장소, 가출 후 숙식 장소, 성매매피해 장소들이 특정 지하철 500미터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1순위 노는 장소로 'PC방과 노래방'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위기청소년들은 지하철 500미터 이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놀고, 숙식을 해결하며 성매매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들은 도로가 협소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45인승 버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러므로 위기청소년들 가까이에서 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한 현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기동성과 현장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승용차를 통한 '움직이는 홍보'를 제안한다.

또한, 승용차를 이용한 '움직이는 홍보'는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제공¹⁸⁾, 위기청소년 초기접촉과 기관 연계활동 등을 포함한다. 승용차를 이용한 '움직이는 홍보'는 청소년성매매 다발 자치구의 특정지하철역을 현장 기지로 선정한 뒤 주정차를 하고 있다가, 특정시간구간(예를 들면 오후 7시부터 11시, 밤 12시부터 새벽 3시)을 정한 뒤, 지하철역 500미터내의 특정지점들을 경찰순찰처럼 이동·운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길거리에서 위기청소년들이 청소년대상 성매매수자들과의 접촉을 단절하고, 성인들은 청소년성매매에 대해 경각심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예방과 억제 효과는 성인들의 인식개선 및 홍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성매매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문제의식과 청소년의 성을 매수할 경우 무거운 형벌에 처할 수 있음

18) 또한 가출 후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가출경험이 있는 초중고생 80% 이상이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가출청소년 서비스이용률 가운데, 초등학생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상담기관을 각각 3.4%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은 청소년쉼터 6.8%, 청소년상담기관 5.1%, 청소년수련관(센터) 및 청소년전화 1388을 각각 3.4%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청소년쉼터가 3.8%, 그 외 서비스는 각각 1.3%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유나 외, 2010).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출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양질의 지원프로그램이나 서비스지지체계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수혜자들에게 어떤 지원프로그램이나 지지체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성매매노출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을 인식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인들의 인식개선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승용차의 외부 디자인이나 외형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정차할 때의 승용차 디자인과 이동 운행할 때의 승용차 디자인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발크레이와 그의 동료들(Barclay et al., 1996)은 범죄감소에 있어 홍보(선전)가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존슨과 바우어스(Johnson and Bowers, 2003)는 홍보(선전)가 범죄예방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용차를 이용한 '움직이는 홍보'활동 효과]

- ① 위기청소년에 대한 초기접촉 및 현장성 강화
- ② 성매매노출 청소년들에게 지원프로그램 등의 정보제공
- ③ 성매수 성인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 ④ 성인의 인식개선 및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경각심 고취

- ※ '승용차를 이용한 패트롤 활동'은 홍보 및 정보제공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외부디자인 매우 중요함(누구나 쉽게 식별하고 무엇을 하는 자동차인지 알 수 있는 디자인 필요)
- ※ 승용차 뒷부분에 전화번호 등을 배치
- ※ 최근 남자청소년의 성매매유입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 필요

② 지하철광고를 이용한 홍보

수도권 교통량 중에서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의 승객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0%가 넘어서고 있고, 지하철 분담률은 36%가 된다(박종수·이금숙, 2010). 때문에 최근에 지하철 광고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지하철 광고를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하철 광고의 내용으로는 청소년성매매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착취이며 아동학대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는 홍보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지하철 역사 주변에 신설될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전문상담소'와 '찾아가는 현장상담'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③ 지하철 500미터 내 24시간 영업시설(맥도널드, 편의점 등)을 활용한 홍보

성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성매매에 대한 진부한 고정관념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위험과 안전 그리고 평등 관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메시지를 개발하여, 주요 지하철역사 500미터 내에서 영업하는 24시간 시설(맥도널드, 편의점 등)에 홍보물을 비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물에는 1388 등 청소년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및 기관 전화번호가 함께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2) 성매매노출청소년의 활동장소에 근거한 ‘찾아가는 현장상담(아웃리치)’

설문에 응답한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1순위 노는 장소로 ‘PC방과 노래방’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는 성별, 학교재학에 따라 선호하는 장소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PC방(49.54%)이며, 노래방(15.60%), 공원(4.59%), 술집(3.67%), 쉼터(3.67%)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여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노래방(32.31%)이며, 그 다음 순위는 PC방(19.49%), 놀이터(6.67%), 골목/길거리(5.1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과 학생이 아닌 경우 모두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PC방과 노래방’이었지만, 그 외 노는 장소의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술집이나 역부근’을,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놀이터, 공원, 골목/길거리’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현장상담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이동버스 혹은 부스를 설치해 놓고 위기청소년들이 찾아오면 상담을 해 주는 고정형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새롭게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기획하고 있다. 이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할 때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성별, 학생여부, 성매매 경험 여부 등 거리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이 밀집하는 공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현장기지(field station)를 어디에 설치하고,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의 근거 지점(node)을 경로화하여 성매매노출청소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필요할 것이다.

3) 청소년대상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소』신설

기존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정책적 대안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위기청소년 내에서도 다양한 층위들이 존재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며, 가출만 한 청소년들과 가출과 성매매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들 사이에는 가족, 학교, 친구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정혜원, 2011b). 또한 성인대상 성매매와 청소년대상 성매매의 경우, 피해내용과 과정 등에 차이가 있다.

이에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상담소가 필요하며,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소는 현재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성매매 지원서비스를 성매매노출청소년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시설 및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성매매피해청소년의 보호와 탈 성매매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노출청소년들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소의 위치선정도 매우 중요하다. 전문상담소의 위치는 지하철역사 500미터 이내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성매매 전문상담소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성매매 전문상담소는 관련기관 및 시설, 의료·법률 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하고,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을 위한 다기관 협력 체계¹⁹⁾구축 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거리청소년 지원기관과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기관들이 상호간에 원활하게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19)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가출청소년 아웃리치 전문기관, 청소년성매매피해 지원시설, 두드림, 지역사회복지관, 학교, 정신보건센터 등이 있다.

②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을 위한 초기 발굴 및 대상특성별 필요서비스 제공

성매매노출청소년의 초기 발굴²⁰⁾과 보호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기록 및 관리²¹⁾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이 성 착취구조에 연루되지 않고, 보호와 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을 대상별로 구분하여, 대상특성에 따른 필요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대상별 필요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위기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른 노는 장소 및 가출 후 숙식 장소, 성매매피해장소 등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대상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전문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 보호 가이드نس(Guidance on Safeguarding Children Involved in Prostitution)' 개발 및 활용과 '성건강의료 전문가(간호사)' 확보가 중요하다.

영국에서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 보호 가이드نس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수사례를 알리기 위한 가이드نس도 다시 제작하였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 보호 가이드نس는 성 착취로 고통 받거나 위험에 빠진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우수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가이드نس개발을 통해 청소년성매매 예방과 방지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낼 곳이 없어 거리를 중심으로 친구집, 쉼터, 모텔 등을 드나들며 살고 있다. 실제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해진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출 청소년 가운데 여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거리에서 성폭력이나 성매매 위험에 처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정혜원, 2011b, 변혜정, 2012).

이에 청소년성매매 전문상담소 내에 간호사를 배치하여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통해 신체적인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성폭력이나 성매매 혹은 성관계 등으로 인한 '성건강' 문제에 대

20) 현재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아 실시되고 있는 사이버 또래 상담사업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현장상담, 움직이는 현장상담 등을 통한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의 초기만남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1) 성매매노출청소년들에게 제공된 보호서비스 내용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서비스 전달과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언제, 어떤 장소에서 서비스가 전달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접근을 꺼려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 후 자료를 축적 관리할 수 있다면, 향후 서비스대상자의 이해와 욕구 그리고 특성에 맞는 서비스 내용과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쉼터 기능보완을 통한 청소년성매매 예방필요 : 일시쉼터²²⁾의 기능보완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을 포함한 거리청소년들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생존과 관련된 의식주의 문제이며,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도 ‘가출 이후 생활비가 없어서(68.7%)’이다(정혜원, 2011b).

정부는 이러한 거리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일시쉼터이다. 일시쉼터는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가출과 가출의 장기화 예방, 사회체계와 연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²³⁾. 그러나 현재 서울소재 일시쉼터는 2개소로 거리청소년에 비해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지하철 선로와 지하철역사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청소년 거주장소, 노는 장소, 가출 시 숙식장소, 성매매피해 장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성매매노출청소년이나 거리청소년들이 이동경로 혹은 근거지가 서울지역의 경우 지하철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리청소년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성매매, 비행)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거리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숙식)을 보호할 수 있는 거리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 일시쉼터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일시쉼터의 설치지역과 관련해서는 거리청소년과 공간적 밀접성을 가질 수 있는 지하철역 근처 혹은 이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되었던 거리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할 것이다. 향후 설치되는 일시쉼터의 운영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통제

22) 일시쉼터를 drop-in-center라 지칭하기도 한다. 정혜원(2011a)에서 가출청소년이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개입 방법으로 drop-in-center을 제안한 바 있다.

23) 일시쉼터는 현장지원서비스, 초기개입서비스, 연계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장지원서비스로는 음식제공, 위생서비스(샤워, 세탁, 이미용 제공), 피복제공(속옷, 겉옷, 신발 등 제공), 의료서비스(임신반응테스트 시약제공, 구충제복용, 콘돔제공 등), 휴식제공(인터넷, 보드게임 등), 거리위험대처교육(성, 약물, 범죄, 인권유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기개입서비스로는 사회성향상지원(대인관계, 예절 등), 정서지원(개인, 부모, 가족의 정서지원 등), 거리상담(가출청소년발견활동 등), 마지막으로 연계활동서비스로 서비스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연계, 귀가지원, 지역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다는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 및 지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들과 최전방에서 만나고 있는 일시쉼터에 성매매 예방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을 위한 현장거점으로써 성착취에 대한 위기개입, 긴급보호, 홍보 등과 같은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내용적인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청소년의 성폭행과 성매매와 관련된 전문가가 일시쉼터에 상주해야 한다. 혹은 일시쉼터 상담원들에게 성폭행 및 성매매 관련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원(거리아웃리치 상담원)들은 주의 깊은 관찰과 상담을 통해 가출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리치기관과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3. 청소년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단속 및 감시 강화

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영역의 변경 및 확대

수도권 청소년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독립변인들 중에서 숙박업소 수와 유흥 및 오락업소 수가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청소년 유해환경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성매매 위험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설치하여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내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연합뉴스, 2012. 10.2).

그러나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거리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를 학교주변이 아닌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상업지역에서 접촉한다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단의 활동영역을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하철 역사주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평가 및 검토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지역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을 구성하여 유해업소와 사범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청소년 유해환경 감소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거리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단속 등에 대한 중앙부처의 평가와 검토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특히 거리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의 물리적 변화를 유도하고,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지역단위의 연계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범죄학에서는 지역(장소)을 관리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거리청소년이나 성매매노출 청소년들의 활동지역을 관리한다면 청소년의 성매매유입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

청소년성매매 방지 및 감소를 위해서 지하철 역사 부근의 모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매매피해장소의 90% 이상이 지하철 역사 500미터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 방학시간 등 특정시점을 중심으로 간헐적인 단속이 아닌 정기적인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단속을 실시하는 경찰관들에게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과 기관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관련 교육도 연계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 유해환경 최소화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의 56%가 PC방과 노래방에서 노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PC방과 노래방 등이 소재하고 있는 유흥지역에 출입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청소

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 등의 ‘완충지대’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기타²⁴⁾

1)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

성매매피해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가 갖는 특성과 더불어 청소년의 독특한 특성이 작용하여 접근하기가 어렵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의존과 자립의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역동적인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성매매 전문 인력이 거리청소년을 위한 현장상담기관 등에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현재 청소년성장캠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교육, 성매매상담원 양성 및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전문 상담하는 전문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 아웃리치기관 및 쉼터 종사자들을 위한 특화된 청소년성매매 방지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성매매 가해자에 관한 법원 양형 강화 필요

201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수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성인까지 처벌하도록 했지만, 그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입법적으로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여전히 낮으며, 그것마저도 일정치 않고 예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가해자에게는 형량을 높이고 법원의 양형기준 또한 선진국과 같이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12월 7일,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성매매 방지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를 모시고,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은 아니지만 연구과정에서 주요하게 제기된 결과를 토대로 ‘기타’ 정책제언을 구성하였다. 청소년성매매방지를 위한 환경조성방안의 토론자로는 윤후의과장(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원미혜소장(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김선옥대표(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변미혜센터장(움직이는 청소년센터)이 참석하였다.

3) 성매수 대상 남자청소년에 대한 연구 필요

성별에 따른 성매매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여자청소년의 약 26%가 성매매경험을 하였고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9.5%가 성매매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청소년성매매의 표적이 여자청소년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남자청소년들도 성매매 범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다. 유지웅(2012)은 최근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남성과 여자청소년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남자청소년과 여자성인, 드물게는 남자청소년과 남자성인사이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성매매의 개념을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정의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정혜원(2011a)연구에서도 성매매피해자로서 남자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성매매의 피해대상이 여자청소년 뿐만 아니라 남자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현재 여자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성매매 피해 지원 대책을 남자청소년들까지 확대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여자청소년들과는 다른 성매매 경로와 성매매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시급하다.

4)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일자리프로그램 신설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그 가운데에서도 특화된 일자리교육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 성매매피해청소년이 자립지원을 받아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노동시장 진입이후 지속성의 문제이다. 많은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 자립지원을 받아 노동시장진입이후 그 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퇴직한 후 다시 거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일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일자리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자리교육프로그램은 근로탐색에서 진로교육, 정서상담, 특성화된 일자리체험, 교육훈련수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 시민참여와 공조 네트워크

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공조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의 연계망 없이는 촘촘한 공적 시스템의 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성매매 방지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단위의 경찰, 청소년, 여성단체, 학교 등 다양한 분야와의 공조와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강은영·김한균·이원상, 2011,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 분석 및 피해아동보호체계 연구, 여성가족부.
- 곽현근, 2003, “동네관련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2), pp. 259-285.
- 권오은·이영웅, 2001, “지역의 물리적 특성과 범죄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건축밀도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 1531-1535.
- 김동근·윤영진·안건혁, 2007,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범죄에 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7), pp. 155-158.
- 김성경, 1998,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여성연구』, 54, pp. 129-145.
- 김연주, 2003, “원조교제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와 행위자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재, 2007, “CPTED와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가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30-32.
- 김영표·임은선, 2003, “GIS기반 공간분석방법 개발 연구”, 국토연구원.
- 김은실, 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 김종휘, 2001,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형사정책연구』, 13(2), pp. 55-75.
- 김준호·박정선, 1995,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형사정책연구』, 1995(18), pp. 1-139.
- 김향초, 2009,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학지사.
- 김현미, 1997, “여성주의 성교육을 위한 모색”, 『한국여성학회』, pp. 123-157.
- 김혜경, 2009, “청소년유해성의 새로운 정의기준과 법적 정비”, 『형사정책연구』, 1(7), pp. 669-700.
- 김혜원, 2011, “청소년 성매매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한 분석: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4), pp. 301-327.
- 남미애, 1999, “여성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연구논집』.
- 노혁, 2000, “가출 여자청소년의 성 상품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지』, 3, pp. 51-84.
- 민가영, 2000, “10대 여성의 가출문화에 관한 연구: 일시, 도피적 가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가영, 2009,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자발성’과 그 맥락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한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청소년연구』, 20(1), pp. 173-302.
- 민인철·박병훈, 2010, “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최소화 방안”, 광주발전연구원.
- 박동균, 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보』, 3, pp.39-66.
- 박성수, 2001,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2, pp.91-121.

- 박성훈, 2011, “한국의 도시지역 범죄피해의 지역적 맥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은정, 2011, “청소년 성매매의 법률적 규제와 문제점”, 『젠더법학』, 3(1), pp. 59-69.
- 박정선, 2003,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폭력비행: 다수준 접근의 적용”, 『형사정책연구』 15(2), pp. 111-154.
- 박종수·이금숙, 2010, “서울수도권 지하철 교통망에서 승객흐름의 분석”, 『한국정보과학회』, 16(3), pp. 316-323.
- 박형민·황지태·황정인·황의갑·박경돈, 2009,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II) 『연구총서』, 2009(12), pp. 27-405.
- 박희동, 2012,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의 발전 방안 기획기사”.
- 변혜정, 2006, “반성폭력운동과 여성주의상담의 관계에 대한 연구: 상담지원자의 입장에서”, 『한국여성학회』, 22(3), pp. 229-272.
- 변혜정·김효정·이진영, 2012, “가출십대여성실태조사”,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늘푸른여성지원 센터.
- 성용은·조현빈, 2010, “한국 청소년의 성비행 대책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4, pp. 125-165.
- 성윤숙, 2009, “여자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경옥, 2002,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13(1), pp. 5-33.
- 여성가족부, 2006,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pp. 261.
-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유문무, 2005, “청소년 성매매 현상의 원인과 대책”, 『한국공공관리학보』, 19(2), pp. 163-194.
- 유지웅, 2012, “성매매 청소년 사범처리와 지원시설 연계의 과제”, 『치안정책연구』, 26(1), pp. 73-101.
- 윤선미, 2011, “집을 찾는 여정으로서 가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재, 2001, “미국 행형의 역사와 그에 대한 평가”, 『형사정책연구』, 46, pp. 225-248.
- 이성식·박정선·이정환, 2012, “지역무질서, 집합효율성, 범죄두려움의 관계: 세 모델의 검증”, 『한국피해자학회』, 20(1), pp. 487-509.
- 이순래·박철현·김상원 역, 2011, “범죄예방론”, 그린.
- 이영환·김천권, 2010, “도시범죄의 예방을 위한 도시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10(11), pp. 155-172.
- 이주영, 2006, “재가출 경험을 통해 본 십대 가출여성의 정체성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희, 1994, “범죄발생율의 지역별 차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효희, 1998, “십대여성의 성적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창, 2008,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창주, 200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30-31.

- 임형백, 2010, “도시범죄에 대한 도시계획적 인식과 대응”, 『치안정책연구』, 24(2), pp. 55-83.
- 정경석, 2010, “공간범죄통합분석모형을 이용한 도시범죄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혜원, 2011a,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I) :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과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정혜원, 2011b,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II) :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조성연·이용교·방은령, 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2), pp.99-116.
- 조한혜정, 2000, “N 세대의 새로운 행동 패러다임 : 청소년의 사회성, 도덕성을 중심으로 ; N 세대 새로운 행동 패러다임 연구의 방향 - ‘발달 심리학’에서 ‘자아 형성학’으로”, 『한국심리발달학회지』, 13(3), pp. 1-8.
- 주희중, 1998, “비행청소년 선도정책의 방향과 향후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28, pp. 139-154.
- 최선우, 2012, “공동주거 단지의 범죄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 공간적 분석 중심”, 『한국민간경비학회』, 11(1) pp. 235-257.
- 최은영, 2003, “거주지 분리 연구의 비공간적 전통을 넘어: 공간지수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47, pp. 23-35.
- 최인섭·진수명, 1999, “지역특성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봉선·남미애, 2009, “성매수 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 황선영, 2001, “GIS를 활용한 범죄의 공간패턴분석: 주거침입절도를 사례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selin, L., 1988, *Spatial Econometrics: Methods and Models*, Dordrecht: Kluwer Academic.
- Anselin, L., 1995,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LISA, *Geographical Analysis*, 27(2), pp. 93-115.
- Barclay, P., Buckley, J., Brantingham, P.J., Brantingham, P. L., & WhinnYates, T., 1996, Preventing Auto Theft in Suburban Vancouver Commuter Lots: Effects of a Bike Patrol, In Clarke, R. V. (ed.), *Preventing Mass Transit Crime*.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 Bichler, G., Christie-Merrall, J., & Sechrest D., 2011, examining juvenile delinquency within activity space: building a context for offender Travel Pattern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8(3), pp. 472-506.
- Cancino, J. M., 2005, The Utility of Social Capital and Collective Efficacy: Social Control Policy in Nonmetropolitan Setting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6, pp. 287-318.
- Cliff, A. D., & Ord, J. K., 1973, *Spatial Autocorrelation*, London: Pion.

-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 588-608.
- Crowe, T. 200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pplications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ts, Boston: Butterworth-Heinemann.
- Estes, R. J., & Weiner, N. A., 2001,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he U. S., Canada and Mexico, Full Report of the U.S. National Study, pp. 1-260.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05, Innocence Lost arrests: National Crackdown on Child Prostitution, Retrieved from <http://www.fbi.gov>.
- Flowers, R. B., 2001, Runaway Kids and Teenage Prostitution: America's lost, Abandoned, and Sexually Exploited Childre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Friedman, S. A., 2007, Alternative Report to the Init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erning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Brooklyn, NY: ECPAT-USA(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 Gray, E. S., 2005. Juvenile Courts and Sexual Exploitation: A judge's Observations, In S. W. Cooper, R. J. Estes, A. P. Giardino, N. D. Kellogg & V. I. Vieth(Eds.), Medical, legal, & Social Science Aspects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 Comprehensive Review of Pornograph, Prostitution, and Internet Crimes(pp. 711-714). St. Louis, MO: G. W. Medical Publishing.
- Greene, J. M., & Ennett, S. T., 1999,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Survival Sex Amo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9), pp. 1406-1409.
- Jeffery, C. R., 197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age Publications*, pp. 1-290.
- Johnson, S. D., & Bowers, K. J., 2003, Opportuni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The Role of Publicity in Crime Prevention,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2, pp. 497-524.
- Kikuchi, G., 2010, Neighborhood structures and crime: a spatial analysis, LFB Scholarly Publishing LLC. pp. 5.
- Kipke, M. D., O'Conner, S., Palmer, R. F., & MacKenzie, R. G., 1995, Street Youth in Los Angeles: Profile of a Group at High Risk for HIV, *Archives of Pediatric and Adolescent Medicine*, 149, pp. 513-519.
- Kipke, M. D., Palmer, R. F., LaFrance, S., & O'Conner, S., 1997, Homeless Youths Descriptions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 *Youth and Society*, 28, pp.

- 415-431.
- Kreston, S. S., 2005,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 Prostitution of Children, In S. W. Cooper, R. J. Estes, A. P. Giardino, N. D. Kellogg & V. I. Vieth(Eds.), *Medical, legal, & Social Science Aspects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 Comprehensive Review of Pornograph, Prostitution, and Internet Crimes*(pp. 745-788). St. Louis, MO: G. W. Medical Publishing.
- Lab, P. S., 1992, *Crime Prevention: Approach Practices and Evaluation*, Cincinnati, Ohio: Anderson Publications, pp. 3.
- Lab, S. P., 2010, *Crime Prevention, Seventh Edition: 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s*(7th ed.), Anderson.
- Messner, 1999, The Two Network Societies, *Economy and Society*, 28(4), pp. 615-628.
- Miethe, T. D., & Meier, R. F., 1994, *Crime and Its Social Context: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offenders, Victims, and Situation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Mitchell, K. J., Finkelhor, D., & Wolak, J., 2010, Conceptualizing Juvenile Prostitution as Child Maltreatment: Findings from the National Juvenile Prostitution Study, *Child Maltreatment*, 15(1), pp.18-36.
- Morenoff, J. D., Sampson, R. J., & Raudenbush, S. W., 2001, Neighborhood Inequality, Collective Efficac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Urban Violence, *Criminology*, 39(3), pp. 517-558.
- Nadon, S. M., Koverola, C., & Schludermann, E. H., 1998, Antecedents to Prostitution Childhood Victim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2), pp. 206-221.
-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 1986, *Understanding Crime Prevention*, Boston: Butterworths, pp. 4.
- Newman, O., 1972,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Defensible Space*, New York: Macmillan, pp. 1-264.
- Park, R. E., & Burgess, E. W., 1925, *The C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 Paynich, R., & Hill, B., 2010, *Fundamentals of Crime Mapping*,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 Pezzin, L. E., 1995, Earning Prospects, Matching Effects, and the Decision to Terminate a Criminal Career,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1(1), pp. 29-50.
- Roncek, D., & Maier, P. A., 1991, Bars, Blocks and Crimes Revised: Linking the Theory of routine Activities to the Empiricism of "hot spots.", *Criminology*, 29(4), pp. 725-753.
- Rosenbaum, D. P., Lurigio, A. J., & Davis, R. C., 1998. *The Prevention of Crime: Social and Situational Strategies*, West/Wadsworth Publishing, Belmont, CA. pp. 130.

- Sampson, R. J., 2006, Collective Efficacy Theory: Lessons Learned and Directions for Future Inquiry, in Francies T. Cullen, John Paul Wright and Kristie R. Blevis(eds.), Taking stock: *The Status of Criminological Theor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pp. 149-167.
- Sampson, R. J., Raudenbush, S. W., & Earls, F., 1997, Neighborhood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pp. 918-924.
- Saville, G., Cleveland, G., 1998, 2nd Generation CPTED: an Antidote to the Social Y2K Virus of Urban Design, Paper presented to the 3rd International CPTED Association conference, Washington DC.
- Schissel, B., & Fedec, K., 1999, The Selling of Innocence: The Gestalt of Danger in the Lives of Youth Prostitute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41, pp. 33-56.
- Shaw, C. R., & McKay, H. D., 1931, Social Factors in Juvenile Delinquency, *Wickersham Commission Report*, 2(13).
- Shaw, C. R., & McKay, H. D.,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A Study of Rates of Delinquency in Relation to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in American Cit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aw, C. R., & McKay, H. D., 1969,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A study of rates of delinquents in relation to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in American cit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egel, L. J., & Senna, J. J., 2000, Juvenile Delinquency: Theory, Practice, and Law (7th ed.), Belmont, CA: Wadsworth.
- Skogan, W., 1986, Fear of Crime and Neighborhood Change,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8, pp. 203-230.
- Skogan, W., 1990, The Police and Public in England and Wales: A British Crime Survey Report, Home Office Research Study 117. London: Home Office.
- Walls, N. E., & Bell, S., 2010, Correlates of Engaging in Survival Sex among Homeless Youth and Young Adults, *Journal of Sex Research*, 47, pp. 1-14.
- Williams, L. M., 2010, Harm and Resilience among Prostituted Teens: Broadening our Understanding of Victimisation and Survival, *Social Policy & Society*, 9(2), pp. 243-254.
- Wilson, J. Q., & George L. K., 1892,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Broken Windows, *The Atlantic Monthly*, 127, pp. 28-38.
- Zimbardo, P. G., 1969, The Human Choice: Individuation, Reason, and Order versus Deindividuation, Impulse, and Database: PsycINFO Chao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7, pp. 237-307.

부 록 1

2012년 청소년의 공간패턴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현장활동지원, 이론개발, 정책 및 이슈 개발 등을 통해 국내외 여성인권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공간패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공간패턴을 파악하여 이후 청소년을 위한 정책마련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선생님이나 기타 기관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며, **통계법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분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p>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p> <p>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p>	<p>〈 연구 담당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 정혜원 박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전화) 02-735-1904</p>
---	---

1. 나이 및 성별	_____세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2.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학생이지만 장기결석 중 <input type="checkbox"/> 자퇴 <input type="checkbox"/> 퇴학
3.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 ※ 서류(등본)상 등록되어있는 거주지를 작성해 주세요	(주소는 동 단위까지 적어주시되, 번지까지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4. 현재 가출 중인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현재 주로 노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예를 들면, 신촌 아트레온 인근)

6. 주로 노는 장소(가장 많이 가는 곳)를 순서대로 쓰세요.

(☞ 예를 들면, 놀이터, PC방, 술집 등)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 6번 응답에서 1순위 장소의 주변 건물이름을 쓰세요.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3~4개 선택하여 구체적인 건물이름을 적어 주세요.)

지하철역	예. 문래역 _____	상가	예. 사리가소펑센터 _____
술집	예. 우산포차 _____	여관	예. FEEL 호텔 _____
학교	예. 상보중학교 _____	아파트	예. 문래자이아파트 _____
PC방	예. 두두PC방 _____	공원	예. 문래공원 _____
놀이터	예. 군인아파트근처놀이터 _____	노래방	예. 신나라노래방 _____
시장	예. 까치산 골목시장 _____	병원	예. 삼육병원 _____



II. 과거 가출시 가장 많이 지냈던 장소 및 지역

8. 과거 가출했을 때 가장 많이 먹고 잤던 (숙식)장소는 어디입니까? 보기에서 순서대로 고르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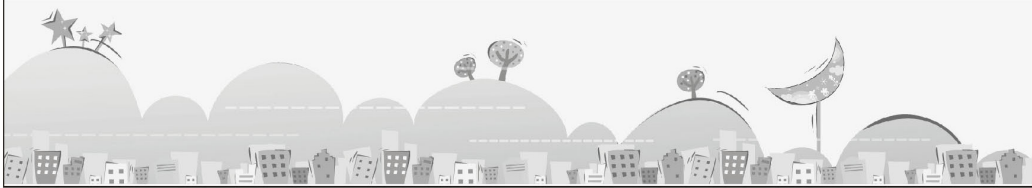
- 〈보기〉
- ① 월세방 ② 쉼터 ③ 친구집 ④ 선후배집 ⑤ 애인집 ⑥ PC방 ⑦ 고시원 ⑧ 모텔 단기투숙
 ⑨ 모텔 장기투숙 ⑩ 찜질방 ⑪ 길거리 ⑫ 빈집 ⑬ 역전(역근처) ⑭ 놀이터 ⑮ 공원
 ⑯ 아파트옥상 ⑰ 상가 ⑱ 낯선사람집(잘 모르는 사람집) ⑲ 기타()

★ 9. 과거 가출했을 때 가장 많이 먹고 잤던 (숙식) 지역은 어디입니까?

(☞ 예를 들면, 영등포구 문래 1동 / 문래동 문래공원 근처)

★ 10. 과거 가출했을 때 가장 많이 먹고 잤던 (숙식) 장소의 주변 건물이름을 적어주세요.
 (※주변에 많이 있던 것을 3~4개 선택하여 구체적인 건물이름을 적어 주세요.)

지하철역	예. 문래역 _____	상가	예. 사려가쇼펍센터 _____
술집	예. 우산포차 _____	여관	예. FEEL 모텔 _____
학교	예. 상보중학교 _____	아파트	예. 문래자이아파트 _____
PC방	예. 두두PC방 _____	공원	예. 문래공원 _____
놀이터	예. 군인아파트근처놀이터 _____	노래방	예. 신나라노래방 _____
시장	예. 까치산 골목시장 _____	병원	예. 삼육병원 _____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